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李 相 海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입지 조건에서 본
지역적 차이에 관한 연구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建 築 學 科

建 築 計 劃 專 攻

고 관 범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李 相 海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입지 조건에서 본
지역적 차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ocal Difference in Conditions of Location at
Jungsangan Village in Jeju Island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建 築 學 科

建 築 計 劃 專 攻

고 관 범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李 相 海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입지 조건에서 본
지역적 차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ocal Difference in Conditions of Location at
Jungsangan Village in Jeju Island

이 論文을 建築學 碩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5年 10月 日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建 築 學 科

建 築 計 劃 專 攻

고 관 범

이 論文을 고관범의 建築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定함

2005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審査委員

審査委員

<목 차>

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 대상마을 선정	2
1.3. 연구 방법 및 범위	4
1.4. 선행연구 검토	5
1.4.1. 제주도 마을에 대한 연구	5
1.4.2. 산간마을에 대한 연구	5
2.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형성과정과 인문지리적 배경	7
2.1.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형성과정	7
2.1.1. 역사적 배경	7
2.1.2.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14
2.2. 제주도 중산간 마을에 대한 지리적인 구분	22
2.2.1. 해발고도에 따른 구분	23
2.2.2. 해안선을 기준으로 한 구분	26
2.3. 제주도 중산간 마을에 대한 인문사회적 구분	28
2.3.1. 민속학면에서 구분	28
2.3.2. 생활사면에서 구분	29
2.4. 제주도 마을의 특수성	34
2.4.1. 마을 공동체	34
2.4.2. 제주도 마을 유형	36
2.4.3. 제주도 중산간 마을과 한반도 산간 마을 비교	38
2.5. 소결	39
3.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입지 특징	41
3.1. 중산간 마을 입지 선정과 물	41
3.2. 중산간 마을에서 물을 얻는 방법	44
3.2.1. 소(沼)를 이용하는 방법	44
3.2.2. 물통을 이용하는 방법	46

3.2.3. 흙항을 이용하는 방법	49
3.3. 제주도 동쪽 중산간 마을 입지 특징	52
3.3.1. 조천읍 교래리	52
3.3.2. 표선면 가시리	55
3.3.3. 남원읍 한남리	57
3.4. 제주도 서쪽 중산간 마을 입지 특징	60
3.4.1. 애월읍 남읍리	60
3.4.2. 한경면 저지리	63
3.4.3. 안덕면 서광서리	66
3.5. 소결	68

4. 중산간 마을에 나타난 지역 차이에 대한 분석 71

4.1. 직접적 요인	71
4.1.1. 하천에 의한 영향	71
4.1.2. 지질·토양 특성에 따른 차이	73
4.1.3. 지역별 용수(用水)의 차이	76
4.2. 간접적 요인	80
4.2.1. 행정단위에 의한 구분	80
4.2.2. 제주도의 동·서 길이에 따른 영향	82
4.2.3. 제주도 동·서 지역 간의 문화 차이에 의한 영향	84
4.3. 소결	85

5. 결론 88

참고문헌	90
------------	----

Abstract	93
----------------	----

〈표 차례〉

표 1-1 연구 대상마을 소개	3
표 2-1 전담지역간 및 도서간의 주요 농업지표비교(%)	21
표 3-1 중산간 지역에서 음료수 확보 방법	68
표 3-2 연구 대상마을 정리	69
표 4-1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지역적 차이	86

〈그림 차례〉

그림 1-1 조사 대상 마을의 위치	2
그림 2-1 제주도 개벽신화가 그려진 제주시청 벽화	8
그림 2-2 『탐라순력도』, 「한라장축」	15
그림 2-3 『대동여지도』 채색·필본에 표기된 관도의 위치	15
그림 2-4 일제시대에 제작된 제주도 지도(1910년 전후)	17
그림 2-5 고려시대에 조성된 목장의 위치	18
그림 2-6 말에 의한 진압농법	20
그림 2-7 제주도의 마을 분포와 해발고도	25
그림 2-8 출장하는 해녀 군단	30
그림 2-9 연자 방아	35
그림 2-10 애월읍 남읍리 포제단	35
그림 2-11 육지마을과 제주마을의 공간구조개념	38
그림 2-12 제주도 중산간 마을 공간구조 개념도	39
그림 3-1 취락요소에서 본 제주도의 지역구분	42
그림 3-2 허벅으로 물 길기	45
그림 3-3 물허벅 진 여자들	45
그림 3-4 남원읍 수망리 오리수	46
그림 3-5 남원읍 수망리 큰이물	46
그림 3-6 표선면 성읍리 주변 천미천	46
그림 3-7 애월읍 남읍리 사장물	47
그림 3-8 공통 ‘물통’에서 파를 손질하는 아낙네들	47
그림 3-9 애월읍 고내리 우주물	48

그림 3-10 애월읍 납읍리 큰새미	48
그림 3-11 한림읍 명월리 김수네물	49
그림 3-12 안덕면 덕수리 군물	49
그림 3-13 성읍민속마을에 남아있는 춤향	50
그림 3-14 춤과 춤향	50
그림 3-15 『탐라순력도』, 「교래대렵」	53
그림 3-16 『탐라순력도』, 「산장구마」	53
그림 3-17 조천읍 교래리 마을 형태	53
그림 3-18 조천읍 교래리 주위 천미천 소(沼) 1	54
그림 3-19 조천읍 교래리 주위 천미천 소(沼) 2	55
그림 3-20 표선면 가시리 마을 형태	56
그림 3-21 표선면 가시리 안좌천	57
그림 3-22 표선면 가시리 동내	57
그림 3-23 남원읍 한남리 마을 형태	58
그림 3-24 남원읍 한남리 족쟁이수	59
그림 3-25 남원읍 한남리 바령수	59
그림 3-26 애월읍 납읍리 마을 형태	61
그림 3-27 애월읍 납읍리 큰새미	62
그림 3-28 애월읍 납읍리 쇠못	63
그림 3-29 『탐라순력도』, 「한라장축」에 표기된 저지의 옛 이름인 ‘堂旨’	63
그림 3-30 한경면 저지리 마을 형태	64
그림 3-31 한경면 저지리 명이동못	65
그림 3-32 한경면 저지리 고운물	65
그림 3-33 안덕면 서광서리 마을 형태	66
그림 3-34 안덕면 서광서리 사장밭 터	67
그림 3-35 안덕면 서광서리 넓게물 터	67
그림 3-36 안덕면 서광서리 동산물	68
그림 4-1 제주도 동서사면과 남북사면의 경사도	71
그림 4-2 제주도 하천 분포와 대상마을의 위치	72
그림 4-3 제주도의 지질과 대상 마을	74
그림 4-4 전통적인 마을 공간 구성 개념도	74
그림 4-5 제주도 토양구분과 대상마을의 관계	75
그림 4-6 제주도에 있어서의 취락 분포	77

그림 4-7 음료수의 유형과 분포	79
그림 4-8 『대동여지도』에 표기된 제주의 행정단위	81
그림 4-9 제주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산줄기	82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문화라는 큰 개념 속에서 제주도 문화는 하위요소로 존재하면서 독자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왔다. 제주도 문화가 가지는 독자성은 제주도와 한반도 사이에 거리가 멀고 위험하여 배로 왕래하기 힘들었기에 교류가 빈번하지 못했던 사실이 크게 작용한다. 더욱이 17세기 인조 때 내려진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 제주 사람들이 육지부에 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국왕의 명령)이 19세기 초까지 200년 동안(1629~1830) 지속됨으로써 제주 사람들은 폐쇄적인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는 제주도 문화와 한반도 문화가 쉽게 교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지형적인 면에서 장기간에 걸쳐 침식이 진행된 한반도 지형에서는 연속적으로 솟아있는 산들로 인해 생기는 산줄기가 특징이 나타난다. 이에 반해 제주도는 한라산의 화산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화산섬으로 섬 가운데 한라산을 중심으로 원추형 경사에 동서로 긴 지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마을이 들어서게 되는 입지 조건에서 한반도와 제주도는 그 시작부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에서는 용천수를 중심으로 하는 해안 마을과 봉천수를 중심으로 하는 중산간 마을이 각각 위치해 있다. 이는 산록완사면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는 한반도와는 다른 제주도의 독자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지형을 바탕으로 한 제주도 문화는 큰 테두리 속에서 각 지역별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지역별로 용천수 유무, 하천분포, 지질·토양 조건 등이 다르고 이러한 요소들이 생활방식에 반영이 되었다. 이는 제주도 문화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에서 찾기 힘든 ‘중산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지역에서 자연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중산간 지대에 있는 마을은 이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삶을 이어왔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왔는가에 대한 흔적이다.

중산간 지역은 조선 중기까지 오랜 시간을 통하여 제주도의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으며 화전농업과 목축업이 여기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목축은 700년 이상 긴 역사를 가지며 이곳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제주도 중산간 마을은 1948년에 있었던 4·3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마을이 소개되었다가 복구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중산간 마을의 원형을 찾고 그 특성을 밝히는 데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중산간 마을에 대한 연구가 더 늦어지게 된다면 과거의 원형을 더 찾아보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제주도 마을은 크게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제주도민에게 이전부터 존재해 온 구분이지만 중산간 마을을 보는 관점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산간 마을에 대한 종합적 고찰과 중산간 마을이 가지는 지역적 특징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 대상마을 선정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상 마을은 총 6개 마을로 동쪽에 북제주군 교래리, 남제주군 가시리·한남리와 서쪽에 북제주군 남읍리·저지리, 남제주군 서광서리이다. 조사기간은 2005년 8월, 9월, 11월이며 총 11회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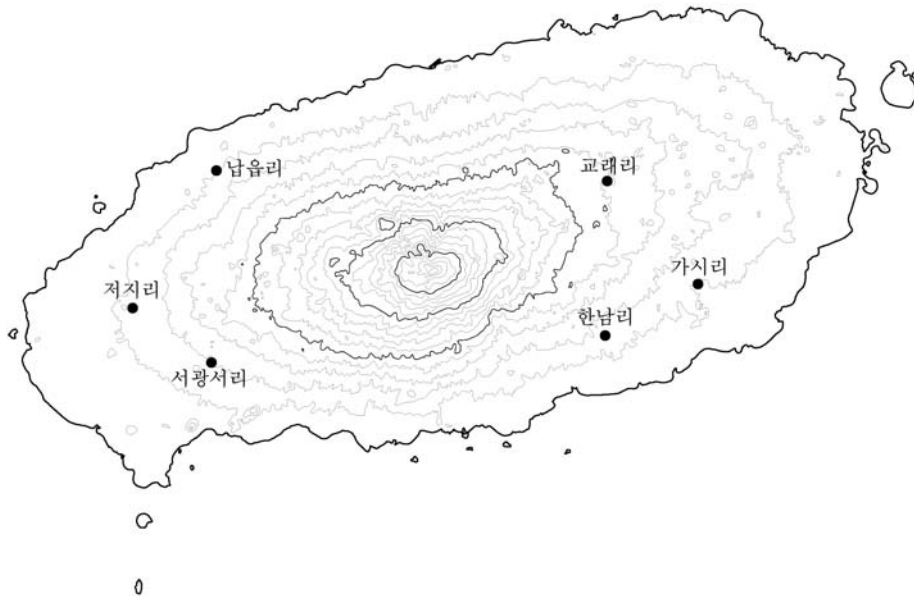


그림 1-1 조사 대상 마을의 위치

대상 마을을 선정하는데 있어 한라산을 기준으로 위치상 좌우가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선정하였으나 동부의 경우 한라산 쪽에 치우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제주군 성산읍인 경우 해안선에서 6km 이상 떨어진 지역은 마을이 전무하다. 이 지역은 지질구조상 용암괴가 지표에 노출된 부분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토심이 얇고 가뭄이 빈발하므로 농사에 불리하며 거주에 부적합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¹⁾ 제주도 동부 지역에는 구좌읍 송당리와 성산읍 난산리 같은 중산간 마을이 있지만 그 주위에 마을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마을이 가지는 특성이 그 지역에서 보편적인 모습인지 아니면 특수한 경우인지 판단할 기준이 없어 대상 마을에서 제외시켰다.

표 1-1 연구 대상마을 소개

마을명	지역	특징	인근 마을
조천읍 교래리	동부	화전 마을. 해발고도가 2번째로 높음.	조천읍 와흘리
표선읍 가시리	동부	세 개의 하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마을 입지.	표선면 성읍리
남원읍 한남리	동부	제주도에서 가장 큰 소(沼)가 있음.	남원읍 수망리
애월읍 남읍리	서부	중산간 마을 중 유일한 집촌. 양반 후손이 많이 거주.	한림읍 명월리
한경면 저지리	서부	용도에 맞게 물통을 따로 설치해 둠.	한경면 청수리
안덕면 서광서리	서부	난민에 의해 마을이 설촌.	안덕면 덕수리

제주도 중산간 마을은 1948년에 일어난 4·3사건으로 인하여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4·3 사건 당시 대부분의 중산간 마을 주민들은 인근 해안 마을로 피신하였으며 마을은 대부분 소개되었다. 대표적인 소개부락을 보면, 표선면 가시, 성산읍 삼달, 남원면 수망 한남 의귀 신례, 서귀읍 상호, 중문면 용흥·색달·회수, 안덕면 동광·서광·상천·광평, 대정읍 신평·구억·무릉, 한경면 청수·낙천·저지·산양·조수, 한림읍 금악·상대·상명, 애월면 광령·소길·금덕·상귀, 조천면 와산·대흘·와흘·교래, 구좌면 송당·덕천, 제주시 아라·봉개 들이다. 이후 1962~63년에 걸쳐 실시된 '4·3사건 이재민 귀농 정착 사업'으로 중산간 마을의 복구가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목축단지, 양잠단지, 과수원이 조성되고 관광지가 개발되면서 중산간

1) 제주도, 『제주도지』(제1권, 1993.), p.490.

지역에 마을이 형성되고 발전하였다.²⁾

따라서 현재 중산간 마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을 좌향이나 동선, 공간 구성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기에는 남아있는 자료나 선행 연구 결과가 부족하여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산간 마을 복구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된 마을 입지를 중심으로 지역적 차이를 연구하였다.

1.3. 연구 방법 및 범위

제주도 중산간 마을은 4·3사건을 계기로 많은 지역이 소개되고 훼손되었다. 현재 모습을 통하여 본래 중산간 마을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하여 과거에 제작된 지적도와 지형도를 중심으로 마을을 파악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마을의 길과 공공시설물의 위치 등을 파악하였다. 마을 형태는 1913년에 제작된 1:1200 지적원도와 1:25000 지도를 바탕으로 최근 제작된 1:5000지도와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 모습을 통해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한라산 북사면과 남사면의 중산간 마을, 즉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중산간 마을은 대상 마을에서 제외시켰다. 한라산 북사면과 남사면의 중산간 마을은 4·3 사건 이후 대부분의 마을이 소개되었고 이후 마을 복구가 이루어졌다. 현재는 많은 부분 도시화가 이루어져서 과거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리고 제주도 동부와 서부의 대표적인 마을인 성읍리(정의현)과 보성리(대정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두 마을은 읍치로 다른 자연부락과 마을 규모나 입지 선정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현재 중산간 마을의 가옥 배치나 좌향은 대부분 4·3사건 이후 중산간 마을을 복구하거나 새마을 운동을 통해 바뀌었으며 한 마을에서 한, 두채 남아있는 가옥의 좌향이나 배치에서 마을의 전체 배치를 분석하는 것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크게 다루지 않았다.

2) 제주도, 『제주도지』(제2권, 1993.), p.1255.

1.4. 선행연구 검토

1.4.1. 제주도 마을에 대한 연구

앞의 책 이치지(栴田 一二)의 『제주도의 지리학적 연구』(제주시우당도서관, 2005)는 1930년대 제주도 지리와 사회상에 대한 조사를 정리한 책이다. 여기서 「제주도의 취락」을 통해 제주도의 집 구조와 취락형태와 분포를 알 수 있다. 그는 거주지역의 밀집도를 기준으로 제주도 마을을 집단촌, 소상집단촌, 산촌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제주도 마을과 음료수와의 관계를 통해 마을 분포가 결정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을의 한라산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구심적 이동, 반대로 높은 곳에서 해안가로 이동하는 것은 원심적 이동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지리적 의의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후 이루어진 제주도 마을에 대한 연구로 오홍석의 「제주도의 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경희대학교, 1974)가 있다. 이는 문화지리학에 근거하여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제주도의 취락 형성과 발달과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제주도 마을을 형태, 입지,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고고미술학에서 연구된 이청규의 「제주도 고고학 연구」(서울대학교, 1995)에서는 제주도 전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사시대 제주도의 취락이 어디에 위치하였으며 해안에 위치한 취락과 용천 수 위치와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1.4.2. 산간마을에 대한 연구

건축 분야에서는 아직 중산간 마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중산간 마을과 유사한 산간 마을에 대한 연구가 있다. 산간 마을에 대한 연구는 황윤철의 「중부산간마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충북 영동의 마을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 1999), 박문우의 「입지론적 배경에 의한 마을과 민가의 좌향에 관한 연구-남부지방 산간마을을 중심으로-」(조선대학교, 1991)가 있다. 황윤철의 논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산간마을은 해발 400m전후에 위치하는 마을로 정의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영동군의 곰디마을과 한천마을의 공간을 분석하고 있다. 박문우의 논문에서는 산간마을은 입지의 측면에서 산이나 경작지, 강 등의 자연적 조건을 수용하여 형성되는 과정에서 ‘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농업경제학 분야에서는 중산간 지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장우환의 「한국 중산간지역의 구분과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경북대학교, 1997)이 있다. 조건 불리 지역으로서 중산간 지역은 문제공간인 동시에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잠재력을 지닌 다면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신농정의 사각 지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산간 지역을 일반 농산촌 지역 중에서 평지의 주변부에서 산간부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면적의 경지가 적고, 임야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산간 지역은 전체 국토면적의 약 절반, 총인구의 약 1할, 전체 농경지의 약 4할, 전체 농가수의 약 4할을 점하고 있어 국토공간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에 의하면 제주도의 안덕면 일부만 중산간 지역으로 구분되어진다.

2.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형성과정과 인문지리적 배경

2.1.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형성과정

2.1.1. 역사적 배경

1) 삼국시대까지의 제주도 마을

제주도는 지표수가 빈약하고, 물이 항상 흐르는 유수천이 발달하지 않아 관용수는 물론 기본적인 음용수를 취할 수 있는 곳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 결국 정주유적의 입지는 일차적으로 용수조건과 높은 상관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주도 토양은 풍화도가 낮고 하천이 발달하지 않아 점토식질의 무논이 발달할 수가 없는 전작(田作)지대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그중에서 보다 토양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정주생활 취락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¹⁾ 광지1식토기유적과 구엄토양군의 분포 상관성은 결국 이 시기에 촌락의 입지 조건으로서 발경작이 유리한 지역을 선택하였음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²⁾

제주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사실에 대한 기록은 삼국지 「동이전」에도 나와 있으며, 우리나라 문헌 중 조선 문종 원년(1451)에 완성된 고려사 지리지에 삼을나(三乙那) 개벽 신화가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처음에는 인물이 없었는데 세 신인(神人)이 땅으로부터 솟아 나왔다. 지금 진산(鎭山) 북쪽 기슭에 모흥(毛興)이라는 구멍이 있으니, 이곳이 세 신인이 나온 땅이다. 맏이는 양을나이고 다음은 고을나이고 세 번째는 부을나인데, 세 사람이 궁벽한 황무지에 돌아다니며 사냥하여 가죽으로 옷을 해입고 고기를 먹고 살았다. 하루는 보니, 붉은 진흙으로 봉한 목함(木函)이 동해 가에 떠 이르렀다. 가까이 가서 열어보니, 안에 석함(石函)이 있고 붉은 띠에 자주옷을 입은 사자(使者)가 따라왔다. 석함을 여니 푸른 옷 입은 처녀 세 사람과 망아지·송아지와 오곡의 종자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일본국(日本國) 사신인데, 우리 왕이 이 세 딸을 낳고 이르기를, 「서해 가운데 있는 산에, 신의 아들 세 사람이 내려와서 나라를 열려고 하는데 배필이 없

1) 이청규, 「제주도 고고학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126.

2) 이청규, 앞의 책(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138.

다.」 하고, 이에 신에게 명하여, 세 딸을 모시고 왔으니, 배필을 삼아 큰 업을 이루소서.’ 하고, 사자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세 사람이 나이 순서대로 나누어 장가들었다. 샘물 맛이 좋고 땅이 비옥한 곳에 나가서 화살을 쏘아 땅을 정하여, 양을나가 사는 곳을 제일도(第一都)라 하고, 고을나가 사는 곳을 제이도(第二都)라 하고, 부을나가 사는 곳을 제삼도(第三都)라 하여, 비로소 오곡을 파종하고 또 망아지와 송아지를 기르니, 날마다 부유하고 번성해졌다.³⁾



그림 2-1 제주도 개벽신화가 그려진 제주시청 벽화
<2005. 11. 16 촬영>

위 설화에서 수렵생활을 하던 제주인들이 농경생활로 전환하였으며 생활무대가 한라산 산록에서 해안가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지형 조건과 개벽 설화를 종합해 생각해 보면 선사시대 취락지는 용천수가 솟아나고 발경작이 가능한 해안지대에 국한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발굴되고 있는 선사시대 주거유적지 분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헌 기록에 따른 고려시대에 제주도 대촌(大村)으로 열거되는 마을 전부가 바로 삼국시대 유적지와 동일 지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 즉 제주인들이 정착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조성된 취락지는 아직 해안지대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중산간 지역의 마을 형성은 새로운 생업방식을 찾은 고려시대 이후로 볼 수 있다.

3) 『新增東國輿地勝覽』, 제38권, 전라도, 제주목.

4) 이청규, 앞의 책(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220.

2) 고려시대 제주도 마을

삼별초의 대몽항쟁을 기준으로 고려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면 전기는 다시 번국(藩國)시대와 군현(郡縣)시대로 나눌 수 있다. 번국(부용국)시대는 제주도가 탐라국이라는 반독립적인 상태에서 성주(星主, 탐라국왕)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에 고려에서는 단지 탐라국 왕족들에게 무산계(武散階)를 수여하거나 구당사(句當使)를 파견하여 간접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는데 그쳤다.⁵⁾ 이 시기까지 한반도와 제주도는 조공을 바치는 정도에 그치는 느슨한 상태로 생각된다. 고려 숙종 때에 이르러 제주도가 지방 행정구역으로 편제되면서 비로소 고려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된다. 고려사 지리지에, 고려 숙종 10년(1105) 탁라를 탐라군 고쳤고, 그 뒤 고려 충렬왕 21년(1295)에 탐라를 제주로 고쳐 목사와 판관을 두었다고 한다.⁶⁾

고려 왕조는 권농정책을 일관하였고 농업을 경제생활의 기반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농업이 성립될 수 있는 평지가 주요한 생활공간이 되었고, 취락의 입지는 이전 취락입지를 토대로 개간에 의한 연변이동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된다.⁷⁾

이전부터 탐라에 살고 있던 원주민을 제외하고 새로이 유입된 사람들은 멀게는 백제가 망할 때 신라에 복종하지 않고 이곳에 들어와 백제의 부흥을 꾀하다 주저앉은 사람들이다.⁸⁾ 고려 왕조의 군현제 이후 제주도가 고려의 행정체제 안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고려가 원의 지배를 받기 전까지는 제주도는 중앙정부와는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중앙의 정쟁에서 밀려나 생활 여건이 좋지 못한 제주도까지 밀려왔을 것이다. 이때까지 제주도 취락입지는 생활자원의 획득, 한반도와 연결, 지형 조건 제약으로 원시적 촌락의 발생지인 해안지대에 국한되었으리라 생각한다.⁹⁾

고려 원종 14년(1273) 4월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 삼별초가 평정된 후 제주도는 원의 직할지가 되었다. 이는 원 세조가 열망하던 일본 또는 남송 공략에 있어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¹⁰⁾ 원 세조는 고려를 복속시킨 직후 일본으로부터 조공을 받기 위해 고려를 통해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했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본이 끝내 응하지 않을

5) 북제주군, 『북제주군지』(상권, 2000.), p.434.

6)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세림, 2000.), p.25.

7) 오홍석, 「제주도의 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30.

8) 김봉옥, 앞의 책(세림, 2000.), p.44.

9) 오홍석, 「제주도의 취락입지에 관한 연구」(지리학 제4권 제1호, 1969.), p.44.

10) 북제주군, 앞의 책(상권, 2000.), p.453.

경우 정벌도 불사한다는 방침 아래 선박 건조와 군사 징발 등 그 준비에 착수했고 또 이를 위해 제주도를 전초 기지로 삼았었다.¹¹⁾ 원나라는 초원에서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력부대와 전술은 기마병이 중심이었다. 따라서 일본정벌을 계획했을 당시에도 해군보다는 일본본토까지 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기마병을 실어 나른 후에 공격하고자 계획하였다. 이러한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제주도에 대규모 목장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제주도는 일본과 가까우며, 섬이기 때문에 해안선을 따라 여러 포구를 통해 한꺼번에 대규모로 배에 말을 싣는 것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선박의 제작, 군마의 양성, 법화사의 재창건, 궁궐 건설 시도 등이 이 시기 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원이 제주도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보여주는 정책이다.

원은 고려 충렬왕 2년(1275)에 제주도에 몽골식 목장을 개설하여 원으로부터 대완마·달단마 등의 마필을 들여와 제주도 고유의 재래종 말과 더불어 이들 외래종 말도 많이 목양하였다. 제주도 목장은 원나라 14개 목장 가운데 하나로 전략상 중요시되던 지역이었다.¹²⁾ 제주도 목장은 10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관리하였는데 이들 각 소장에는 마감과 20여명의 목자를 두어 관리케 하였고, 이 과정에 소규모 취락이 중산간 지대에 출현하게 된다.¹³⁾ 제주도 중산간 지대에 대규모 목장이 들어서면서 이전까지 해안지대에 집중되어 있던 거주영역이 중산간 지대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고려시대 목장과 관련하여 형성되기 시작한 중산간 마을의 위치는 대부분 용천수와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전 시기 제주도 마을들은 모두 해안에 용천수가 나오는 곳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이외에 다른 취수방법을 발견하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산간 지대에서 나오는 용천수는 해안지대에 용천수에 비해 그 양이 적어 이에 따라 초기 중산간 마을의 규모도 제한되었을 것이다.

3) 조선시대의 제주도 중산간 마을

원이 시도하였던 두 차례 일본 침공이 실패로 끝나자, 오히려 이번에는 일본에서 우리 쪽을 침범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왜구’이다.¹⁴⁾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정사에 기록된 왜구의 침입은 아주 빈번하였으며, 당

11) 북제주군, 앞의 책(상권, 2000.), p.451.

12) 북제주군, 앞의 책(상권, 2000.), p.458.

13) 제주도, 『제주도지』(제1권, 1993.), p.485.

14) 김봉옥, 앞의 책(세림, 2000.), p.63.

시 제주도민은 왜구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왜구의 침범이 가장 심했던 시기는, 일본의 전국시대로 그곳에 혼란이 일자 살아갈 길이 막연한 연해민들이 우리나라나 명나라에 침입해서 노략질을 일삼았기 때문이다.¹⁵⁾ 일본의 아시카가막부(足利幕府)가 쇠퇴하면서 중앙 통제력이 없어지자, 왜구들의 침입은 더욱 잦고 치열해졌다.¹⁶⁾ 조선이 세워진 후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제주도는 행정체계가 개편되어 두 개의 읍성이 신설되고 해안을 따라 진성과 읍성, 봉수대 등 철저한 방어체계를 갖추게 된다.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제주도는 이전과 달리 중앙정부에 의해 강한 지배를 받게 된다. 건국 당시 조선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바탕으로 전국을 군현체제로 개편하였다. 이전까지 제주목에 제주도의 모든 행정이 집중되어 있던 데 반하여 대정현과 정의현이 신설되고 왜구에 대한 방어와 도민에 대한 행정이 나뉘어졌다.

“……이제부터 본읍에는 동도(東道)의 신촌현(新村縣)·함덕현(咸德縣)·금녕현(金寧縣)과 서도(西道)의 귀일현(貴日縣)·고내현(高內縣)·애월현(厓月縣)·곽지현(郭支縣)·귀덕현(歸德縣)·명월현(明月縣)을 소속시키고, 동도(東道)의 현감(縣監)은 정의현(旌義縣)으로서 본읍을 삼아 토산현(兎山縣)·호아현(狐兒縣)·홍로현(洪爐縣) 등 3현(三縣)을 소속시키고, 서도(西道)의 현감(縣監)은 대정현(大靜縣)으로서 본읍을 삼아 예래현(猒來縣)·차귀현(遮歸縣) 등 2현(縣)을 소속시키 되,……” 17)

지금의 제주시와 북제주군 지역 곧 한라산 북쪽은 제주목으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곧 한라산 남쪽은 둘로 나누어 서쪽을 대정현, 동쪽을 정의현으로 삼아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는 제주 도안무사(都安撫使) 오식(吳湜)의 건의를 받아들인 조치였으며, 이내 제주·대정·정의 세 고을에는 성이 쌓아졌고 향교가 세워졌다.¹⁸⁾ 제주도는 이 시기에 삼현체제로 행정체계가 바뀌었으며 제주목에서 정의현과 대정현으로 이어지는 관도(官道)가 생겨났다. 이 도로는

15) 김영돈, 『제주도 제주 사람』(민속원, 2000.), p.81.

16) 김봉옥, 앞의 책(세림, 2000.), p.103.

17) “…… 願自今本邑則屬以東道 新村縣·咸德縣·金寧縣、西道 貴日縣·高內縣·厓月縣·郭支縣·歸德縣·明月縣。東道縣監以 旌義縣 爲本邑, 屬以 兎山縣·狐兒縣·洪爐縣 等三縣; 西道縣監以大靜縣 爲本邑, 屬以 猒來縣·遮歸縣 等二縣, 而兩處縣監, ……”(『太宗實錄』 태종 16年 5月 丁酉條.)

18) 김영돈, 앞의 책(민속원, 2000.), p.77.

중산간 지역을 가로지르며 형성되었고 이 주변으로 마을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에 중산간 마을이 생겨나게 된 데에는 제주도의 행정체계 개편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조선 말기까지 제주, 대정, 정의를 연결하는 중산간 지역의 관도는 행정과 경제생활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었다.¹⁹⁾ 관도가 생기면서 중산간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해진 이후로 관도 주변에 마을이 들어서기 시작한다. 이때 마을을 세운 사람들은 중앙 정치에서 밀려나 제주도로 내려오거나 유배 온 사람들이 많았다. 이 시기의 제주도는 인물의 고향이 아니라 말의 산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앙 정치의 희생자들을 귀양 보내는 유배지 정도로 인식되어졌다. 행정구역의 변경과 군현의 증설, 읍성의 내륙이동, 읍성을 연결하는 관도의 신설, 관도 주변 유림촌의 성립으로 생활중심권의 내륙이동을 촉진시켰다.²⁰⁾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설촌년대를 정리해보면 많은 중산간 마을이 16세기에서 18세기 후반에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육지의 중앙권력으로부터 정치적 피난민 또는 유배인이 되어 내도한 양반들은 중산간 마을의 입도 선조가 되기도 하였으며, 그들이 제주문화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등장한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중앙의 지배세력에 강한 저항의식을, 다른 한편에서는 은연중에 양반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지니면서 이중적 의식구조를 가지게 된다.²¹⁾

이외에도 해안 지역의 인구증가로 농토가 좁아짐에 따라 개척지·개간지가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취락의 형성도 해안지방에서 내륙지방으로 이동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조선 초기부터 왕위찬탈과 당쟁에 패배한 유민과 기세사관자(棄世謝官者)들의 은거지로서 왜구침입에 대한 피신처로도 내륙지역은 안전지대였다.²²⁾ 그리고 당시 중산간 지역의 상황은 불안과 공포를 조장했던 왜구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치·사회상과 떨어져 있는 은둔적 성격도 띠고 있었다.

중산간 마을 입지는 비록 음료수를 봉천수에 의존해야 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야초지가 넓게 제공되었으며, 한라산에서 임산물을 획득할 수 있고, 농경에 이용되는 가축을 방목할 수 있는 목장이 예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자급자족 경제생활에 최적지였다. ‘산불근 해불근’의 접이지대는 외우내환에도

19) 김혜숙, 『제주도 가족과 권당』(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p.374.

20) 오홍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39.

21) 김혜숙, 앞의 책(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p.119.

22) 제주도, 『제주도지』(상권, 1982.), pp.620~621.

안전지대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유림과 부농이 거주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조선사회의 중심취락이 되었다.²³⁾

김홍식은 『제주의 민속IV』(제주도, 1996)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는 임란, 병자의 병란을 겪지 않는다. 대신 조선 초기까지 왜구에 의한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제주성지까지 침략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는 마을마다 많은 준비가 있었다. 특히 해안마을은 자경단의 조직까지 있을 정도였다. 어쨌든 조선초기에는 전국에 중앙 중심의 진관제도를 실시하면서 제주 역시 군현을 해안으로부터 내륙 안쪽으로 들어와서 배치한다.

이런 계획사상은 민간 마을에도 적용되어 마을이 물이 좋은 해안을 떠나서 중산간지대로 옮긴다. 이것이 웃드리 마을이라고 하는 것인데 생수가 나는 명월 등 몇몇 마을을 제외하고는 봉천수에 의지해야 하는 마을 입지에 대단히 불리한 조건인데도 내륙으로 마을을 자리했다. 이것은 그만큼 왜구의 피해가 극심했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행정이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제주 삶의 중심 지역이 섬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고려 때까지만 해도 중앙 정부와의 관계는 조공을 바치는 정도의 느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몽고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을 때까지 아마도 섬의 중심지역은 북쪽이 아니라 남쪽이었던 듯싶다.²⁴⁾

이러한 생각은 조선시대 제주도가 삼현체제로 개편되면서 정의현과 대정현 읍성의 입지 선정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중산간 마을의 형성에 대한 해석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하지만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왜구가 빈번하여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민에게는 공포감을 해소하기 위한 해안에 따라 생긴 별방진성이나 명월진성과 같은 진취락 발달, 정의현과 대정현의 입지는 당시 사회적 여건과 환경의 요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관도를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중산간 마을은 그 지리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기존의 해안 마을을 앞서가기 시작한다.

한때는 300여개 이상의 반농반목의 중산간 마을이 형성되어 유지되었으나

23) 오홍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128.

24) 제주도, 『제주의 민속 IV』(주생활편, 1996.), p.433. 이 글에서는 제주도의 중심지역은 남쪽이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쓰였지만 실제로 한라산 남쪽 지역에는 마을의 형성이 북쪽에 비해 늦은 것이 사실이다.

1917년 해안부락을 연결하는 일주도로의 개통 등으로 지방행정, 경제중심이 해안지역으로 이전되면서 그 발전은 정체되었다.²⁵⁾ 이는 일제강점기에 군수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주도 포구를 개발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 세력인 중산간 마을을 억누르고자 상대적으로 일주도로를 개통시키고 해안 마을을 육성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1.2.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1) 관도(官道)의 개통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제주도 행정체계는 고려시대와 달리 삼현(三縣)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는 제주읍성에만 목사가 파견되어 제주도의 모든 행정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왜구의 침입이 빈번해지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읍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동쪽과 서쪽의 도민들은 목사가 있는 제주목까지 왕래가 힘들었고, 중앙 정부에서도 각 지역에 현감을 통해 목장을 감독하고자 하였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 남제주 지역 중 동쪽에 정의현, 서쪽에 대정현이 생겨나게 되고 이곳과 제주목을 연결하는 관도(官道)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로써 이전까지 원시적인 취락간 통로만 있던 제주도에 지역간 연결도로가 만들어진 것이다. 관도는 조선 태종 16년(1416) 제주도가 제주, 대정, 정의로 삼현으로 나누어짐으로써, 이 3개 지역을 연결하는 중산간에 만들어진 도로가 처음이다.

각 읍성을 이어주는 관도라 하지만 그 규모나 시설 수준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를 다녀간 추사 김정희(1804년), 청음 김상헌, 충암 김정 등도 각각 그들의 기행문에서 "길이 모두 자갈길로 인마조차 다니기 어려웠다."고 기록하고 있어 제대로 된 도로가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다.²⁶⁾

예전에는 도로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 철종 12년(1861)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나올 때까지 제주에 관한 지도로는 숙종 28년(1702)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형상이 관내를 순시하며 화공 김남지를 시켜 그린 『탐라순력도』와 『탐라지도』(1709년) 『제주삼읍도총지도』등이 있지만 도로 표시는 전혀 없다.²⁷⁾

25) 임범훈, 「제주도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중산간지역 관광개발 중심으로」(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p.49.

26) 제주도, 『제주도지』(제2권, 1993.), p.1157.

27) 제주도, 앞의 책(제2권, 1993.), p.1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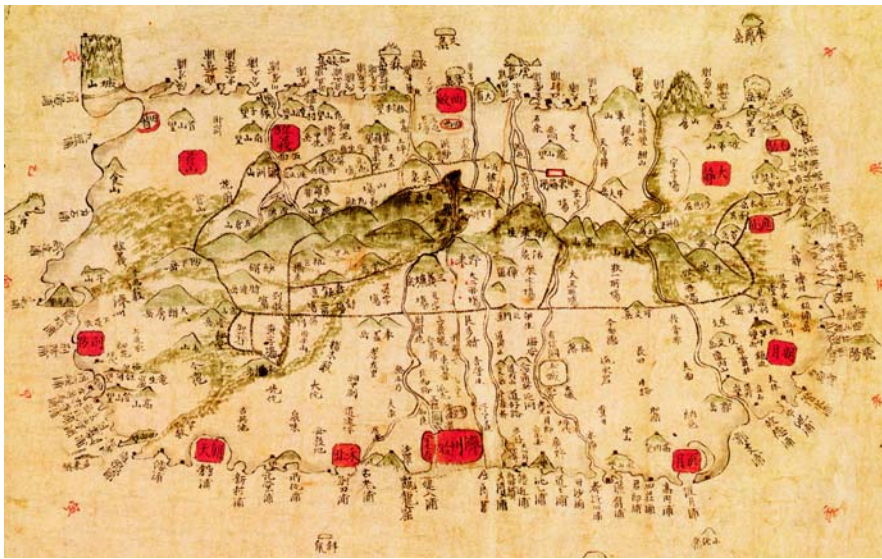


그림 2-2 『탐라순력도』, 「한라장축」
<『탐라순력도 영인본』, p.17>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제주목과 각 성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해안일주도로와 대정현~서귀성(현 고산), 제주목~명월, 제주목~대정, 제주목~정의, 제주목~별방성(현 하도)등 6개 노선만 표시되었다.²⁸⁾

읍성의 신설과 읍성을 연결하는 관도의 개통은 내륙에 대한 거주지 이동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²⁹⁾ 하지만 해안 지대에 국한되어 있던 거주지가 내륙으로 확대되는 초기에는 새로운 마을이 독립적으로 세워지기 보다는 기존 마을과의 관계가 긴밀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중산간 지대에 정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빈번한 이주현상을 보이며, 이는 이전과 다른 환경에 적응해 가는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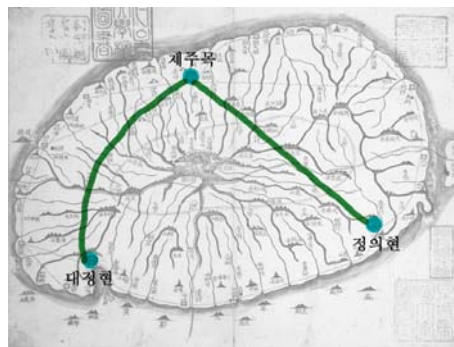


그림 2-3 『대동여지도』 채색·필본에
표기된 관도의 위치
<『대동여지도』 부분,
<http://e-kyujanggak.snu.ac.kr>>

28) 제주도, 앞의 책(제2권, 1993.), p.1157.

29) 오흥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41.

작오라 생각된다. 하지만 새로운 주거지를 찾기 위한 움직임은 고려시대³⁰⁾ 이후 해안에서 중산간 방향으로 이루어진 이동의 결과이다.³¹⁾ 왜구의 침입과 새로운 경작지 확보를 위하여 제주도 전역에서 점진적으로 내륙이동의 공통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930년대 제주도를 답사하고 연구한 앞의 책 이치지(栴田 一二)는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제2환상취락분포대³²⁾의 각 취락을 연락한 관도(官道)가 아직도 불연속환상(不連續環狀)을 이루고 있는 점이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안취락은 관도를 향해 내륙에 도로로 연락하고 해안 상호간보다도 배후의 취락 내륙부와의 관계밀접성³³⁾이 도로망에도 인정되는 것이다.³⁴⁾

그의 관찰에 의하면 해안 마을 간의 이동이나 중산간 마을 간의 이동보다는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 간의 이동이 훨씬 수월하였다고 보인다.

내륙지방 개발의 진전에 의한 인구증가와 주거공간의 확대로 정의, 대정현의 신설 등 행정구역의 재편성이 이루어졌고 각 현의 읍성은 4~8km의 내륙 산록에 성립되면서부터 삼읍을 연결하는 관도를 따라서 중산간 마을³⁵⁾이 발달되었다.³⁶⁾ 이러한 중산간 마을에 정착하게 되는 사람들은 주로 중앙 정치에서 밀려나 유배를 떠난 사람이나 유민이었다. 이들이 제주도로 유입되면서 관도가 지나가는 길목에 마을을 세우고 입도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는 많은 사회적 여건이 방영되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거주조건이 좋은 해안지대는 기존의 토착세력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피해 거주지를 구한 결

30) 오홍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에서는 고려시대를 중세, 조선시대를 근세로 시대 구분하고 있다.

31) 오홍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49.

32) 앞의 책 이치지는 중산간 마을들이 위치한 지역을 '제2환상취락분포대'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제1환상취락분포대'는 제주도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해안 마을들을 말한다.

33) 이 글에서 앞의 책 이치지는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 간의 도로망을 근거로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미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 주민 간의 거리감이 존재하였으며 앞의 책 이치지는 이를 미처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34) 마수다 이치지 저 / 홍성목 번역, 『제주도의 지리학적 연구』(제주시우당도서관, 2005.), p.216.

35) 오홍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에서는 중산간 마을을 '산록입지 취락'으로 표현하고 있다.

36) 오홍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103.

과로 봐야 할 것이다.

내륙을 삼각형으로 잇는 관도 주위에 양반유림촌이 형성되고 후에 이들 마을은 제주도의 중심마을로 자리 잡았다.³⁷⁾ 관도에 인접된 취락에는 유림과 부농이 거주하였고³⁸⁾ 이들은 관리들의 착취가 심한 해안 마을에 비해 수탈의 정도가 약했고 농업과 목축업을 통해 상대적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산간 마을은 경제·사회·문화면에서 제주도의 중심 마을로 발달하게 된다.

중산간 마을 중 양반유림촌 이외에도 관도와 관련된 원취락도 생겨났다. 제주와 대정현 그리고 제주와 정의현을 연결하는 관도에 인접하여 현 애월면 경, 조천면 경에 각각 원(院)이 설치된 간접적인 자료가 육군측지부 발행의 1:50,000과 1:200,000 지형도에서 발견된다. 초기에는 보행거리와 민가의 분포상태를 고려하여 황벽지에 원이 고립된 것으로 본다. 그러다가 취락의 내륙이동과 병행하여 원의 설치장소까지 거주지가 확장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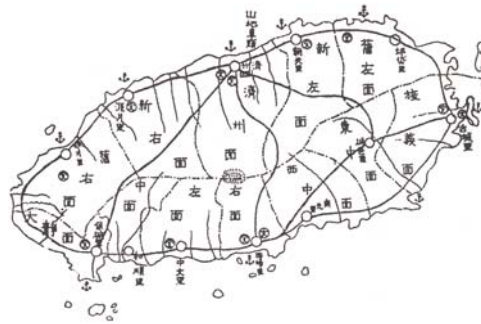


그림 2-4 일제시대에 제작된 제주도 지도(1910년 전후)

○ : 면사무소, - : 도로

<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 「제주의 마을 공간 조사보고서」(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2002.), 그림12, p.28.>

2) 목장 경영

제주도는 한라산의 화산활동에 의해 생겨났으며 전체적으로 방패를 엮어놓은 순상화산 형태를 띠고 있다. 제주도 전역에는 ‘오름’이라 불리는 수많은 기생화산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 말을 방목할 경우 해발고도에 따라 풀들이 자라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말들이 뜯어 먹는 풀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한라산에는 늑대나 호랑이와 같은 맹수가 없으며 육지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넘어올 염려도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넓은 초지에 기후가 따뜻하고 사나운 짐승이 없으므로, 말을 풀어놓아 먹이기에 최적의 장소인 것이다.

37) 제주도, 앞의 책(제2권, 1993.), pp.1254~1255.

38) 오흥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112.

39) 오흥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p.58~59.

삼별초 항쟁(1270~1273년)이후 고려는 원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 원은 일본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하여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목장을 설치하여 전투마를 육성하기 시작한다. 문헌 기록에 의하면 고려 충렬왕 2년(1276) 7월, 초토사(招討司)를 군민총관부(軍民總管府)로 고치고, 탐라치(塔刺赤)를 다루가치로 삼아 파견하였다. 이 때 말 160마리를 가지고 와서 수산평(성산읍 수산리)에 방목하였는데, 이것이 원의 목마장 시초이다.⁴⁰⁾

忠烈王三年 元設牧馬場 元塔羅赤載 牛馬駱驢羊 來牧于首山坪 馬畜蕃息 彌滿山也 是後元設 達魯花赤府 以監之 或置萬戶以主牧畜⁴¹⁾

수산평의 위치는 현재 천미천(川尾川) 중심의 천미장(川尾場)과 대체로 일치하며 광대한 평야, 완만한 경사도, 편북풍의 방풍을 위한 본도 최대의 기생 화산군 분포, 동계방목의 가능성 등 자연 지리적 조건이 유리한 목축지역이다.⁴²⁾

원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10개 소장으로 나누어 관리하였으며 전투마를 길러내고 일본정벌을 준비하였는데 이 당시에 많은 목축기술이 제주도로 들어오게 되었다. 조선 시대의 목축경영도 고려 시대에서부터 전통이 계승된 10소장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각 소장마다 마감과 이십여 명의 목자를 두어 목축에 임하도록 하였으니 어떤 형태이던 이들의 거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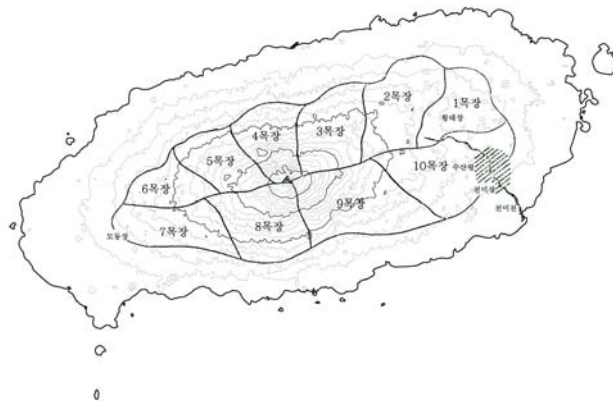


그림 2-5 고려시대에 조성된 목장의 위치
<출처: 『제주도의 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도2, p.33.참조>

위한 취락의 성립이 불가피하였다. 이것은 고려 후기의 수직적 상한취락으로

40) 김봉옥, 앞의 책(세림, 2000.), pp.60-61.

41) 오흥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37.에서 재인용.

42) 오흥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37.

지리학적 의의가 있다.⁴³⁾ 목장을 관리하는 마감과 목자들이 중산간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함으로써 중산간 마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고려시대의 목축은 유목민인 원의 침입과 더불어 몽고족의 둔전에 농우과 군마의 사육을 강요당하면서부터 피동적 성황을 보인다.⁴⁴⁾ 원의 일본 정벌이 무산되고 공민왕의 개혁으로 고려가 원의 지배 하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이전까지 기르던 전투마는 효용 가치가 떨어졌다. 이후로는 목장에서 짐을 나르거나 농사에 쓰일 수 있는 과하마(果下馬=조랑말)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고 중산간 지대의 목축업이 제주도민의 삶과 연결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농업과 연근해어업만이 이루어졌던 제주도민의 생산 활동에 목축업이 추가되기 시작한다.

마소를 기르는 방법은 크게 종년 방목, 계절적 방목, 전사(全飼)로 나눌 수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는 종년 방목 형식으로 나타난다. 목마장이 설치되었던 중산간 지대에서 종년 방목은 가장 널리 행해지고 있었던 방법으로 해발 2~300m에서 600m(이 주변에 상갓이라 하는 감목관 시대 목장 경계인 울타리가 있다)에 이르는 지역에서 방목한다. 농번기에는 여러 가족이 연합하여 마소 떼를 만들어 가족이 교대로 책임을 맡는다. 종일 감시자를 둔다. 그러나 농번기가 지나면 감시의 책임은 각각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지만 매일 항상 옆에 붙어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 망보러 가는 정도이며, 우마의 자유에 맡겨두는 것이다.⁴⁵⁾

제주도 토양은 화산회토의 ‘뜬땅(푸석 푸석한 땅)’의 대부분이라 과종을 할 때는 뜬 땅을 밟아주는 것이 농사에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농번기에 ‘ㄷ쉬’를 가진 둔주(마소의 임자)들은 테우리들을 동원하여 그 마을에 모든 밭을 밟아주었고 밭을 밟는 ‘ㄷ쉬’를 모는 테우리들은 대단한 대우를 받았다.⁴⁶⁾ 이러한 농사 방법은 중산간 마을에서 마을 공동목장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일정한 마소의 수를 유지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제주도는 변방에 불과하였으며 유배지 혹은 많은 진상품을 생산해내는 장소로만 인식되었다. 이 또한 중앙정부와는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제주 목사나 수령들이 중간에 빼돌리는 경우도 많았고 이로 인해 제주도민은 많은 수탈을 당하게 된다. 진상품은 제주말과 같이 목장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전복과 옥돔과 같은 해산물과 감귤 같은 과수원 작물이 주된 품목이

43) 오흥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38.

44) 오흥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37.

45) 제주도 교육청, 「향토교육자료 제주의 전통문화」(1996.), pp.309~310.

46) 제주도 교육청, 앞의 책(1996.), p.311.

여서 상대적으로 해안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수탈을 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산간 마을에서 얻게 되는 목장수입이 해안마을에서 어업과 농업으로 얻게 되는 수입보다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경제적 수입의 차이는 중산간 마을의 반존의식과 연결되어 해안 마을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을 심게 해주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3) 화전취락의 성립

제주도는 거의 전역이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화산회토, '뜨든 땅'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한반도부와는 다른 농업 방식이 요구되었다. 화산회토로 덮인 토지의 표면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돌담을 세우기도 하였으며 마소 떼를 이용한 진압농법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방목 형태로 조랑말을 많이 사육하게 했고, 마을 공동목장 출현을 가져오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⁴⁷⁾



그림 2-6 말에 의한 진압농법
<송성대, 『제주인의 해민정신-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각, 2001.) 그림29, p.263.>

하지만 척박한 토지 위에 원시적인 경작방법과 연속경작은 지력소모를 초래케 하여 농산물의 생산성은 크게 저하되었다. 그래서 경작자들은 식량의 자급자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토지를 개간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은 새로운 영농방법인 화전경작으로 전환하면서 화전취락의 성립을 보게 된 것이다. 그 당시 대표적 화전취락은 조천면 교래리를 중심으로 감발래·길영동·고영동, 제주시 남방의 민전동, 도남리 중심의 병다동·이생동 등이다.⁴⁸⁾

중산간 마을은 대부분 화전농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해안 지역은 토지가 비교적 협소하였던 반면, 중산간 지역의 광활한 목장지는 제주도 농민들에게 무한한 농지로 주어졌다. 제주도 농민들은 국유지인 목장지, 혹은 산림 속에 들어가 비교적 평탄지를 골라 화입(火入)을 놓고 몇 년에 걸쳐 농토로 개간해 갔던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화전은 메밀, 피, 감자, 새(茅)들을 경작하기에 적합하였다.

47) 송성대, 『제주인의 해민정신-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각, 2001.), p.262.

48) 제주도, 앞의 책(상권, 1982.), p.624.

표 2-1 전답지역간 및 도서간의 주요 농업지표비교(%)

지역별	전체인구에 대한 자가노동비	전체인구에 대한 머슴의 구성비	여자 100에 대한 남자인구	경지면적에 대한 논의 구성비	총 경영면적에 대한 야초지의 구성비
논농사지역	36.7	2.0	95.4	83.0	0.5
밭농사지역	36.8	0.8	100.5	17.0	0.2
도서지역	36.3	2.1	94.9	65.0	0.0
제주도	50.3	0.3	81.4	2.5	21.2

자료: 대한민국 농림부(1964), 「1960 農業國稅調査-시군읍면통계」에 의해 제작성함.

- 논농사지역: 논 면적이 경지의 80% 이상이 되는 군으로 전북 김제, 옥구, 경남의 양산, 동래, 김해, 창원을 선정하여 평균함.
- 밭농사지역: 밭 면적이 경지면적의 70% 이상이 되는 군으로 강원도의 영월, 평창, 정선 등의 3개군을 선정 평균한 것임.
- 도서지역: 한국의 5대섬 중 제주도를 제외한 거제도, 진도, 남해도, 강화도 등에 해당하는 값을 평균함. 도서지역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은 45~74%의 범위를 갖는다.

<표 2-1>에서 보는 것처럼 비록 비옥도는 낮으나 총경영지 면적 중 개간 경작 가능한 야초지가 다른 지역은 1%도 안 되는데 제주도는 무려 21.2%나 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야초지는 소위 제주도에서는 중산간 지대라 칭하는 지역으로 인구밀집지대인 해안지대와 원시자연경관을 보여주는 산악지대 사이의 점이지대⁴⁹⁾를 말한다.⁵⁰⁾ 이 조사 결과는 1960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제주도에는 1910년에 일제에 의해 화전경작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 조사 결과에서 당시 21%가 넘는 야초지는 휴면상태로 놓여 있거나 방목장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화전경작은 목장지 안에 좋은 땅을 골라 화전을 하고 농사를 지었으며 이를 ‘장전(陽田)’이라고 하였다. 화전민들의 농사방법은 한 곳에서 농사를 짓다가 지력이 쇠하면 그 땅의 지력이 되살아날 때까지 관리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경작을 하며 땅을 순환시키는 것이었다.

화전경작은 일반 경지보다도 생산성이 커서 제주도민들의 화전민의 전향은 현저하였다.⁵¹⁾ 여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수탈해가는 진상품의 대부분이 해안 지대에서 생산되기에 이를 피한 이동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원시적 농업경영과 관련된 화전취락의 입지는 유럽계급이 주로 거주하던 중심 마을

49) 유진 오덤 지음 / 이도원·박은진·김은숙·장현정 옮김, 『생태학』, 사이언스북스, 2001, p.71. 점이지대는 단순한 경계나 가장자리가 아니라 둘 이상의 생태계가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인접한 생태계에는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 지역을 말한다.

50) 송성대, 앞의 책(각, 2001.), p.274.

51) 오흥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51.

내측으로 생활공간의 내륙이동을 조장시켰고 그것은 결국 조선 사회를 통하여 제주도의 수직적 상한취락이 되었다.⁵²⁾ 취락의 기능에서 농촌은 내륙의 접이지대에 분포되고 해안에서 농어업, 산간에서 농목업이 겸업되었다.⁵³⁾

조선 말기에는 관의 침탈이 가중되어 관에 쫓기는 사람들이나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은 중산간 내지는 산간부락으로 이주해 화전같이 살아가며 살아갔다. 이 화전민들이 설촌한 부락은 조천면의 교래리, 안덕면의 동광리·서광리·광평리 등이다. 그 당시 사회상을 살펴보면 이들에게는 소위 ‘일물삼세(一物三稅)’가 주어졌는데 이는 목장에서 생산되는 말과 목장세, 그리고 그 안에서 화전을 하는 것에 따른 장전세를 또 거둬들인 것이다. 이렇게 옮겨간 사람들은 관을 불신하고 관을 상대로 끝없는 항쟁을 벌이는 힘겨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한 화전의 성립은 유림이 주로 거주하였던 중핵취락의 내측으로 생활공간의 내륙이동을 조장하였고 그것은 결국 수직적으로 조선시대의 상한취락을 형성하였다는 지리적 의의가 있다.⁵⁴⁾ 중산간 지대에 취락의 출현은 목축지대화에 따른 것이 1차적 원인이었고, 뒤에 경작지 확보를 통한 농경 마을이 진출하게 된다. 해안지대에 있어서 연작의 농법은 지력 소모를 가져와 토지의 생산력이 저하한데다가 인구마저 증가하자 해안지대의 농민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한라산 중산간 지대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화전경작은 목장 개발과 더불어 중산간 지대에 마을이 생겨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2.2. 제주도 중산간 마을에 대한 지리적인 구분

제주도를 지리적 환경에 따라 구분하면 해안 지대와 산간 지대, 그 사이에 있는 중산간 지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마을도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 산간 마을로 구분한다. 하지만 산간 마을의 경우 조천읍 교래리와 안덕면 광평리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산간 마을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중산간 마을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현용준(제주대학교, 1966)은 중산간 마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52) 오흥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105.

53) 오흥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129.

54) 김지수, 「4·3과 중산간 마을의 거주공간 변모」(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14.

해안에 가까운 마을을 '해촌 또는 해안마을', 산록에 위치한 마을을 '산촌 또는 산간마을', 이 양자 사이에 있는 마을을 '중산촌 또는 중산간마을'로 분류한 바 있다. 또한 해촌에서는 농업을 주로 하면서 잡수와 어로에 의한 어업도 하고, 중산간촌은 농업을 위주로 하며 축산도 한다.⁵⁵⁾

제주도 중산간 마을은 해안 마을과 산간 마을 사이에 있는 중간 지역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중산간 마을을 보는 시선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높이에 의하여 중산간 지역을 구분하고 이 지역에 위치한 마을을 중산간 마을로 보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해안선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을 중산간 마을로 보는 관점이다.

2.2.1. 해발고도에 따른 구분

제주도에서 중산간 지대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대체적이다.

제주도 개발특별법에서는 중산간 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中山間地域”이라 함은 標高 200미터 等高線에서 標高 600미터 等高線 사이의 地域을 말한다.⁵⁶⁾

제주도에서 중산간 지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한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제주도, 1997)에서는 중산간 지역에 있는 마을에 대한 현황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중산간지역에는 32개소의 취락이 있으며, 면적은 0.96km²로 중산간 전체면적의 0.2%를 차지하고 있다.
- 지역별로는 북제주군에 총 취락지면적의 61.5%가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서부지역에 44.8%인 0.43km²가 입지해 있다. 특히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동부지역에는 취락지가 거의 발달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55) 김혜숙, 앞의 책(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p.373.에서 재인용.

56) 제주도, 「제주도개발특별법」第1章 總則 第2條(定義) 4.

- 제주시에는 총 취락지의 19.8%인 0.19km²가 분포하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0.02km²로 취락지가 거의 분포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경사가 급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 취락지가 형성되기 불리한 여건 때문으로 판단된다.
- 표고별로는, 200~300m 지역에 전체 취락지의 74.5%가 집중되어 있으며, 400~600m지역에도 0.5km²의 취락지가 분포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400m가 취락지의 한계로 분석되고 있다.⁵⁷⁾

「제주도 개발특별법」과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주도 중산간 지역은 본래 ‘꽃자왈’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숲이 우거지고 토양의 투수율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물이 깨끗하기로 유명한 제주도 지하수의 주요한 수원(水源)이 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지하수를 깨끗이 보존하기 위해서 지하수의 수원이 되는 ‘꽃자왈’ 지역을 보존·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미 해안지역이 도시화가 심하게 이루어졌으며 이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에는 사유지 재산권 보호와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중산간 지역은 아직 개발이 덜 이루어졌으며 공지로 남아있는 곳이 많이 남아있다. 「제주도 개발특별법」에서는 이러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제주도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이 지역을 통해 생겨나는 지하수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0)에서는 제주도 마을을 해안부락, 중산간부락, 산간부락으로 나누어 보고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해안부락은 해안선 가까이를 돌아가는 일주도로 연변부에 발달한 부락들이다.
- 중산간부락은 100고지에서 200고지 사이의 구릉평야에 발달한 농촌형 부락이다. 주민의 생업은 주로 농업이고, 부업으로 축산을 병행하고 있다.
- 산간부락은 300고지 이상의 준평원 초원지대에 발달한 산촌형 부락이다.⁵⁸⁾

57) 제주도,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1997.), p.184.

58)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1980.), p.16.

「한국민속종합조사서보고서(제주도편)」에 따른 마을 구분은 행정적인 면에서 이루어지는 중산간 지역 구분과 상관없이 마을의 성격이나 특징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제주도 마을의 분포를 살펴보면 현재 농촌의 분포현상은 200여개 행정 단위 중 60%가 해안저지부락(해발 100m 이하)을 형성하고 있으며, 30%가 중산간 부락(해발 100~200m), 나머지 10%가 산간부락(해발 200m 이상)에 각각 분포하고 있다.⁵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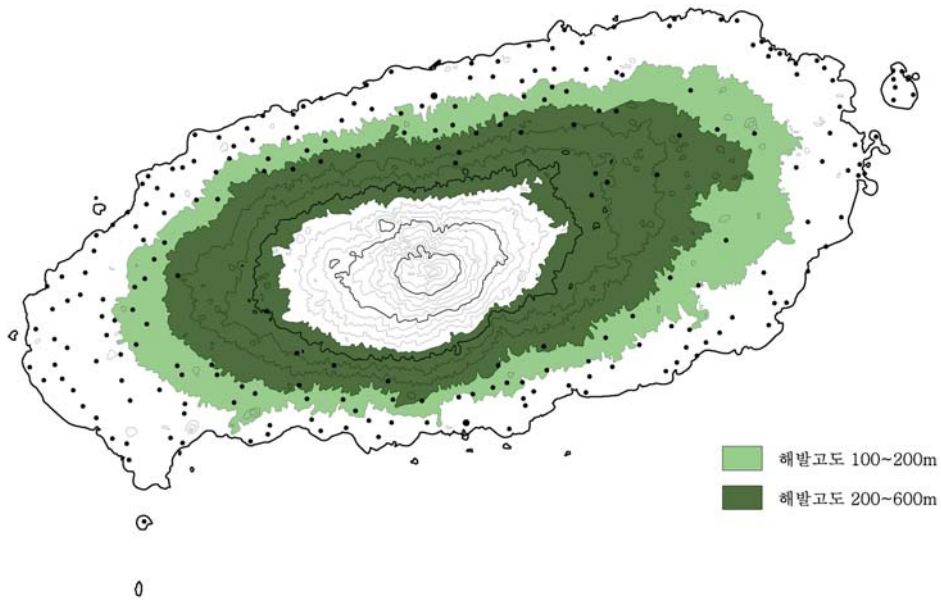


그림 2-7 제주도의 마을 분포와 해발고도

해발고도에 따른 취락의 분포에 따르면 소위 해안지대라 일컫는 저지대의 전 취락의 90%가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1920년대까지만 해도 잦은 왜구의 침입과 전근대적인 원작체계의 화전농을 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취락이 해발 200~600m 사이의 중산간지대에 분포하였다고 한다.⁶⁰⁾ 즉 현재 남아있는 마을들의 위치만을 고려한다면 해발 100m를 기준으로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을 구분하는 것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59) 제주도, 앞의 책(상권, 1982.), p.627.

60) 제주도, 앞의 책(제1권, 1993.), p.488.

중산간 마을은 근대에 와서 4·3사건을 통해 많은 마을들이 소개되었고 1962년경에 이루어진 ‘4·3사건 이재민 귀농 정착 사업’을 통해 복구된 마을이 많기 때문에 해발고도만을 기준으로 한 구분에는 많은 한계가 드러난다.

2.2.2. 해안선을 기준으로 한 구분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제주도에 왜구의 침입이 심했을 당시 진성을 쌓거나 마을마다 자경단을 조직하는 노력도 보였지만 많은 이들이 내륙으로 주거지를 이동하였다. 이들이 정착한 마을의 입지를 잘 설명하는 단어가 ‘산불근 해불근(山不近 海不近)’이었다. 산과 바다의 중간 지역으로 이는 중산간 지대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으로 중산간 마을의 위치를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어이다. 이후 ‘산불근 해불근’의 접이지대는 당시 안보상의 이유로 마을이 들어서게 되었지만 경제적 사정과 마을 구성원의 차이로 조선 사회 제주도의 중심 마을로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산간 마을의 형성 원인에는 조선 초기에 세워진 대정현성과 정의현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선 사회는 강력한 군현체제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이전 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제주도를 북제주과 남제주⁶¹⁾ 지역으로 나누고 남제주 지역을 동서로 나누어 대정현과 정의현을 신설하였다. 대정현성은 정의현성보다 내륙도는 근소하나 해안에서 4km지점에 위치한 비임해 입지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역시 입지선정의 동기적인 면에서 밖으로는 바다에서 침입하는 왜구의 압력과 안으로는 내륙개발의 필요성이 작용한데서 나타난 내륙이동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⁶²⁾ 따라서 본격적으로 중산간 마을이 생겨나기 시작한 조선 초기의 사회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해안선을 중심으로 중산간 마을을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중산간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사이에 투수가 잘 되는 토양 지대를 말한다. 이는 중산간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곶자왈’이라 부르는 투수가 잘 되며 자연환경이 잘 남아있는 지역이 해발고도로 구분했을 때 그 지역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제외하고 중산간 마을을 구분할 때 조건은 해안선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제주도 마을의 내륙도를 살펴보면 제주도 전 취

61) 오홍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에서는 북제주 지역을 산북지방, 남제주 지역을 산남지방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행정단위와 관련하여 ‘북제주’와 ‘남제주’로 표기하였다.

62) 오홍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44.

락의 48%가 해안에서 2km이내의 범위에 분포하고 4km까지 하면 73%가 분포하고 있다.⁶³⁾ 이러한 통계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근대에 일어났던 ‘4·3사건’을 들 수 있다. ‘4·3 사건’ 당시 한라산에 있던 공비들을 잡기 위해 중산간 소개령이 내려졌고 여기에 나와 있는 소개 대상 마을은 해안에서 5km 이상 떨어져 있는 취락지대였다. 후에 많은 중산간 마을이 복구되긴 하였지만 예전과 다른 위치에 복구된 마을도 있기 때문이다.

마수다 이치지(제주시우당도서관, 2005)는 중산간 마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2환상취락분포대 즉 해안으로부터 5 ~ 10km의 내륙부가 취락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고 이 지역이야말로, 오랜 역사를 갖고 유서 깊은 구가(舊家)·양반·부농이 많이 살고 있었다.⁶⁴⁾

한라산에서 해안까지 경사가 완만한 경우에는 해발고도가 낮아도 중산간 마을로 생각되기도 한다.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는 서쪽 해안선과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덕수리는 평균 해발고도는 70m 내외이지만 지역주민에게는 중산간 마을로 인식되고 있다. 이 경우 제주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중산간 마을은 해안마을보다 한라산 쪽에 가까우며 일정한 높이에 위치한 마을이라 할 수 있다.

해안선을 기준으로 하는 중산간 마을의 구분은 ‘산불근 해불근’과 같은 지리적 조건만을 고려해 보았을 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 방향은 길고 남북 방향은 짧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라산 북사면과 남사면의 중산간 마을을 구분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63) 제주도, 앞의 책(제1권, 1993.), pp.489~490.

64) 마수다 이치지 저 / 홍성목 번역, 앞의 책(제주시우당도서관, 2005.), pp.215~216.

2.3. 제주도 중산간 마을에 대한 인문사회적 구분

2.3.1. 민속학면에서 구분

다른 지방과는 달리 제주도에서는 신화가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신화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예전 사람들이 한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알게 해주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제주도에 내려오는 본풀이⁶⁵⁾에서 ‘세경본풀이’를 보면 자청비와 문도령은 농경신이 되고 정수남이가 목축신이 되는 장면이 있다. 이들은 신이 되고 나서 담당하는 지역을 달리하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주된 생산 활동이 달랐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주도에 신화가 많은 만큼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고 있는 당(堂)도 많았다. 조선 숙종 29년(1702) 이형상이 제주 목사로서 와서 ‘당오백 절오백’을 불 질러 태워 없앴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렇게 많은 절과 당이 사라져도 아직 남아있는 당이 섬 도처에 있으니 그만큼 당신을 많이 모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에 당신(堂神)은 마을 사람의 호적·출산·사망·생업 등을 차지하며 마을 사람들의 삶과 죽음, 질병과 생산 활동을 보호하고, 지켜 주는 신이었다. 따라서 마을 봉향당은 신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즉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당이 많은 만큼 저마다 수호하고 관장하는 직능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 생산 활동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세 신을 뽑으면 다음과 같다.

- 수렵수호신 - 마을이 형성되기 이전, 한라산을 떠돌아다니며 사냥을 하던 신이다.
- 목축수호신 - 한라산을 떠돌아다니던 수렵신은 점차 가축을 수호 관장하는 목축신으로 변모한다.
- 농사수호신 - 마을의 봉향당신은 '날은 날 생산 차지'한 농경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세 신은 제주도에 각 지역별로 주된 생산 활동이 다른 것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수렵을 중심으로 하는 산간 지대와 목장을 통한 목축이 중심인 중산간 지대, 그리고 농업과 어업을 중심으로 한 해안 지대로 나누어

65) 한국이동통신 제주지사 편, 『제주의 문화유산』(한국이동통신 제주지사, 1994.), p.104. ‘본풀이’는 ‘본’과 ‘풀이’의 합성어로서 신의 출생으로부터 신으로서의 직능을 차지하여 좌정할 때까지의 생활 내력을 설명하는 ‘신의 내력담’, 즉 신화를 뜻하는 말이다.

볼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타원형 모양에 중심이 높이 솟은 모양의 섬이다. 이러한 지형은 각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마을이 형성되는 높이마다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게 하는 조건을 제공한다. 실제로 해안 마을은 어로·잠수 등 어업과 농사를 겸하고, 중산간 마을은 목축과 화전을 중심으로 한다. 마을이 위치하는 높이에 따라 삶의 유형이 달라지고 이를 통하여 마을을 구분하는 경계가 나타나는 것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민의 정신세계를 잘 나타내주는 신화와 무속신앙에서 제주도를 높이에 따라 지형을 3등분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역별로 주된 생산 활동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마을의 유형과도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2. 생활사면에서 구분

해안 지대와 중산간 지대의 지리적 특성에서 주요 생산 활동의 차이는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 주민들 간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산간 마을 입도조가 대부분 제주도로 내려온 유배자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자신들은 양반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그들 스스로 중산간 마을을 반촌(班村)이라 부르게 되고 해안 마을 사람과 통혼을 꺼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1) 반촌의식

빈번한 왜구의 침입이 두려워 '산과 바다에 가까이 살지 말라'는 산불근(山不近 海不近)의 입지 사상에 따라 형성된 중산간 마을은 1980년대까지도 단오나 한식명절까지 지내 온 유교문화지대였다.⁶⁶⁾ 중산간 마을은 해안 마을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으며 그들 선조 중에서는 양반 계층이 많아서 해안 마을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김혜숙(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에서 이러한 우월 의식을 '반촌의식'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의식의 시작을 교육에서 보고 있다.

당시에는 중산간 마을마다 대부분 서당이 있었고, 일부 부유한 집에서는 훈장을 초빙하여 자녀들을 교육시키기도 했다. 배우지 못해 무지하고, 예에 밝지 못하다 하여 해안 마을 사람들과 차별의식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

66) 송성대, 앞의 책(각, 2001.), p.329.

런 사고방식들이 축적되면서 중산간촌 사람들은 자신들을 양반으로, 그들이 사는 곳을 반촌으로 여기게 되었을 것이다.⁶⁷⁾

양반 계층이 중산간 지역에 자리 잡게 된 것은 당시 사회상과 관련이 깊다. 중산간 지역은 ‘산불근 해불근’ 지역으로 산지(목축)와 해안(농업)의 이중적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입지일 뿐만 아니라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해안으로 침입하는 왜구에도 안전한 지역이다.⁶⁸⁾ 이렇게 생겨난 중산간 마을은 조선 사회를 통하여 유림이 거주하던 양촌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당시 제주도의 중심 마을로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제주도 어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녀에 대한 시선도 과거에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건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그중에서도 천한 것은 미역을 캐는 여자인 잠녀(潛女)이다. 그들은 2월 이후 5월 이전에 이르기까지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을 채취한다. 그 미역을 캐낼 때는 소위 잠녀의 벌거벗은 알몸들이 해안에 널리 차 있다. 낮을 갖고 바다에 떠다니며 바다 밑에 있는 미역을 캐어 이를 끌어 올리는데 남녀가 서로 같이 일을 하지만 이를 부끄러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다.⁶⁹⁾

제주도는 섬이라는 자연조건이 주어져 있지만 어업이 그렇게 발달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제주도 주변에 육지가 없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가 세서 ‘테우’를 이용한 근해어업만 이루어졌을 뿐이고 대부분의 어업활동은 해녀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제주 해녀들이 ‘물질’을 하기 위해서 입었던 옷은 물속에서 저항력을 줄이기 위하여 몸에 달라붙었으면서 맨살을 노출하는 복장이었다. 그리고 바다에서 캐온 해산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는 남성들의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행위는 오랜 기간 제주에 살아온 도민에게는 이상할 것이 아니었지만 육지에서



그림 2-8 출장하는 해녀 군단
<송성대, 『제주인의
해민정신-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각, 2001.), 그림 48,
p.420.>

67) 김혜숙, 앞의 책(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p.374.

68) 오흥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78.

69) 송성대, 앞의 책(각, 2001.), p.303.

제주도로 들어온 외지인 시선에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조 육지부에서는 유교사상으로 인해 남녀의 구분이 분명하였으며 의복도 자신의 속살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하였다. 하지만 제주 해녀의 의복은 기능을 더 중요시하였기에 육지부 사람의 시선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다.

반상의 '신분적 계급'이 거의 의미가 없었던 제주 지역에서도 유교문화에 부화뇌동하여 양반인체 한, 해발고도 200~600m 내에 분포하는 중산간 마을(良村=班村)⁷⁰⁾의 반농반목민은 해발고도 200m 이하의 해안 마을(갯마을)을 '포촌(浦村=民村)'이라 불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알뜨로 보재기'라 하여 천시하기도 하였다.⁷¹⁾ 원래 해안 마을⁷²⁾은 일주도로가 관통되기까지 빈농과 어민이 거주하였으므로 내륙에 거주하던 유림계급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고 그 인습은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⁷³⁾ 일제강점기에 해안 일주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중산간 마을의 경제력이나 생활수준이 해안 마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일본이 물자 공출을 위해 항구를 개발하고 일주도로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해안 마을이 중산간 마을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왜구를 피하기보다는 맞싸울 의지를 갖고 있었던 포작인들의 투쟁적인 해안 마을은 생업과 관련된 주신으로서의 용왕해신(龍王海神=女神)이 수호하는 무교문화지대였다. 이와 반대로 중산간 마을은 본향신(里社神=유교식 마을제의男神)을 수호신이 삼아서 이들 사이에는 혼인조차 거절할 정도로 이질적 요소가 많았다.⁷⁴⁾ 이외에도 중산간 마을의 반촌의식은 입양보다는 첩을 통한 아들 획득을 더 원하는 문화로 나타나기도 한다.⁷⁵⁾

중산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한반도에서는 세력싸움에서 밀려나 유민으로 이곳에 정착하였지만 마음속으로 양반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자신들과 생활 방식이 다른 해안 마을 사람들에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자 하지 않고 천시하였다. 상대적으로 목축업을 통해 수입이 많고 자신의 근본은 양반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중산간 마을은 스스로를 반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는 근대에 들어와서 4·3사건 당시 많은 중산간 마을 주민

70) 원문에서는 '중산간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글의 통일성을 위해 '중산간 마을'로 옮겨 적음.

71) 송성대, 앞의 책(각, 2001.), p.328.

72) 오홍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에서는 '해촌취락'이라 표현하고 있으나 글의 의미와 표현상 '해안 마을'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옮겨 적음.

73) 오홍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60.에서는 반촌의식이 아직 살아있다고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많이 없어지고 희미해지고 있다.

74) 송성대, 앞의 책(각, 2001.), pp.329~331.

75) 김혜숙, 앞의 책(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p.347.

이 해안 마을로 피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양쪽 주민들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에서 다시 나타난다.

제주도는 한반도와 달리 큰 장원이 형성되지도 않았으며 논농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잉여생산물을 축적하는 것이 힘들었다. 따라서 계층이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의 축적방법에서는 크게 차이가 생겨날 수 없었기에 비슷한 경제수준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로 삶의 방식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에서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 간에는 뚜렷한 의식 차이가 존재했을 하였던 것이다.

2) 통혼권

사회적 유대 형성과 관련하여 통혼권이란 남녀가 배우자를 선택해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범위와 집중도를 일컫는 것이다. 통혼 권역 형성은 해당 지역 사람들에게는 생존전략이 반영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⁷⁶⁾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제주도에서는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 구성원 사이의 결혼을 꺼려하였다. 이러한 인습의 원인에는 중산간 마을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반촌의식 이외에도 많은 요소가 반영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통혼권과 관련된 신화에는 송당계 신화의 변형인 토산 일뤼당 신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 사이에 통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볼 수 있다. ‘일뤼당’은 어촌 마을의 본향당신이다. 이 남신은 산촌에서 태어났으나 쫓겨나 어촌을 설촌하게 된다. 용왕국의 딸과 혼인한다는 것은 어촌처녀와의 혼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남신이 산촌에서 쫓겨남은 반촌의식을 갖는 중산간 마을 사람들이, 어촌을 포촌(浦村)이라 하여 천시하던 관행의 일면을 드러낸다. 자신들을 양반으로 의식하는 중산간 마을에서는 해안 마을과 통혼을 기피한다. 해안 마을로 쫓겨난 아들과 어촌 처녀의 혼인은 계층내혼제적 통혼권을 보이는 신화라 볼 수 있다.⁷⁷⁾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제주군 한경면내에 같은 중산간 마을인 저지, 조수, 산양리 등과는 통혼이 되고 있으나 두모, 용수, 신창리 등 해안 마을과 통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북제주군 애월읍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애월이나 신·중·구업, 금성, 광지, 하귀 등 해안 마을 쪽은 속칭 더덕(상·하가), 납읍, 용흥, 고성, 소길, 장전, 수산, 어도 등 중산간 마을과의 통혼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산간 마을과 해안마을과의 통혼

76) 김혜숙, 앞의 책(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p.370.

77) 김혜숙, 앞의 책(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p.146.

에 기피 현상이 강하다는 것이다.⁷⁸⁾

여중철은 동족마을에 대한 연구에서 “어촌 출신의 부인을 얻거나 어촌으로 출가 보내는 예가 거의 없다. 이것은 출신지역이 생태학적으로 다른 곳에 혼처를 구하면 실제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점도 있거니와 그에 따르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비슷한 곳에서 배우자를 선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한 바 있다.⁷⁹⁾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은 주된 생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생활 방식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나타나는 생활 방식의 차이는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이질적이라는 것이라 생각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존재했으며 이는 중산간 마을 주민들이 가지는 반촌의식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라산 중턱 중산간 지역은 생활의 중심권이였다. 따라서 그 주변에 설촌된 중산간 마을들은 대개 양촌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들에 비해 해안 마을은 많은 진상품 수탈과 교육 환경의 부재 등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으로 인식되었다. 반촌의식이 강했던 중산간 마을에서는 계층내혼제적 통혼을 유지하였고, 해안 마을을 포촌으로 천시하여 혼인기피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⁸⁰⁾ 위치에 기초한 이 ‘반촌의식’은 제주도 통혼권에도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반촌의식적 통혼권 관행으로 중산간 마을 사람들은 해안 마을과 통혼을 기피하는 하고, 해안 마을 사람들도 중산간 마을과의 통혼을 꺼리게 된다. 이런 통혼권 관행은 촌락내혼제를 실시하게 하며 부찌사돈망⁸¹⁾을 형성케 한다. 그리고 이는 제주도의 특수한 친족 개념인 ‘켄당’과 연결되어 마을 구성원 간의 강한 공동체 의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78) 김혜숙, 앞의 책(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p.376.

79) 여중철, 「동족부락의 통혼권에 관한 연구」(인류학논집 제1권 서울대 인류학회, 1975.), p.102.

80) 김혜숙, 앞의 책(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p.410.

81) ‘부찌사돈’이란 한 집안에서 다른 어떤 한 집안으로 여성 두 사람이 혼인해 갈 때와, 두 집안에 서로 여성을 교환했을 때 맺어지는 관계를 말한다.

2.4. 제주도 마을의 특수성

2.4.1. 마을 공동체

조선시대에는 농촌지역에 수많은 씨족마을들이 있었고, 이 씨족마을은 조선 시대 마을의 가장 특징적인 형태로 알려져 있다. 씨족마을은 마을 공동의 유교적인 시설(서원, 정려각, 제각 등)과 함께 구심적 역할을 하는 종가가 있었다.⁸²⁾ 씨족마을⁸³⁾이란 동일조상으로부터 파생되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부락을 이루고 집단거주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⁸⁴⁾

이에 반해 제주도 마을은 큰 특징이 모두 잡성마을이란 점이며 그 가구 수가 한반도 마을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⁸⁵⁾ 1936년 일본인 학자 泉靖一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씨족마을이라 할 수 있는 마을은 없고, 한 마을이 몇 개의 유력 성씨와 군소 성씨로 구성되어 있다.⁸⁶⁾ 그래서 제주도에 ‘김·강·박씨 마을’이라든지 ‘김·현·강씨 마을’라는 식으로 유력 성씨 3개를 들어 그 마을의 성씨 구성을 나타낸다.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에 걸쳐 유배, 좌천 및 피세은둔을 위하여 입도한 유민들이 많았다. 이에 시대가 경과하면서 입도한 많은 유민들의 후손들이 혈맥을 통한 단결력과 상호부조를 위하여 종가를 중심으로 일정지역에 부락을 구성하여 집단생활을 하게 되었다.⁸⁷⁾ 하지만 장자상속 풍습이 거의 없는 제주의 특성상 집의 배치 방식에 있어서 경제·사회적 계급성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지주라고 말할 만한 계층도 발견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좋은 집터자리 - 제주에서는 빌레가 깔려 있는 굴렁진(굴) 곳을 침 - 에 부자집이 자리잡는 정도이다. 따라서 제주에서는 단일 씨족마을을 찾아보기 힘들며 종가의 출현도 육지처럼 두드러지지 않는다. 씨족마을이 발달할 수 없었던 것은 마을 입지의 주요 요소인 생수가 한정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전통적인 상속제도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⁸⁸⁾ 따라서 한반도 씨족마을이 종가를 중심으로 수직적 관계 속에서 단합했던 것과 달리 제주도 마을에는 다른 연대의식이 발달하게 된다.

82)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p.223~225.

83) 홍경희, 『촌락지리학』(법문사, 1999.), p.335.에서는 ‘동족부락’이라는 단어로 표기되어 있다.

84) 홍경희, 앞의 책(법문사, 1999.), p.335.

85) 뿌리깊은나무, 『(한국의 발견)제주도』(뿌리깊은나무, 1990.), p.189.

86) 제주도, 앞의 책(제2권, 1993.), p.1258.

87) 제주도, 앞의 책(상권, 2005.), p.621.

88) 제주도, 앞의 책(주생활편, 1996.), pp.434~435.

부락내혼의 비중이 높음으로 인해, 제주도는 같은 마을이나 이웃 마을에 친가, 외가, 처가 쪽 친척이 함께 거주하여 이들과 호혜적인 지역공동체 생활을 영위해 왔다. 이러한 근처혼의 관행은 비옥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환경과 경제상태가 결부됨으로써 문중조직이 형성되고 강화될 기반을 약화시켜, 제주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한반도 마을과는 달리 친족조직보다는 마을공동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마을사람들이 서로 친가로 친척이거나 외가로 친척이기 때문에, 친가 쪽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육지와는 달리 외가나 처가를 친가와 마찬가지로 본다.⁸⁹⁾ 마을 사람들이 서로 친가로 친척이거나 외가로 친척이기 때문에 마을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똘똘 뭉친 지연 단위이면서 커다란 혈연 집단이 되어, 육지에서보다 더 강한 결속력을 가졌다.⁹⁰⁾

이러한 마을공동체가 형성된 원인은 통혼권과 결혼 후 분가, 한반도의 친척에 속하는 ‘웬당’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들 수 있다. 자녀들의 결혼을 중산간 마을끼리 혹은 해안 마을끼리 시키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척 관계가 겹쳐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결혼 후 분가해 살면서 친가나 외가 친척을 모두 웬당으로 동등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마을 내에서 자신과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제주도의 마을은 가름 또는 동네라고 불리는, 집단 기능을 가진 공동체 사회로 물통·못·연자방아 같은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모든 사회적인 행위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십촌 안쪽의 친족 집단과 여러 친목회나 계로 결속되어 있다. 그리고 마을 주민이 연대 의식을 갖게 하고 지연 공동 의식을 북돋는 것으로 마을제가 있는데, 유교식인 것을 포제라 하고 무



그림 2-9 연자 방아
<뿌리깊은나무, 『(한국의 발견) 제주도』(뿌리깊은나무, 1990.), p.222.>



그림 2-10 애월읍 남읍리 포제단
<2004. 12. 4 촬영>

89) 제주도, 앞의 책(제2권, 1993.), p.1259.

90) 뿌리깊은나무, 앞의 책(뿌리깊은나무, 1990.), p.189.

교식인 것을 당굿이라 한다. 포제는 주로 남자들이 주도하고 당굿은 여자들이 주도한다.⁹¹⁾

이렇게 형성된 마을공동체 의식은 중산간 마을의 음료수를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촌향인 경우 가족 내에 관리만 필요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써야하는 물통이나 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깨끗하게 관리하고 정해진 규범을 철저히 지켜야만 그 물을 오래 사용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나 혹은 우리 가족만을 위한 욕심을 버려야 했으며, 마을 주민 모두가 나의 켄당이라는 수평적 마을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2.4.2. 제주도 마을 유형

제주도 마을의 기틀은 대체로 300년 전에서 500년 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는 조선 초기에서부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날 때까지 시기에 해당한다. 제주도 마을의 유형은 위치와 주요한 생산 활동의 차이에 따라 해안 마을, 중산간 마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다르게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가옥 수와 마을 형태에 따라 집촌(集村), 소상집촌(疎狀集村), 산촌(散村)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집촌(集村)은 부락 구성 호수에서 상한적 한계를 갖는 것이 보이는데 집촌의 호수가 300호를 넘는 경우는 북제주 지역에 탁월하며 과거의 기록들에 의하면 현 제주시의 본리를 비롯해서 화북, 애월의 본리와 하귀, 한림의 본리, 구좌의 동김녕, 서김녕, 월정, 평대, 세화, 하도, 그리고 조천의 신촌, 함덕 등이다. 내륙의 중산간 지역에는 애월의 남읍 하나뿐이다.⁹²⁾

소상집촌(疎狀集村)은 집촌보다 가옥 밀도는 낮으나 산촌보다는 높은 집촌과 산촌의 중간 형태로 서귀포를 기준해서 동부지역에 현저한 형태다. 음료수에는 용천·천수(天水)·간이수도 등의 여러 형태를 볼 수 있지만 듄성 듄성하게 이뤄진 요인은 일찍이 유림 마을이었던 점, 각 호별로 음료수를 봉천수에 의지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의 관도(官道)는 제주성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애월면의 원(院)을 거쳐 대정으로 통하고, 또 동남쪽 정의에는 조천면의 원동(院洞)을 거쳐 직통하는데 반하여, 남부는 관도에 멀리 떨어져 있어 그 구석진 곳에는 목사를 비롯한 관원의 왕래를 드물게 해서 착취의 손길이 뻗쳐지는 일이 적어 가옥구조도 자연히 커지게 되고 마침내 오늘날과 같

91) 뿌리깊은나무, 앞의 책(뿌리깊은나무, 1990.), pp.189~190.

92) 제주도, 앞의 책(제1권, 1993.), p.487.

은 형태를 이루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⁹³⁾

산촌(散村)산촌은 중산간 지역 및 남제주의 남원면 지역 등의, 바다와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 표고와 경사도가 큰 표토층이 얇은 지역과 일치한다. 집단촌·소상집촌과 떨어져서 자급자족의 고립경제생활이 행해졌다. 가로·세로 500m의 구역 안에 10동 이하의 가옥 밀도를 가질 때 이를 산촌이라고 하면 중산간 지역의 상창, 동광, 광평, 상천, 서광, 색달, 수망, 한남, 한원, 봉개, 와산, 와흘, 선흘, 교래, 덕천 등은 산촌에 해당한다. 산촌 취락은 해발고도 100m 이상의 중산간 내륙에 분포하는 것이 공통적이다.⁹⁴⁾

제주도의 마을은 그 가구의 수효가 육지의 것에 견주어 많다. 1968년도의 제주도 통계에 의하면 자연부락 수는 545개 마을, 가구 수는 총 75,886 가구이다. 따라서 하나의 마을(자연부락)에 평균 139가구가 되는 셈이다. 행정 단위의 크기를 보더라도 1984년 10월 현재 가구 수로 보면, 100~299가구로 이루어진 행정리가 전체의 48.8%가 되고, 300가구 이상 되는 마을은 25.7%이며, 99가구 이하의 마을은 16% 정도에 불과하다. 육지의 경우는 도별로 볼 때, 300가구 이상 되는 마을은 전체의 0.04%에서부터 많아야 9% 정도에 그친다. 이에 비해 99가구 이하의 마을은 42.6%에서부터 91.9%에까지 걸쳐 있다. 1986년 현재로 보면 제주도에는 행정구역상 30개 동, 161개 리 557개의 자연부락이 있다. 이처럼 마을이 크므로 제주도의 자연부락은 '윗동네', '알동네', '동동네', '셋동네' 식으로 다시 몇 개의 작은 자연집단으로 나누어진다.⁹⁵⁾

이러한 제주도 마을 유형 분류는 제주도 마을이 넓은 평탄지에 개방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것에서 기인한다. 제주도 전역이 투수성이 높은 지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논농사가 발달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모든 농사는 밭농사로 이루어졌으며 이마저도 척박한 토질을 끊임없이 관리하여야 했다. 한반도에서는 노동집약적인 논농사가 주를 이루었고 이와 관련하여 마을의 규모나 입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와 달리 제한된 수자원을 중심으로 마을이 들어섰으며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가옥 수도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원(水源)을 중심으로 작은 주거지들이 형성되고 이를 주위로 개인 경지가 위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몇 개 단위가 모여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93) 마수다 이치지 저 / 홍성목 번역, 앞의 책(제주시우당도서관, 2005.), p.193.

94) 마수다 이치지 저 / 홍성목 번역, 앞의 책(제주시우당도서관, 2005.), pp.193~194.

95) 제주도, 앞의 책(제2권, 1993.), pp.1257~1258.

2.4.3. 제주도 중산간 마을과 한반도 산간 마을 비교

제주도 마을과 한반도 마을은 마을 입지 조건에서 취수를 중요시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한반도에서는 산줄기 사이를 흐르는 강으로 인해 생기는 수역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발전한다. 하지만 제주도 마을에서 수역의 개념을 찾아보기는 힘들며 오히려 한 지점으로 인식되는 수원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된다.

경지(耕地)와 마을과의 관계에 의한 마을 공간구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육지부의 마을은 주거지 주위를 개인텃밭과 개인경지, 배후지의 순으로 둘러싸고 있다. 반면 제주도 해안 마을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바다에 접하면서 개인텃밭은 주거공간에 속하고 개인경지와 목장이 주거지를 둘러싸고 있다.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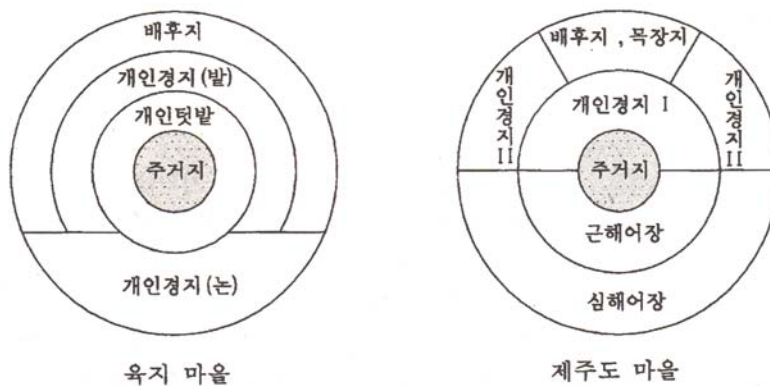


그림 2-11 육지마을과 제주마을의 공간구조개념
 <김석윤,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그림 2-3-5, p.34.>

이러한 차이는 마을 형태에 반영되어 농가는 음료수가 있는 곳으로 끌리어 마을 안에 밀집되어 있고 경지는 마을 밖에 분산된 상태로 떨어져 있다.⁹⁷⁾ 제주도의 많은 마을이 바닷가에 입지한 것은 수륙양처에서 생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부와 교섭이 유리하고 풍부한 용천과 배후지의 광활한 농토가 있었기 때문이다.⁹⁸⁾ 바다와 맞닿아있는 해안 마을과 달리 중

96) 김석윤,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34.

97) 오흥석, 『취락지리학』(교학연구사, 1989.), p.288.

98) 제주도, 앞의 책(제1권, 1993.), p.484.

산간 마을은 개인 경지가 주거지를 둘러싸고 있으며 그 외곽으로 배후지와 목장지가 위치해 있다.

한반도 산간 마을은 입지 측면에서 산이나 경작지, 강 등의 자연적 조건을 수용하여 형성되는 과정에서 '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⁹⁹⁾ 배산임수의 전통적 마을 입지 사상에서 '앞산 - 하천, 마을숲 - 바깥들 - 실개천, 마을숲 - 안들 - 마을 - 텃밭, 대나무숲 - 묘지 - 뒷산'이란 순서에 의해 마을이 배치되고 하나의 공간이 완성된다. 산간 마을도 이러한 공간 구성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산간 마을은 하천의 상류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평지의 폭이 좁기 때문에 마을이 하천을 따라 길게 배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제주도 마을에서는 수원(水原)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그 주변으로 경작지가 마을을 둘러싸게 된다. 해안 마을은 마을의 한 면이 바다와 접해 있다면 중산간 마을에서는 경작지 외곽으로 목장이 위치하는 차이가 있다.

중산간 마을의 토지이용 개념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물을 중심으로 가옥들이 배치되고 주거지가 형성되고 주변은 텃밭 혹은 개인 경지가 된다. 그리고 주거지에서 한라산 쪽은 마을의 배후지로서 연료림이나 정신적 지주의 공간으로 선조들의 무덤, 마을의 포제단 등이 계획된다. 그리고 외곽 지역에 목장지가 배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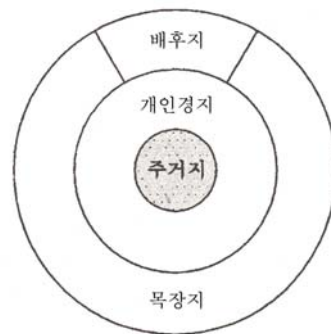


그림 2-12 제주도 중산간 마을 공간구조 개념도

2.5. 소결

이전까지 제주도 마을은 해안 마을, 중산간 마을, 산간 마을로 구분되거나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만으로 구분되었다. 제주도 해안 마을은 바다와 면해 있으며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 주위에 경작지를 확보하여 마을이 형성되고 있다. 산간 마을은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대개 해발 300m 이상에 위치한 마을을 말하지만 마을 형성이나 입지 조건 등에서 중산간 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산간 마을을 분류하는 것은 한반도의 마을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언급된 부분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제주도 마을은

99) 박문우, 「입지론적 배경에 의한 마을과 민가의 좌향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p.2.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로 나누어 구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제주도 중산간 마을은 조선 초기 왜구의 침입, 중산간 지역의 관도 신설, 거주지 확장의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중산간 마을의 입도조는 한반도에서 제주도로 내려온 양반계층이 많았다. 이들은 목축업과 농업을 통한 수입으로 상대적으로 해안 마을보다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자녀들에 대한 서당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와 자신들의 근본은 양반이라는 것을 잃지 않게 하였다. 이는 제주도로 내려온 양반 계층이 자신의 근본을 잃지 않고자 노력했던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이후 ‘반촌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중산간 마을끼리만 결 혼하는 통혼권을 만들게 된다. 이를 통하여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산간’에 대한 연구는 중산간 지역에 있는 마을들이 중산간 마을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농업경제학에는 중산간 지역의 추상적인 개념을 "일반 농산촌지역 중에서 평지의 주변부에서 산간부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면적의 경지가 적고, 임야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⁰⁰⁾ 하지만 제주도라는 지역에서 한정해 보자면 중산간 지역과 중산간 마을을 같이 생각하는 것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현재 제주도에 정의하고 있는 중산간 지역은 ‘해발 200m에서 600m 사이 지역’을 일컫는다. 이 지역은 토양의 투수율이 높다는 지형적 조건과 대부분 공지로 남아있는 사회적 조건과 연결되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지하수를 보호하고자 내린 정의이다. 이러한 생각은 중산간 마을에 대한 생각은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중산간 마을은 ‘웃뜨르 마을(윗마을)’이라 생각한다. 제주도민에게 있어 중산간은 해안보다 내륙 쪽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마을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1930년대에 제주도를 연구한 마수다 이치지가 말하고 있는 ‘제2환상취락 조밀지역’¹⁰¹⁾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해안선과 맞닿아 어업과 농업을 겸하였던 해안 마을을 하나의 띠로 생각한다면 그보다 한라산 쪽에 가까우며 목축업과 화전 농업을 겸한 지대에 있는 마을을 중산간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절대적인 수치나 기준으로 중산간 마을을 구분하려는 시도보다 해당 중산간 마을이 해안 마을과의 관계를 통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0) 장우환, 「한국 중산간지역의 구분과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p.67.

101) 마수다 이치지 저 / 홍성목 번역, 앞의 책(제주시우당도서관, 2005.), p.213.

3.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입지 특징

3.1. 중산간 마을 입지 선정과 물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물이다. 문명의 발상지가 모두 강가에 위치해 있으며 전통적 마을 입지사상인 ‘배산임수’에서도 물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중산간 마을에서 물을 얻기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제주도는 한라산의 화산활동에 의해 생겨난 섬이기 때문에 섬 전체가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육지에 비해 토질이 조밀하지 못하여 물이 땅 밑으로 쉽게 스며들어 해안가에서 용천수로 다시 올라온다. 제주도 속담에 “늦쉴 때 물하영 쓰민 저승강 그 물 다먹어사 혼다(세수할 때 물을 많이 쓰면 저승가서 그 쓴 물을 다 먹어야 한다)”라는 절수(節水)에 대한 말도 있다.¹⁾ 제주도에 물은 귀했으며 그 양 또한 한정되어 있어 항상 아껴서 사용해야 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농경지와 마을의 입지 조건은 한반도와 달랐다. 물론 산불근 해불근(山不近 海不近)이라는 말이 전해 오지만 그것은 왜구의 침입이 심했던 고려 때 있었던 사회적이고 일시적 현상이었다. 제주도에 물만 있으면 어디든지 마을이 입지했고, 농경지는 마을의 입지에 따라 결정되었다.²⁾

조선 초기 중산간 지역에 본격적으로 거주지가 확장될 시기에 이를 장해하는 요인은 용수 조건이었다. 중산간 지역의 자연적 음료수는 하천수와 봉천수이다. 이것은 제주도 본래의 보편적인 음료수인 용천에 비하여 질이나 양적으로 불량하며 비위생적인 오수이다. 그중 봉천수는 자연 빗물의 총칭으로 암반이나 점토층의 요(凹)지에 모인 원시적 음료수이나 그것마저도 지질 조건에 의하여 국지적으로 제약되고 있다. 여기에서 음료수로 이용되는 하천수의 개념 또한 영구유수천이 아니라 건천 암반에 고인 물³⁾을 말한다.⁴⁾ 제주도의 하천은 비가 오는 며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천이기 때문에 유수천이 없어 하천수의 이용도 제한적이다.

중산간 마을의 입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음료수였으며, 한라산 남북사면에 주수(宙水)가 분포된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빗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⁵⁾ 중산간 지역의 음료수는 하천수, 봉천수, 흙물 등으로 유형을 구

1) 송성대, 『제주인의 해민정신-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각, 2001.), p.252.

2) 송성대, 앞의 책(각, 2001.), p.131.

3) 오홍석, 「제주도의 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에서는 류수(溜水)로 적혀 있음.

4) 오홍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41.

분할 수 있으나 수원은 모두 빗물에 의존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다만 취수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⁶⁾ 예외적으로 애월읍 유수암리나 한림읍 동명리⁷⁾처럼 용천수가 충분히 솟아나거나 대정현성과 정의현성처럼 인공적으로 우물을 파서 음료수를 해결⁸⁾하기도 하였다.

마수다 이치지는 취락입지와 음료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그중 ‘천수(天水)사용지역’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이 지역은 제2환상취락분포대와 대부분 일치한다. 잡용수(雜用水)는 물론 음료수도 전부 천수에 의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우수채집(雨水採集)의 방법에 관해서는 암반의 오목한 곳(凹狀), 점토층의 오목한 곳에 담겨진 물을 이용하는 것인데 매우 원시적 자연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지질 지형이 좋지 못한 지역에 있어서는 우기에 천수를 향아리에 담아 저수한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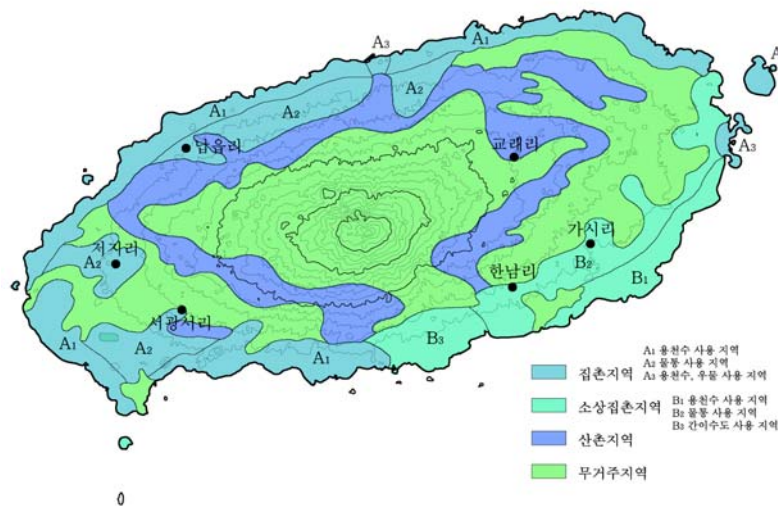


그림 3-1 취락요소에서 본 제주도의 지역구분
 <마수다 이치지 저 / 홍성목 번역, 『제주도의 지리학적 연구』(제주시우당도서관, 2005.), 그림 1-30, p.197. 참조>

- 5) 오홍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102.
- 6) 오홍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108.
- 7) 북제주군 한림읍 동명리는 본래 명월리에 속해 있었으나 1861년에 동명리도 독립하였다. 명월리에서 북쪽(해안가쪽)에 위치해 있으며 다른 중산간 마을에 비해 해발고도가 낮은 편이다.
- 8) 중산간 지역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려면 평균 200m 이상을 파야하기 때문에 이는 현대 굴착기 술이 도입된 후에야 가능해진 일이다.
- 9) 마수다 이치지 저 / 홍성목 번역, 『제주도의 지리학적 연구』(제주시우당도서관, 2005.), p.200.

취락의 입지 결정, 그리고 말(馬)에 의한 진압농법, 수눌음¹⁰⁾ 등이 모두 가뭄 피해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만, 특히 먹을 물을 얻기 위해서 가뭄이 들면 사람들은 수 km나 되는 거리를 사람과 소잔등에 물허벅을 매달고 물을 길러 다니는 절곡을 지니고 살았다.¹¹⁾ 제주 사람들은 특히 중산간지대의 고인 지표수를 '죽은물(死水)' - 과거해안지대(알뜨르) 여자들은 '웃뜨르 맨주기(죽은 물 먹는 사람)'라 하여 중산간(웃뜨르) 마을로 시집가려 하지 않았다¹²⁾ - 이라고하고, 지하에서 솟는 샘물은 - 외기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상온(常溫; 약 15도)을 이루기 때문에 - '산물(生水)'이라 불려 이 산물을 높이 쳤다.¹³⁾

중산간 마을에서 물을 얻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소(沼)'에 고인 물을 끄는 방식이고, 둘째는 물통을 파서 봉천수를 확보하는 방식이고, 마지막은 비가 올 때 나무줄기를 타고 내리는 빗물을 모으는 '츄물'이다. '소'는 하천 중간에 현무암이 아닌 다른 암석으로 바닥이 이루어져서 물이 고이게 되는 곳을 말하며 그 규모가 큰 경우 다른 마을에서 물을 길어 오기도 하였다. 물통을 만들 경우에는 하나의 물통을 나누던지 2개 혹은 3개의 물통을 만들어 우마용과 식수용으로 용도를 달리하였다. 식수용 물통인 경우에는 우마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물통 주변으로 나무를 뽕뽕이 심어 하나의 출입구를 통해 물을 길 수 있게 하였다.

'소'나 샘물인 경우는 자연발생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물통을 확보하는 경우는 마을 사람들이 인위적인 노력으로 물을 확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소'나 물통을 통해 얻는 물은 마을 주민이 모두 사용하게 되어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면 츄물인 경우 개인적으로 마당에서 물을 수집하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 대상 마을로 선정하지 않은 중산간 마을은 한라산 북사면과 남사면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과 조선시대 읍성이 있었던 성읍리(정의현)과 보성리(대정현)이다. 한라산 북사면과 남사면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은 현재 남아있는 문헌상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중간 중간에 용천수를 끼고 마을이 발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마을로 제주시 아라동과 서귀포시 용흥동을 들 수 있다. 한라산 남사면과 북사면

10) 마을 구성원간에 개별적으로, 그리고 남녀노소 구별없이 극히 자유로운 개인간 계약에 의해 행해지는 협업노동으로 한반도부의 '두레'와는 차이가 있다.

11) 송성대, 앞의 책(각, 2001.), p.250.

12) 중산간 마을에서 해안 마을을 포춘이라 하여 천시한 것처럼 해안 마을에서도 중산간 마을을 무시하였다. 해안 마을 주민들은 왜구의 침입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면서 이겨낸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13) 송성대, 앞의 책(각, 2001.), p.258.

은 동서사면에 비해 경사가 급하여 하천이 발달하였고 이와 더불어 용천수도 간간히 솟아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읍성이 있던 성읍리는 읍성 주변에 ‘천미천’이라는 큰 하천이 지나가고 있어 이 하천에 생기는 소를 통해 음료수를 해결하였다. 하지만 읍성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 읍외촌 곳곳에 작은 물통을 만들어 음료수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읍성 내에는 ‘원님네물’이라 불리는 물통이 있어 마을 현령만 따로 사용하는 식수원이 존재하였다. 대정현의 경우 읍성 안에 ‘두레물’이라 부르는 용천수가 존재하였으며 읍성 주변에도 용천수가 많았다. 이처럼 마을의 규모가 크고 가옥이 밀집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음료수를 취수하였다.

3.2. 중산간 마을에서 물을 얻는 방법

3.2.1. 소(沼)를 이용하는 방법

제주도의 하천은 58개 정도로 투수층이 발달하고 강바닥에 있는 주상절리 등에 의하여 복류하며 대부분이 강우시만 흐르는 건천이다. 제주도의 연평균 강우량은 1,872mm로 다우지역이며, 표고가 높아짐에 따라 강우량이 증가하는 분포를 보여 중산간 지역(200~600m)은 2,024mm의 높은 강우량을 나타낸다. 하지만 중산간 지역은 이들 많은 강우를 지하로 이동시켜주는 투수성 지질구조(습굴, 용암동굴 및 용암튜브, 절리구조, 클링커층 등)로 이루어져 있다.¹⁴⁾ 이러한 지질 조건상 비 올 때 빗물은 하천에서 유출 거리가 짧음으로 인해 순식간에 - 건조사막기후지대¹⁵⁾에서 비 올 때만 흐르는 '와디(wadi)'에 해당하는 제주방언인 - '내창(河床=gareria)'을 통해 바다로 유출되어 버려 체류수(滯留水), 즉 지표수로 존재하기가 어렵다.¹⁶⁾

하지만 건천이라도 비가 내린 후라도 1~2일간 물이 흐르며, 그 이후 움푹하게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투수정도가 적은 구혈(毬穴)에는 물이 고여 있다. 이러한 물을 속칭 ‘죽은 물’이라 부르는데 - 용천수를 ‘산물’이라 부르는 것에 대조적으로 - 이는 제한적이거나 생활용수의 공급처로 이용되었다. 17세기에 쓰인 「남사록」에는 제주도에 우물과 샘이 아주 적어 마을 백성이 혹 5리 되

14) 진기옥, 「제주도 중산간지대 지하수의 수리특성 연구」(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14.

15) 괴펜의 기후구분에서 BW기후

16) 송성대, 앞의 책(각, 2001.), p.252

는 곳에서 물을 길으면 물이 가깝다고 할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다. 더러는 종일 한번이나 두 번 밖에 물을 길지 못한다고 쓰여 있다. 그러한 사정에서 비록 건천이라 할지라도 제주도 하천은 생활용수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원지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¹⁷⁾



그림 3-2 허벅으로 물 걷기
<제주도, 「제주 100년」(1996.),
p.168>



그림 3-3 물허벅 진 여자들
<제주도, 「제주 100년」(1996.),
p.169.>

제주도의 하천은 용암이 식으면서 조성된 하천으로 한반도의 하천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하상이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굴곡이 심해 접근이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이 쉬운 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오랜 기간 이용되지 않아서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 부분은 마을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본다면 소에 접근하는 길에 별다른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았으며 수도시설이 설치된 이후 이용하지 않아서 길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하였다.

17) 이청규, 「제주도 고고학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127.



그림 3-4 남원읍 수망리 오리수
<2005. 9. 20 촬영>



그림 3-5 남원읍 수망리 큰이물
<2005. 9. 20 촬영>



그림 3-6 표선면 성읍리 주변 천미천
<2005. 9. 20 촬영>



3.2.2. 물통을 이용하는 방법

소(沼)를 이용한 음료수 해결은 주어진 자연적 조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물통을 이용한 음료수 해결은 인공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소는 화산활동에 의해 생겨난 지형에 고인 물을 이용하는 것이라 마을이 들어서기 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물통은 마을이 들어선 이후에 음료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성하는 것으로 중산간 지역으로 거주지를 확장하고자 했던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물통은 마을 안에 인공적으로 조성하여 물을 담아두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한 곳에 위치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물통이 들어서게 되는 지형조건은 빗물이 잘 흘러내려야 하고 흘러내린 빗물은 땅 밑으로 스며들지 않고 고여야 하는 그런 곳을 골라야 했다. 물통의 형성은 거의 마을사람들이 노역을 담당했고 지형조건이 좋은 곳의 밭 임자가

선뜻 땅을 내놓기도 해 이루어지곤 했다.¹⁸⁾ 따라서 사용하기 편한 곳에 물통이 위치하기 보다는 물이 고일 수 있는 곳에 물통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남읍리의 '사장물'같은 경우에는 마을 중심에서 약 1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수도가 깔리기 전까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고 한다.¹⁹⁾



그림 3-7 애월읍 남읍리 사장물
<2005. 9. 15 촬영>



그림 3-8 공통 '물통'에서 파를
손질하는 아낙네들
<뿌리깊은나무, 『(한국의
발견)제주도』(뿌리깊은나무, 1990.),
p.215.>

물통은 크게 하나만 파서 물을 담아두기고 하였지만 두 개 혹은 세 개씩 파서 용도에 따라 크기를 정하고 관리하였다. '구진물(긋은 물)'이라 부르는 용수통과 '곤물(고운 물)'인 식수통을 씌씀이에 따라 따로 마련했다. 구진물은 마소들이 먹는 목축용으로 사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사용되기도 했고 곤물은 사람들의 식수로 사용되었다.²⁰⁾

물통에 담긴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처들을 한다. 나무를 심고 주변 흙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돌을 돌려 박거나, 물을 길거나 빨래를 하기에 편리하도록 여러 시설을 갖추는데, 이런 것들이 오랜 경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용적이면서도 마을의 경관을 운치 있게 만들어 준다.²¹⁾ 해안 마을에서도 용천수가 나오는 샘 주위에 현무암을 이용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지만 중산간 마을의 물통에 설치되는 시설물과는 조금 형태가 다르다. 해안 마을에서는 용천 주위에 현무암의 돌담을 두르고 용출구 가까운 곳은 음료수

18) 오성찬, 『제주의 마을』 @저지리(반석, 2002.), pp.29~30.

19) 북제주군 애월읍 남읍리 이장 김익권 면담.

20) 오성찬, 앞의 책(반석, 2002.), p.29.

21) 뿌리깊은나무, 『(한국의 발견)제주도』(뿌리깊은나무, 1990.), p.192.

취수전용장, 조금 떨어져서 하류엔 빨래터 목욕장 등을 마련하였다.²²⁾ 물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 2단계 혹은 3단계로 나누어 단을 형성하고 상류에서는 음식물을 씻거나 식수를 뜨고 하류에서는 목욕이나 빨래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중산간 마을의 물통은 흐르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통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식수로 사용되는 물통 주위는 마소가 접근하기 힘들게 나무를 심어두거나 담을 친다. 그리고 물통에는 계단을 설치하여 수위에 따라 물을 기를 수 있게 시설물을 설치해둔다.



그림 3-9 애월읍 고내리 우주물
<2005. 9. 15 촬영>



그림 3-10 애월읍 남읍리 큰새미
<2005. 9. 15 촬영>

물통의 봉천수는 주거지나 마소의 간접으로 인해서 오염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은 엄격한 관리방식을 채용하며, 봉천수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마을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다스렸다. 더군다나, 마소들의 침입으로 봉천수의 물통이 손상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테우리’들은 이 점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²³⁾

개인적으로 물통을 형성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개별 가옥 안쪽에 있는 안뒤²⁴⁾에는 나무들이 심겨 있다. 나무의 종류는 대, 동백, 조록이낭, 구륜비낭, 굴나무 같은 것들인데 모양이 좋고 보는 사람에게 포근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다. 이 나무는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 주는 방풍의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외부와의 시계를 차단하고 넓은 그늘을 만들어 준다. 여기에 가끔

22) 마수다 이치지 저 / 홍성목 번역, 앞의 책(제주시우당도서관, 2005.), p.196.

23) 전경수, 「용수문화, 공용재, 그리고 지하수: 제주도 지하수개발의 반생태성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제12권, 1995.), p.55.

24) 안거리 뒷벽 한 쪽 끝에서 다른 쪽으로 담을 쌓아서 외부와 통하지 못하도록 만든 폐쇄적 공간으로 뒤·뒷우영이라고도 한다.

우물(물통)이 만들어져 있는데 표주박만으로 물을 길 수 있을 정도로 깊이가 얇다. 물통의 둘레에는 넓적한 돌들이 깔려 있어 앉을 수도 있다.²⁵⁾



그림 3-11 한림읍 명월리 짐수네물
<2005. 8. 10 촬영>



그림 3-12 안덕면 덕수리 군물
<2005. 8. 12 촬영>

제주도는 바다 가운데 솟아있는 섬으로 지면은 건조하지만 건조한 기후에 속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물통에 고인 물은 수분 증발로 인한 손실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면을 통해 땅 속으로 유실되는 것만 유의하면 되었다.

3.2.3. 층향을 이용하는 방법

소와 물통을 이용한 음료수 취수 방법은 마을 구성원 모두가 사용하고 같이 관리하는 것이라면 ‘층향’을 이용한 방법은 개별 가옥별로 취수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

25) 뿌리깊은나무, 앞의 책(뿌리깊은나무, 1990.), p.195.

츄항은 띠를 땀기처럼 걸어 짜서 나무(잎이 넓은 상록수인 조록나무, 동백 나무 등)에 묶어 매달아 비가 올 때 빗물이 한 곳으로만 모이게 한다. 그리고 바로 나무 밑으로 향아리를 묻어 고정시켜 놓았다. 향아리는 땅 속에 묻어 물이 늘 살아 있도록 하였다.²⁶⁾ 이렇게 모인 물을 ‘츄물’²⁷⁾이라 불렀다.



그림 3-13 성읍민속마을에 남아있는
츄항<2005. 8. 11 촬영>



그림 3-14 츄과 츄항
<제주도, 「제주 100년」(1996), p.149.>

츄항을 이용한 취수를 위해서는 되도록 넓은 대지를 확보하고 가옥 주변에 잎이 넓은 나무를 심었다. 잘 사는 집에서는 츄항을 십여개 설치하여 받아 놓고 몇 년씩 묵혀 두고 맑게 되면 음료수로 마시고 천제(天祭)에도 썼다고 한다. 지붕 처마에서 흐르는 물로 받아두었는데 이는 ‘지신물’이라 하여 식수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한다.²⁸⁾ 가옥을 둘러 심어놓은 나무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가급적 대지 영역을 넓혀 많은 나무를 심는 것이 유리하였다.²⁹⁾ 위목(圍木)을 이용하여 취수하는 츄물은 단순

26) 제주도 교육청, 「향토교육자료 제주의 전통문화」, 1996, p.143. 이 글에서는 츄항을 땅 속에 묻어 두었다고 하지만 현재 복원되어 있는 츄항 모형이나 과거의 사진을 통해 본다면 지면과 가까이 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27) 오홍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에서는 ‘첨수(添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 발음대로 사용하였다.

28)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1980.), p.258. 이 책에서는 츄항을 이용한 취수가 한림읍 비양도나 표선면 성읍에서 쓰이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파악이라 생각한다.

29) 제주도, 『제주도지』(제1권, 1993.), p.487.

한³⁰⁾ 방법이나 시설을 통한 자연 빗물의 인위적 저류(貯溜)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봉천수보다 진일보한 자연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³¹⁾

마수다 이치지는 위목을 ‘채수림(採水林)’으로 표현하였다. 그의 글을 살펴보면 층향을 이용하여 취수하는 것은 남제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오히려 그가 작성한 도표에 서는 중산간 지역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방풍림과 외관이 하등 다른 점이 없지만, 그 기능상으로 보아 오히려 채수림(採水林)이라고 명명한다. 즉 물을 채취하기 위한 수풀이란 뜻이다. 북제주의 해안지대에는 전 지역이 대부분 무수목(無樹木)으로서 다만 검은색 현무암의 돌담과 황갈색의 둔중한 두꺼운 새지붕에 의해 강한 건조감(乾燥感)이 지배되지만 동부 및 남제주 지역에 있어서 녹색으로 둘러싸인 민가의 집단적 경관은 마치 오아시스의 쾌감마저 느끼게 한다. 물이 풍부하지 못한 중간해안지대의 취락은 이 수목을 이용하여 천수(天水)를 모아 음료, 기타 용도에 쓰는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었다.³²⁾

남제주군 표선면과 남원면 등 한라산 남동사면의 내륙취락에는 최근까지 층수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각종 인공음료수의 공동설치로 층물은 소멸단계에 있다.³³⁾

나무기둥에 건조한 띠를 다발로 꼬아서 나뭇잎사귀에 떨어진 빗물이 고이도록 하는 층은 단순히 빗물을 한곳으로 모으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빗물이 짙으로 만들어진 여과장치를 통과하도록 한다. 빗물이 층이라는 여과장치에 침윤되게 함으로서 빗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겸하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³⁴⁾ 고인 물의 질을 알아내기 위해서 개구리 서너 마리를 길러 식수와 썩은 물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구리와 그것을 잡아먹

30) 인용문에서는 층물(침수)의 취수과정을 ‘비위생적이며 유치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친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층을 이용한 취수에는 뛰어난 여과 기능이 있다는 것을 필자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31) 오홍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42.

32) 마수다 이치지 저 / 홍성목 번역, 앞의 책(제주시우당도서관, 2005.), pp.185~186.

33) 오홍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109. 이 논문이 쓰인 당시에는 층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지만 현재는 제주도 전역에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 층향을 이용하는 가옥은 찾을 수 없었다.

34) 전경수, 앞의 책(제12권, 1995.), pp.55~56.

으려고 모인 뱀 같은 생물이 살아 숨 쉬는 물은 썩지 않은 물로 간주할 수 있었다. 개구리가 물을 휘저으면 물이 공기와 반응할 기회가 늘어나고 물에 녹아드는 산소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물속의 해로운 물질이 분해되는 속도가 촉진된다. 찰의 재료인 쥘이나 띠는 유기탄소 함유량이 비교적 많다.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며 사는 미생물이 질소를 포함하는 영양 원소를 흡수하고, 유해한 물질은 분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찰은 빗물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의 미생물에 의한 흡수와 분해를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다. 찰의 재료인 쥘의 탄소와 질소의 함유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찰은 빗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내포하고 있음이 틀림없다.³⁵⁾

3.3. 제주도 동쪽 중산간 마을 입지 특징

3.3.1. 조천읍 교래리

1) 마을 역사

교래리는 700여년 전에 화전민들이 들어와 살면서 설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래리의 옛 이름은 ‘ㄸ리·도리’[橋來]이다. 『세종실록』(16년 6월 을해)과 『탐라방영총람』(방리, 좌면) 등에 橋來里[ㄸ리ㄴ을], 『탐라순력도』(「한라장축」)에 橋來[ㄸ리], 일제강점기의 1:25,000 지도에 교래리(橋來里), 상동(上洞), 하동(下洞), 길영동(吉永洞), 고영동(古永洞), 감발래(甘發來) 등으로 표기하였다. 『제주읍지』(제주읍지, 방리, 좌면)에는 “‘ㄸ리ㄴ을’은 제주 동남쪽 30리의 거리에 있다. 민호는 86호, 남자는 181명, 여자는 191명이다.”³⁶⁾, 『삼군호구가간총책』(제주군, 신좌면)에는 “‘ㄸ리’의 연가는 74호이다. 남자 118명과 여자 125명을 합하여 243명이고 초가 179칸이다.”³⁷⁾라고 기록하였다.³⁸⁾

35) 이도원, 『흙에서 흙으로』, 사이언스북스, 2004, pp.143~144

36) 橋來里, 東南距三十里, 民戶八十六, 男一百八十一, 女一百九十一.

37) 橋來, 烟家七十四戶, 男一百十八口, 女一百二十五口, 舍二百四十三口, 草家一百七十九間.

38) 북제주군, 『북제주군지』(상권, 2000.), p.1095.



그림 3-15 『탐라순력도』, 「교래대렵」
 <『탐라순력도』 영인본,
 제주대학교박물관, 1994.>



그림 3-16 『탐라순력도』, 「산장구마」
 <『탐라순력도』 영인본,
 제주대학교박물관, 1994.>

2) 마을 입지를 통하여 본 마을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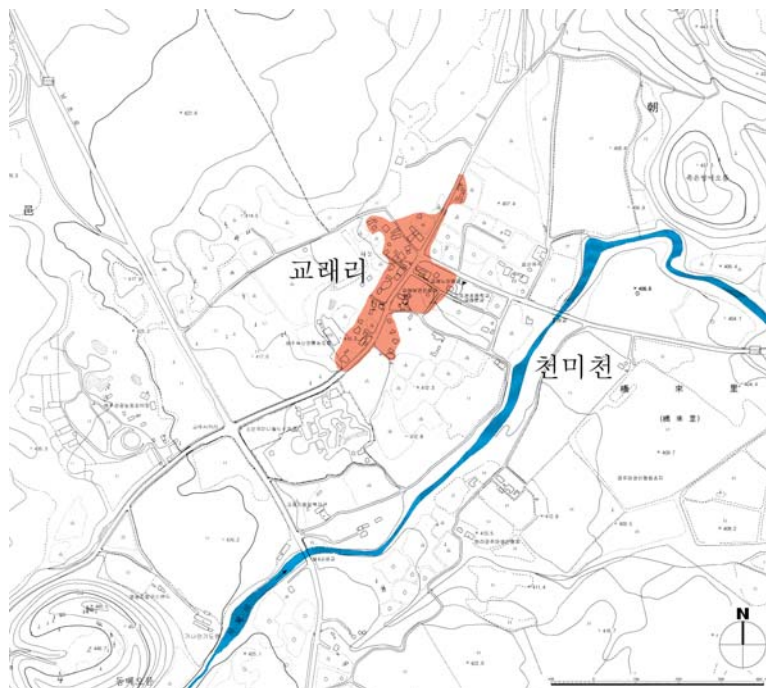


그림 3-17 조천읍 교래리 마을 형태

3) 입지 면에서 마을 특징 분석

교래리는 제주도로 내려온 양반 계층에 의하여 생겨난 마을이 아니고 화전 농민에 의해 세워진 마을이다. 조천면의 교래리를 중심으로 하는 감발래(甘發來) 고수동(古水洞)·길영동(吉永洞) 등은 당시 대표적인 화전 마을이었다.

교래리는 해발고도 400m 위에 마을이 입지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 중산 간 마을 중에서 아주 높은 편에 속한다. 교래리의 입지를 살펴보면 제주목과 정의현을 잇는 관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명유래에서도 마을 주변에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대소하천이 여러 지류가 흐르고 이를 이어주는 다리라 하여 ‘다리’라 했으며 이를 한자로 표기하여 교래(橋來)라는 지명이 생겨났다. 따라서 교래리에 화전을 시작하고 마을의 입지하게 된 데에는 이 여러 하천에 생기는 작은 ‘소’에서 음료수와 농업용수를 확보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도 하천 중에서 가장 큰 천미천이 교래리 옆으로 지나가고 하천의 방향과 같이 마을도 서남에서 동북방향으로 긴 형태를 가지고 있다. 마을과 하천은 맞닿아 있지 않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는 경작지가 위치해 있다. 경작지는 마을 주위에 넓게 퍼져 있으며 마을과 가까운 오름 주변에는 공동목장이 조성되어 있다.



그림 3-18 조천읍 교래리 주위 천미천 소(沼) 1
<2005. 9. 17 촬영>



그림 3-19 조천읍 교래리 주위 천미천 소(沼) 2
<2005. 9. 17 촬영>

3.3.2. 표선면 가시리

1) 마을 역사

가시리의 설촌은 ‘안좌오름’ 경 ‘와게우영’에 변(邊)씨가 정착한 것이 시초로 전해온다. 그 후 1392년 7월에는 고려조의 멸망과 더불어 고려의 충신이었던 한천(韓蕡)이 충절을 지켜 가시리에 와서 정착한다. 430여년 전에는 군위 오(軍威 吳)씨의 조상이 들어오고, 이어 순흥 안(順興 安)씨, 신천 강(信川 康)씨들도 들어온다. 이 마을은 새가름동네(新設洞)와 두리물동네(斗水洞), 폭남마루동네(彭木洞), 영머리왓동네(龍頭洞), 생기동(生氣洞), 신정동(新正洞) 등 6개 동으로 나뉘어 있다.³⁹⁾

39) 제주도, 앞의 책(제1권, 1993.), p.599.

2) 마을 입지를 통하여 본 마을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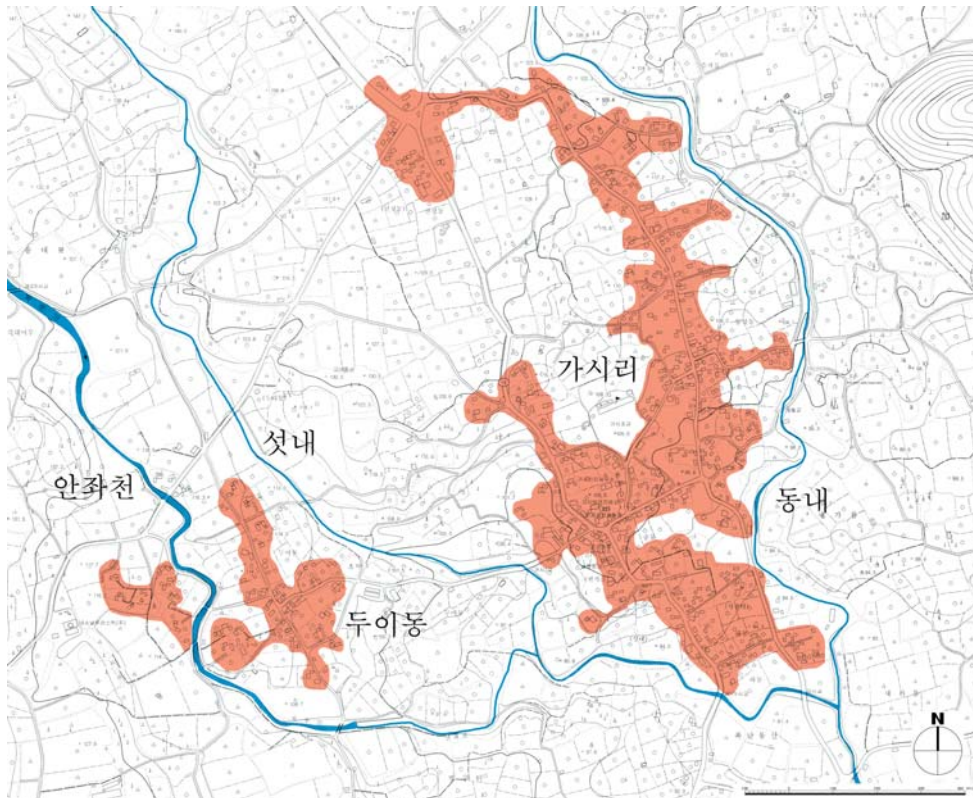


그림 3-20 표선면 가시리 마을 형태

3) 입지 면에서 마을 특징 분석

가시리가 들어선 입지는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3개의 지류가 모여 합수되는 지점이다. 제주도의 하천이 대부분 건천이라 항상 물이 흐르는 것은 아니지만 건천이라 하더라도 ‘소’에서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지를 선택하였다고 한다. 마을의 형태는 하천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하천과 하천 사이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이는 양쪽 하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경작지는 마을 주위로 배치되어 있으며 원형이 아니라 하천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시리 본동은 동내와 셋내가 합수되는 지점에 형성되어 있으며 셋내와 동내를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마을이 선형으로 긴 형태를 띤다. 가시리 본동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두이동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안좌천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가시리에서는 경작지가 마을 주변에 분포되어 있다는 특징이외에도 마을과 하천 사이에 작은 과수원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1 표선면 가시리 안좌천
<2005. 8. 13 촬영>



그림 3-22 표선면 가시리 동네
<2005. 8. 13 촬영>

3.3.3. 남원읍 한남리

1) 마을 역사

약 1290년경(고려 충렬왕 16년) 석곡리(石谷里)라는 이름으로 설촌되어 불리어 왔다. 1415년(조선 태종 16년)에 화등촌(火等村, 불등개)이라 불리웠다. 1864년(고종 2년) 서중면 한남리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48년 4·3사건으로 인하여 마을이 폐동되어 남원(17호), 의귀리(25호) 등 각 지역에서 살다가 1953년 7월 1일 마을이 재건되므로 다시 복귀하여 현재에 이른다.⁴⁰⁾

2) 마을 입지를 통하여 본 마을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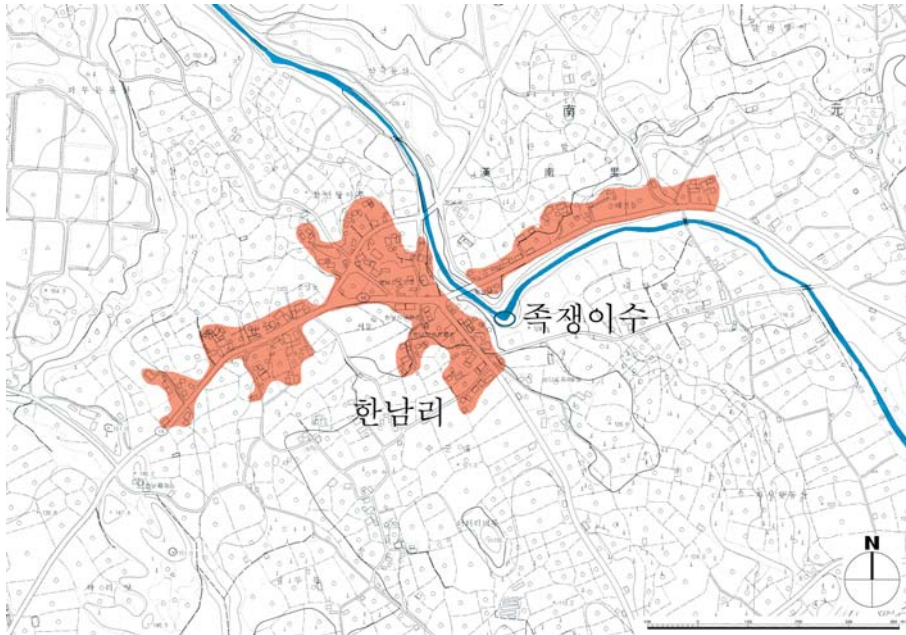


그림 3-23 남원읍 한남리 마을 형태

3) 입지 면에서 마을 특징 분석

한남리는 마을 주변에 2개의 큰 ‘소’가 위치하고 있다. ‘바령수’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반 이상 차있었다고 하며 ‘죽쟁이수’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아 ‘큰 물’이라고도 불렸으며 주변 마을인 수망리나 의귀리에서 물을 구하러 왔다고 한다. 한남리는 제주목과 정의현을 잇는 관도와는 무관하지만 주변에 국마장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마을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바령수’는 일설에 의하면 이 마을 일대가 국마장 주변이고 주민들도 주로 마소를 치는 걸 생업으로 삼아 살았는데, 국마장 목자는 샅으로 국마장의 한 구역을 일시적으로 품삯 대신 할당 받아 거기에 마소를 예워 분뇨를 받아 밭 거름으로 이용하여 콩과 피 등 농사를 지었는데 이를 <팔랑전>이라고 했다. 팔랑전 농사를 짓는 목자들이 식수며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물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⁴¹⁾

한남리는 서중천을 따라 동서로 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서중천이 남쪽으로

40) 한남리청년회, 『한남청년』(창간호, 1998.), p.74.

41) 한남리청년회, 앞의 책(창간호, 1998.), p.76.

호르다 굽이치는 곳에 족쟁이수가 위치해 있으며 이 곳을 기준으로 마을이 동·서로 나뉘어 있다. 서중천이 남쪽으로 흐르다 굽이치면서 동쪽으로 흘러 나가기 때문에 남북으로 마을이 약간 퍼져있기도 하다. 제주도 하천은 바닥이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 걸어 다니기 힘들어 마을과 가까운 길보다 약간 돌아가면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막혀있다. 족쟁이수 주 위에는 물을 가둘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돌을 쌓은 흔적이 보이지만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⁴²⁾ 아마도 용도에 따라 물을 사용하기 위한 장치로 생각된다.



그림 3-24 남원읍 한남리 족쟁이수
<2005. 8. 13 촬영>



그림 3-25 남원읍 한남리 바령수
<2005. 8. 13 촬영>

42) 남원읍 한남리 전 이장 고석필 제보

3.4. 제주도 서쪽 중산간 마을 입지 특징

3.4.1. 애월읍 납읍리

1) 마을 역사

오늘날 납읍리에는 동상동(東上洞: 땃거리, 종남이), 동중동(東中洞: 도개거리, 재뽏거리), 동하동(東下洞: 모살빌레, 큰거리), 서상동(西上洞: 내구니믈, 서жат질), 서중동(西中洞: 황계목, 동жат질), 서하동(西下洞: 폭낭믈, 문지기) 등의 동네가 있다.

납읍리는 문씨와 고씨가 맨 처음 ‘등덩이’, ‘곰팡이’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전한다. 이들의 뒤를 이어 16세기 중반부터 탐라 고씨, 김해 김씨, 나주 김씨, 진주 강씨, 원주 변씨 등이 차례로 들어왔으며, ‘등덩이’, ‘곰팡이’ 등에 살던 이들도 현재의 마을 중심으로 이동해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17세기 말에 이르면 100여 호에 이르렀고, 그 뒤에도 계속 이 마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18세기 말에는 150여 호, 19세기 말에는 300여 호에 이르는 대마을을 형성케 되었다고 전한다.

마을의 경계가 뚜렷해진 것은 1709년의 일로, 이 때 남쪽으로는 ‘등지거리’, 북서쪽은 ‘과오름’을 중심으로 바닷가까지, 북동쪽으로는 ‘한담’까지 납읍에 속하였다. 그러나 한일합방 이후 ‘한담’은 떨어져 나가고, 지금과 같이 ‘과오름’ 남쪽 도로로 마을의 경계가 그어졌다.⁴³⁾

43) 북제주군, 앞의 책(상권, 2000.), p.1055.

2) 마을 입지를 통하여 본 마을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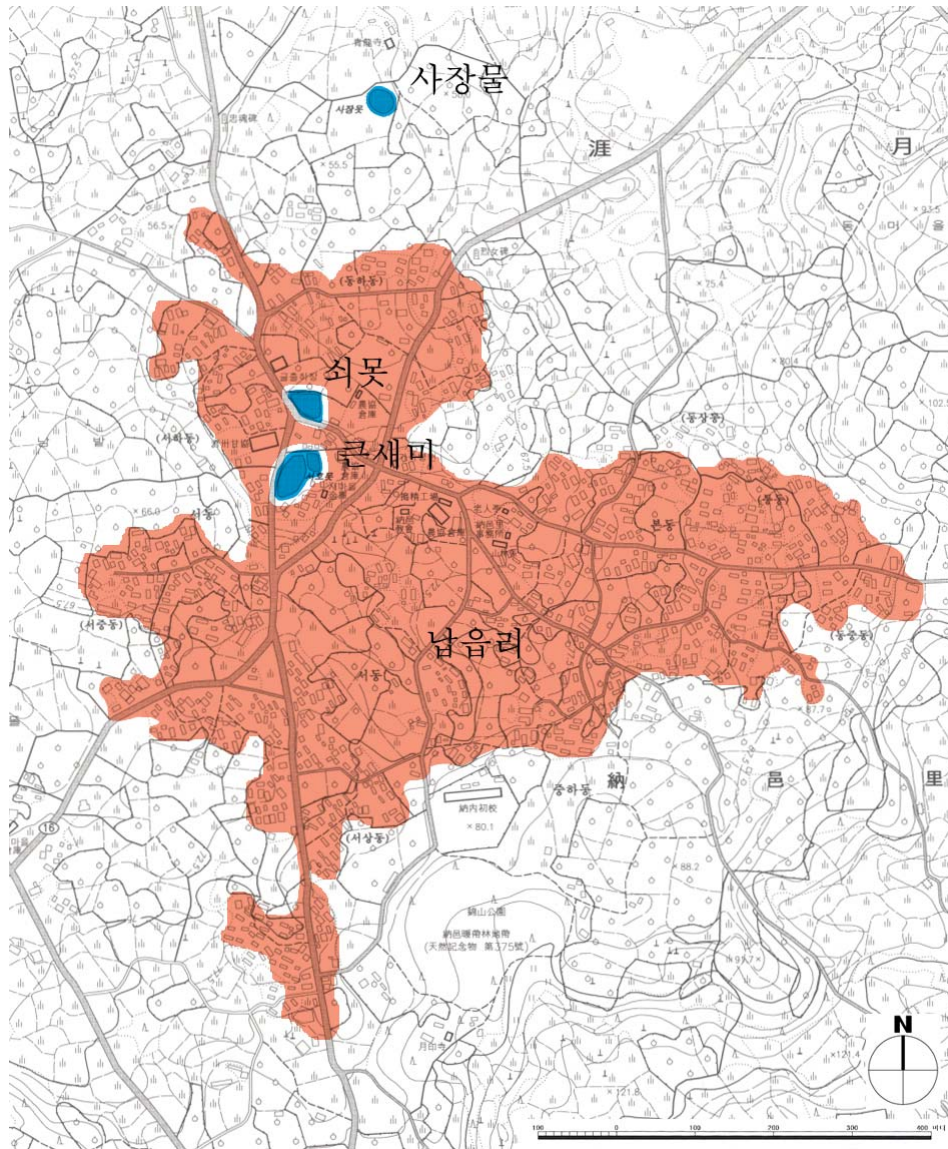


그림 3-26 애월읍 남읍리 마을 형태

3) 입지 면에서 마을 특징 분석

중산간 마을 중 남읍리는 유일하게 집촌(集村)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중산간 마을에 비해 마을이 크고 가옥들이 밀집되어 있다. 남읍리는 마을 가운데

있는 ‘큰 새미’를 중심으로 마을이 동쪽과 서쪽으로 입지하고 있다. 납읍리 가운데 위치한 물통은 ‘큰 새미’와 ‘쇠뿔’이다. ‘큰 새미’는 3개의 물통으로 나뉘어 있으며 가장 큰 물통에서는 물을 보관하는 역할만 한다. 이 물통에서 흘러나온 물이 2번째 물통에 차게 되고 사람들이 여기서 물허벅을 이용해 물을 길고 음료수로 사용한다. 이때 사람들이 쉽게 물을 길 수 있도록 수면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좌우 양쪽에 설치되어 있다. 식수로 쓰이고 남은 물은 쇠뿔으로 빠져 나가 목욕을 할 때 사용되거나, 농업용수, 우마용 식수로 사용된다. 물을 쉽게 얻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때만 모을 수 있는 봉천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마을 주민들의 노력을 볼 수 있다. 우선 식수와 생활용수로 용도를 구분하고 식수로 사용되는 물은 오염되지 않도록 주민 모두가 조심히 다루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을 바깥에 있는 사장물은 20세기에 들어서 조성된 것으로 처음에는 지하수를 얻기 위해 파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후 공사가 지속되어도 지하수가 나오지 않자 주변을 정리하고 원형의 물통으로 만들었다. 깊이에 따라 단이 형성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물을 뜨기 위하여 수면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만들어져 있다.

이외에 납읍리는 전형적인 유림 마을로 볼 수 있다. 마을 연혁을 살펴보면 납읍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한 이도 있으며 마을의 방풍림 역할을 하고 있는 금산에 있는 포제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유교식 제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주목과 대정현을 잇는 관도 주변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7 애월읍 납읍리 큰새미
<2005. 9. 15 촬영>



그림 3-28 애월읍 남읍리 석못
<2005, 9, 15 촬영>

3.4.2. 한경면 저지리

1) 마을 역사

조선 숙종 28년(1702)년 당시 이형상 목사가 화공 김남길을 시켜 그린 『탐라순력도』의 제주도 지도에 보면 지금 저지리가 있었던 자리에는 ‘堂旨’라는 마을 이름이 적혀 있다. 그 이웃에는 조호수(造乎水) - 지금의 조수리인 듯 - 라는 마을과 흑악촌(黑岳村)이 나란히 앉아 있다. 그 후 1800년대에 작성된

제주도 지도에 비로소 저지락 기슭에 ‘저지촌’이 기재돼 있고 그 인근에 용선달촌(龍先達村)과 조수물촌(造水勿村)이 있다. 이 무렵 저지리와 용선달리 부근에는 두 개의 과수원도 표시되어 있다. 저지리의 속명은 아직까지도 ‘당마루’ 혹은 당물‘이라고 불리워오고 있거니와 그러니까 1700년대까지만 해도 ‘당(堂)’과 ‘마루’라는 뜻을 쫓아 ‘당지(堂旨)’로 표기돼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당’은 비슷한 음을 차용하여 ‘닥(저)마루’가 되고 차츰 저지리로 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마을은 한때 ‘명학리(鳴鶴里)’, ‘계지리(鷄旨里)’ 등으로 불린 적도 있다고 구전되어 오나 확인할 길이 없다.



그림 3-29 『탐라순력도』, 「한라장축」에 표기된 저지의 옛 이름인 ‘堂旨’
<『탐라순력도 영인본』, p.17 참조>

지금 저지리는 과거 용선달 리가 있던 부근의 수동을 비롯하여 중동, 남동, 명리동 등 옛말 마을들과 4·3사건 이후 이뤄진 성전동, 신흥동 등 6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마을의 오랜 동네인 지금은 없어져버린 용선달리와 당마루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마을 인근에 흩어져 있는 옛 무덤들을 추적해 보면 저지악 남녘 기슭 ‘장왓곳’에는 전주 이(全州 李씨)의 입도조인 광빈(光賓)의 무덤이 있다. 조선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8세손인 광빈은 1610년 2월 제주목사로 부임하는 중형 기빈(箕賓)을 따라왔다가 용선달리를 터전으로 눌러앉았는데 그 후대는 지금 19~21대까지 제주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16대손 昌圭) 만일 이씨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살았다고 한다면 이 마을의 설촌연대는 1600년대 초가 될 것이다.⁴⁴⁾

한편 ‘물골’이라는 속칭으로 불리워 오고 있는 수동에는 제주 양(濟州 梁)씨의 조상들이 먼저 들어와 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 오는데 지금 양씨들은 중랑장공파 홍(中郎將公派 弘)의 12대손 繼上이 명월에서 와서 ‘물골’에 정착, 11대(應順)를 살고 있다. 부락 설촌 당시 용선달이에는 닥나무(楮木)가 많고(지금도 있음) 지대가 높다하여 마르(旨) 같아서 저지(楮旨) 즉 닥마루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연대 알 수 없음)⁴⁵⁾

2) 마을 입지를 통하여 본 마을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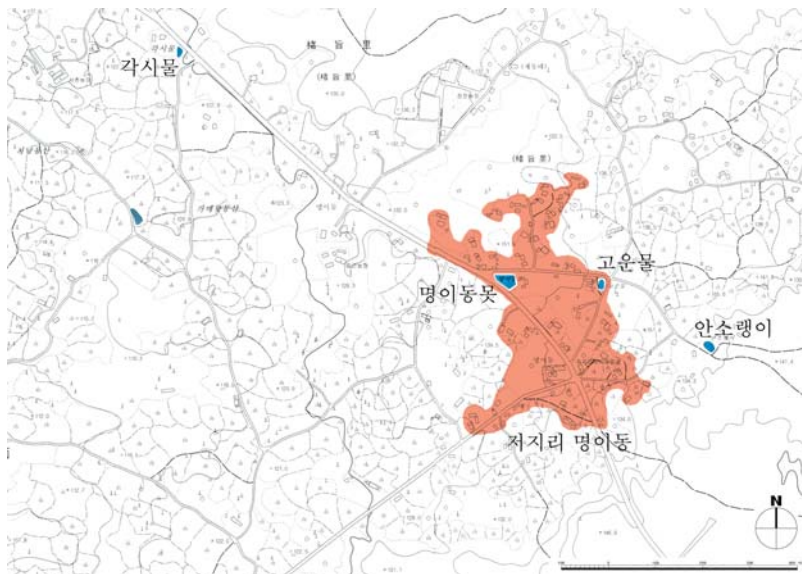


그림 3-30 한경면 저지리 마을 형태

44) 오성찬, 앞의 책(반석, 2002.), pp.33~35.

45) 저청국민학교, 『저청학구향토지』(저지리, 1987.), p.14.

3) 입지 면에서 마을 특징 분석

저지리에서는 대개 오름의 기슭에 물통을 만들어 두고 빗물을 받아 사용했다. 물통이 들어서게 되는 지형조건은 빗물이 잘 흘러내려야 하고 흘러내린 빗물은 땅 밑으로 스며들지 않고 고여야 하는 그런 곳을 골라야 했다. 물통의 형성은 거의 마을사람들이 노역을 담당했고 지형조건이 좋은 곳의 밭임자와 선뜻 땅을 내놓기도 해 이루어지곤 했다. 그래서 마중오름의 서남쪽 기슭에 있는 앞새물의 부지를 내놓은 땅임자를 기리는 비석도 서 있다.⁴⁶⁾

저지리는 다른 지역과 달리 한 곳에 2~3개의 물통을 같이 파지 않고 용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저지리 명이동 같은 경우에는 명이동못과 고운물 같은 경우에는 마을과 가까운 곳에 있으며 안소랭이과 각시물은 농경지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명이동못은 사람들이 물통 수면 가까운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넓게 단을 형성해 두었다. 고운물은 암반에 의해 호리병 모양으로 생겼으나 이를 나누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림 3-31 한경면 저지리 명이동못
<2005. 9. 15 촬영>



그림 3-32 한경면 저지리 고운물
<2005. 9. 15 촬영>

46) 오성찬, 앞의 책(반석, 2002.), pp.29~30.

3.4.3. 안덕면 서광서리

1) 마을 역사

마을 원로 고상부에 의하면 서광서리는 명종15년(1560)경에 자단리(紫丹里)로 창설되었다고 한다. 순조30년(1830)에 광청리(光淸里)로 신당리(덕수리), 금흘로(사계리)와 분리되었다. 광무2년 무술(1898) 분양될 때 동광과 서광이 분리되었다가 경술합방 이후 서광리를 1, 2구로 분구하였다.

서광서리의 설촌 유래에 대해서는 4·3사건 당시 부락이 소개로 모든 자료가 완전 소실된 때문에 사적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없고 일괄된 전설도 없으나 마을 유지 등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년 전인 유동 농민이 소수 정착하여 생활하였다고 전한다. 현재 서광리와 동광리를 일컫는 광청리는 건곤동(乾坤洞), 관진동(官田洞), 장진동(長田洞), 사수동(蛇首洞), 진보동(進寶洞), 응전동(應田洞) 등 여섯 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었다.⁴⁷⁾

2) 마을 입지를 통하여 본 마을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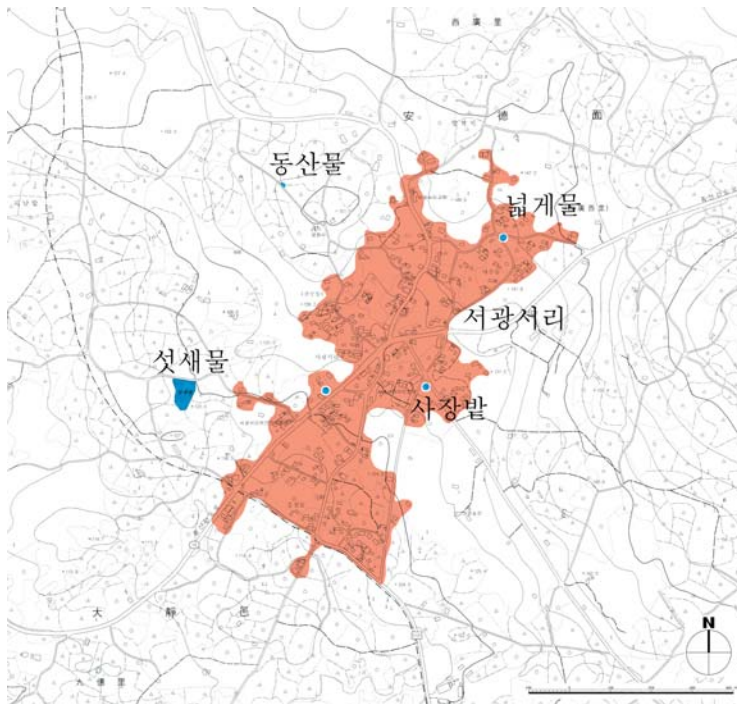


그림 3-33 안덕면 서광서리 마을 형태

47)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서광서리, 2000.), p.8.

3) 입지 면에서 마을 특징 분석

서광서리에는 마을 안에 작은 물통이 여러 개 분포되어 있으며 가옥 배치
는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마을은 물통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집단이 모여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마을 읍지에도 ‘급수시설로 연못(물
통)을 만들어 비가 올 때 봉천수를 고이게 하였다가 평소에 급수로 이용하였
다. 그러나 장기적 심한 가뭄이 계속될 때는 화순, 사계(해안 마을) 등지에서
급수를 운반하였다’고 한다.⁴⁸⁾

마을 중심에 있던 물통인 사장밭은 현재 마을 공동 집하장 건물을 세우기
위해 메운 상태라 과거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과거에 물통으로 쓰이던 곳
을 메워버리는 것은 최근 이러한 물통이 쓰이지 않고 있으며 여름에 어린아
이들이 그 곳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예는 서광서리의 넓게물, 덕수리의 도르곶과 마을에 있었던 물통들이다.
이렇게 물통을 메우는 것은 안덕면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동산물은 동산위
에 거주하던 마을 주민들이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물통을 파서 식수로 이
용한 데서 이름 지어졌으며, 주위에 팽나무가 심어져 있어 우마의 접근을 막
았다. 셋새물은 그 규모가 크고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서광서리는 마을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길이 뻗어나가 있으며 그 길마다 물
통이 하나씩 파여 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가옥이 들어서 있어 여러 개의 핵
이 모여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림 3-34 안덕면 서광서리 사장밭 터
<2005. 8. 15 촬영>



그림 3-35 안덕면 서광서리 넓게물 터
<2005. 8. 15 촬영>

48) 서광국민학교, 『서광리지』(서광서리, 1986.), p.28.



그림 3-36 안덕면 서광서리 동산물
<2005. 8. 15 촬영>

3.5. 소결

중산간 지역으로 거주지가 확대될 당시 가장 중요한 입지 조건은 음료수 확보 문제였다. 따라서 중산간 지역에서는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면 마을이 들어서게 되었다. 중산간 지역에서 물을 구하는 방법은 소(沼), 물통, 층항을 이용하여 봉천수(빗물)를 장기간 저장하는 방법이다. 간간히 중산간에서 용천수가 솟아나오긴 했지만 충분한 양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하천 중간에 투수가 되지 않는 하상에 고인 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음료수 저장 방식이다. 물통을 이용하는 방법은 물이 밑으로 빠지지 않는 땅을 골라 땅을 파고 큰 빗물 저수통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소에 비해 인공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되게 된다. 특히 용도에 따라 물통을 2~3개를 파서 따로 관리하기도 하였다. 층항을 이용하는 방법은 가옥 내에 얹어 큰 나무를 심어 줄기에 새나 띠를 땀기처럼 걸어 짜고 그 밑에 항아리를 놓아 빗물을 저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소나 물통에 비해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

표 3-1 중산간 지역에서 음료수 확보 방법

	형성원인	사용자	특징
소	자연적으로 형성	마을 구성원	하천 중간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가 결정되어 있다.
물통	인공적으로 조성	마을 구성원	토양 조건에 영향을 받지만 필요에 의해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층항	인공적으로 조성	개인	마당에 심은 나무를 통한 집수 방법이고, 소나 물통을 통한 집수보다 발달된 방식이다.

제주도 중산간 마을은 이러한 음료수 확보 방법이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이에 따라 마을 형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동쪽 중산간 마을인 표선면 가시리, 남원읍 한남리, 조천읍 교래리에서는 하천을 중심으로 마을이 발달하였으며 음료수는 주로 소를 이용해서 취수하였다. 따라서 이 마을들은 하천을 따라 길이 나 있으며 선형으로 긴 마을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 주위로 경작지가 분포해 있다. 이에 반해 제주도 서쪽 중산간 마을인 애월읍 남읍리, 한경면 저지리, 안덕면 서광서리에서는 주로 물통을 이용해 음료수를 확보하였다. 이 마을들은 물통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방사형의 길과 전체적으로 원형에 가까운 마을 형태를 보인다.

표 3-2 연구 대상마을 정리

마을명	지역	음료수 확보 방법	마을 형태
조천읍 교래리	동부	소(沼)	선형
표선읍 가시리	동부	소(沼)	선형
남원읍 한남리	동부	소(沼)	선형
애월읍 남읍리	서부	물통	원형
한경면 저지리	서부	물통	원형
안덕면 서광서리	서부	물통	원형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식수원인 소나 물통은 마을 구성원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봉천수의 수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마을 구성원이 서로를 위해 깨끗이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한반도 마을과는 다른 가치관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이후 한반도 마을은 하나의 종가를 중심으로 씨족마을이 발달한데 비해 제주도 마을은 대부분 잡성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통혼권으로 인해 마을 안이나 가까운 마을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고, 친가나 외가를 동일시 보는 ‘웬당’이라는 친척개념으로 인해 마을 구성원은 모두 친척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이러한 생각은 마을 구성원 모두를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런 마을 공동체 의식이 봉천수를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한반도 마을은 배산임수라는 전통적 입지관을 바탕으로 마을 공간이 구성

된데 반해서 제주도 마을은 수원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마을 공간이 구성되었다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제주도 중산간 마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중산간 마을이 비교적 평탄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주도 마을에서는 한반도 마을에서 보이는 종택이나 위계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방사형의 마을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을 형태는 다시 제주도 동부와 서부의 음료수 확보 방법에 따라 선형과 원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4. 중산간 마을에 나타난 지역 차이에 대한 분석

4.1. 직접적 요인

4.1.1. 하천에 의한 영향

제주도의 산세는 한라산을 정점으로 방사형을 이루고 있으며 수계는 산줄기와 산줄기 사이를 흐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방사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동서길이에 비해 남북길이가 짧아서 동서사면은 남북사면에 비해 경사가 완만하고 긴 사면과 넓은 용암평원이 발달한 동·서 양측에는 수계의 발달이 미약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하천은 한라산·어승생오름·성녘오름 등 여러 오름들이 동서로 연결되어 생기는 분수령에 의해 남류 또는 북류하고 있는데, 긴 하천이라도 그 길이는 30km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15km 내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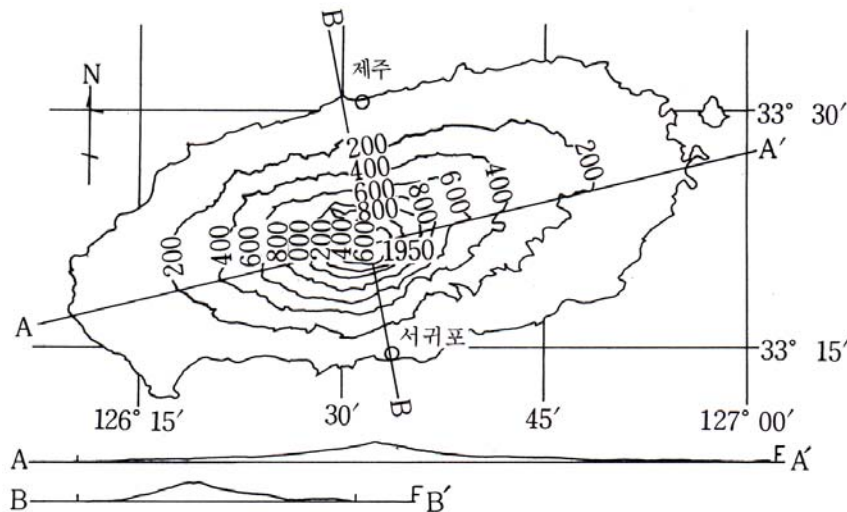


그림 4-1 제주도 동서사면과 남북사면의 경사도
<제주도 건축사회, 「제주건축」(제2집, 1992.), 그림 2-1, p.12.>

제주시는 경사도가 큰 한라산의 북사면에 위치하여 주변에는 지하수면의 노출에 의한 당시 유수하천과 해안 지역에 가락귀, 산지, 용담 등 많은 용천이 분포되고 있다.¹⁾ 북제주 지역에는 외도천을 중심으로 한 조면암질 안산암 지역에 12개 하천, 남제주 지역 중문 조면암과 서귀포 조면암 지대에 강정천

등 13개 하천이 집중되어 있다.²⁾ 하지만 제주도는 화산지형이므로 일반적으로 투수성이 커서 하천은 거의 건천이며 영구 유수천은 희귀하다. 제주도의 연강수량은 해안지대 평균이 1,568mm이고, 산악지대는 한라산의 지형성 강수로 무려 3,000mm가 내려 이를 평균하면 1,918mm(한국 평균 960mm, 세계 평균 743mm)가 되어 한국 최다우지가 된다.³⁾ 하지만 하천은 그 바닥이 물이 잘 빠지는 현무암층이므로, 대부분 큰 비가 올 때에만 흐르다가 이내 하천 물이 바닥으로 스며들어 버린다.

그래서 하천은 비 올 때에만 일시에 흘러내리고, 얼마 없어 물이 말라버려 평상시에는 건천이 된다. 한편 지하에 빠져든 물은 용암층 밑을 복류하다가 해안지대에 이르러 용출하여 주민의 음료수가 된다. 따라서 취락이 해안지대에 밀집하게 마련인 것이다.⁴⁾ 실제로 제주도의 163리·동 중 79%(128리·동)가 해발 90m이하의 해안 부근에 입지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하천의 상류부에는 유수가 나타나나 해발 500m부근에서는 지하로 스며들어 복류가 된다. 우수도 지하로 스며들어 용암층의 경사를 따라 복류하는데, 이러한 복류는 해안에 이르러 용천대를 이루고 이것이 마을 입지를 결정하여 해안에 마을이 집중분포하고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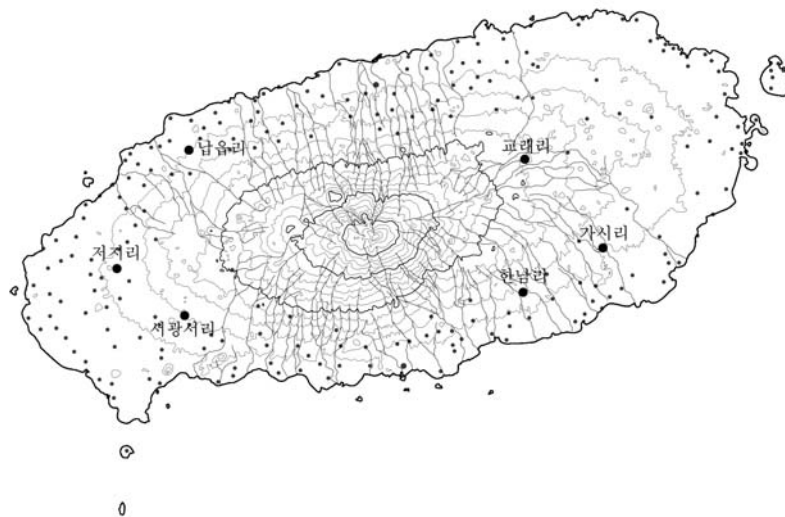


그림 4-2 제주도 하천 분포와 대상마을의 위치

- 1) 오홍석, 「제주도의 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30.
- 2) 이청규, 「제주도 고고학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32.
- 3) 송성대, 『제주인의 해민정신-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각, 2001.), p.251.
- 4)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1980.), p.14.
- 5) 홍경희, 『촌락지리학』(법문사, 1999.), pp.137~138.

위 그림에서 보이듯 동부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들은 대부분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 동부 중산간 지역이 가뭄이 잦고 농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척박한 환경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서부의 중산간 마을과는 다른 입지 조건이라 생각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중산간 지역으로 거주지가 확대될 당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입지 조건은 용천수나 하천이었을 것이다. 비록 건천이긴 하지만 하천 중간 중간에 있는 소를 통해 음료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도 동부 중산간 마을은 더 이상 동쪽으로 진출이 어려웠던 반면 서부 중산간 마을은 물통을 통한 봉천수 취수 방법을 통해 서쪽으로 진출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4.1.2. 지질·토양 특성에 따른 차이

1) 지질 특성에 따른 차이

지하 심층부의 시추 결과에 의하면 제주도는 4단계에 걸친 화산 활동기를 통하여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1분출기는 해수면 아래에 놓인 제주도의 기저부가 형성된 시기이다. 제주도의 지하에는 지역에 따라 다소 층후의 차이가 있지만 해수면 아래 평균 100m까지는 감람석·휘석·현무암이 분포한다. 10여만 년에 걸친 휴지기가 끝나고 재개된 제2분출기는 용암대지의 형성기이다. 한라산체의 기반을 이루며 해안으로 완만하게 기울어진 해안지대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출현하였다. 제3분출기로 들어와 분화 양식은 틈분화로부터 제주도 중앙부에서의 중심 분화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중앙화구를 중심으로 화산체의 고도가 높아지면서 비고 1천 700m에 달하는 한라산 순상화산체가 형성되었다. 제4분출기는 12만년 전부터 시작된 한라산의 후화산활동기로 제주도 전역에 걸쳐 소형화산체가 형성된 시기이다. 2만 5천년 전에는 백록담 용암원정구로부터 다시 현무암이 분출하면서 한라산 정상에 백록담 분화구가 출현하였다.⁶⁾

6) 북제주군, 『북제주군지』(상권, 2000.), pp.103~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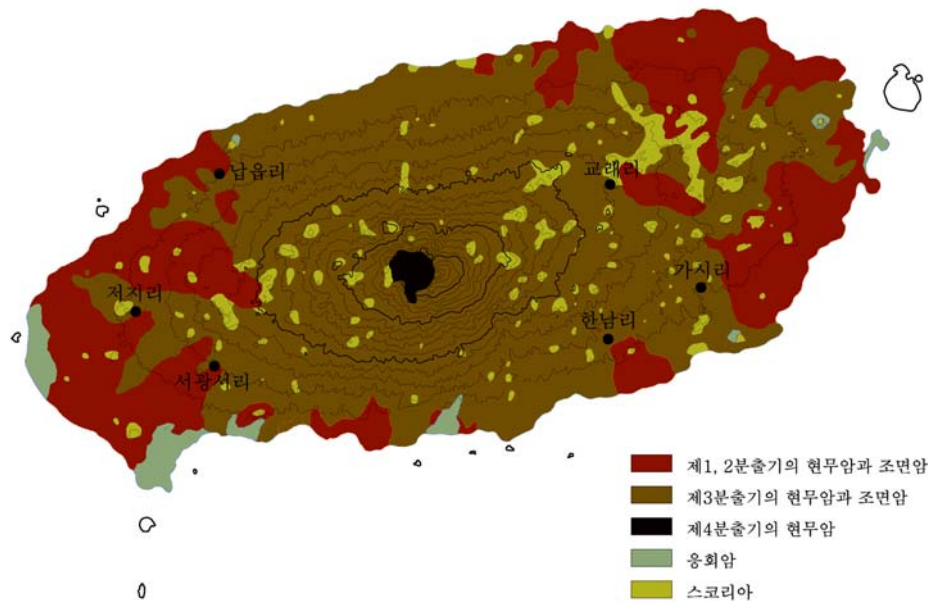


그림 4-3 제주도의 지질과 대상 마을
 <북제주군, 『북제주군지』(상권, 2000.), 그림 1, p.103.>

서부 중산간 마을인 남읍리, 저지리, 서광서리 같은 경우에는 제1, 2분출기의 현무암과 조면암으로 지질이 이루어져있다. 동부 중산간 마을인 교래리, 한남리, 가시리는 제3분출기의 현무암과 조면암으로 지질이 이루어져 있다.

2) 토양 특성에 따른 차이

제주도는 한라산의 화산활동에 의해 생겨난 화산섬으로 한반도 지형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침식이 진행된 한국의 지형에서는 배후에 험준한 산지를 끼고 있는 산록을 따라 경사가 매우 완만한 평탄면이 자리 잡고 있다.⁷⁾ 선조들은 연속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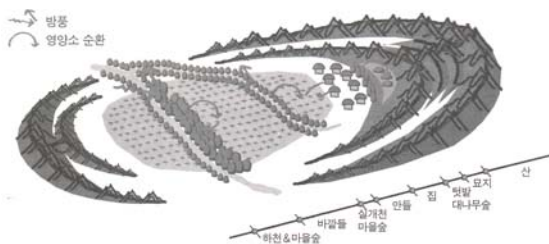


그림 4-4 전통적인 마을 공간 구성 개념도
 <이도원, 『한국의 전통생태학』(사이언스북스, 2004.), 그림4, p.29.>

7) 오홍석, 『취락지리학』(교학연구사, 1989.), p.304.

산들을 하나의 흐름인 산줄기로 인식하고 후에 이러한 사상은 체계화시켜서 한반도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정간과 정맥으로 구분하는 산경표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지형 위에 마을의 입지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치관은 배산임수이다. 배산임수의 지형에서 가옥은 경사지와 평지가 만나는 곳에 자리 잡으며 그 앞에 펼쳐진 경작지를 문전옥답이라 표현하였다.

제주도 지형의 대체적인 모양은 신생대 제4기의 화산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제주도 지반 형성은 제3기말에 끝나고 그 지반 위에 제4기에 들어서서 2회에 걸친 용암의 분출로 용암대지가 형성되고, 그 후 다시 2회에 걸친 용암 분출로 오늘날 제주도 지형이 완성되게 된 것이다.⁸⁾ 제주도는 한반도와 달리 화산활동에 의해 지형이 형성되어 한라산이 원뿔꼴 형태로 솟아 있으며 한반도와 비교하여 짧은 시간에 형성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제주도의 산줄기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 내려가는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이는 19세기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에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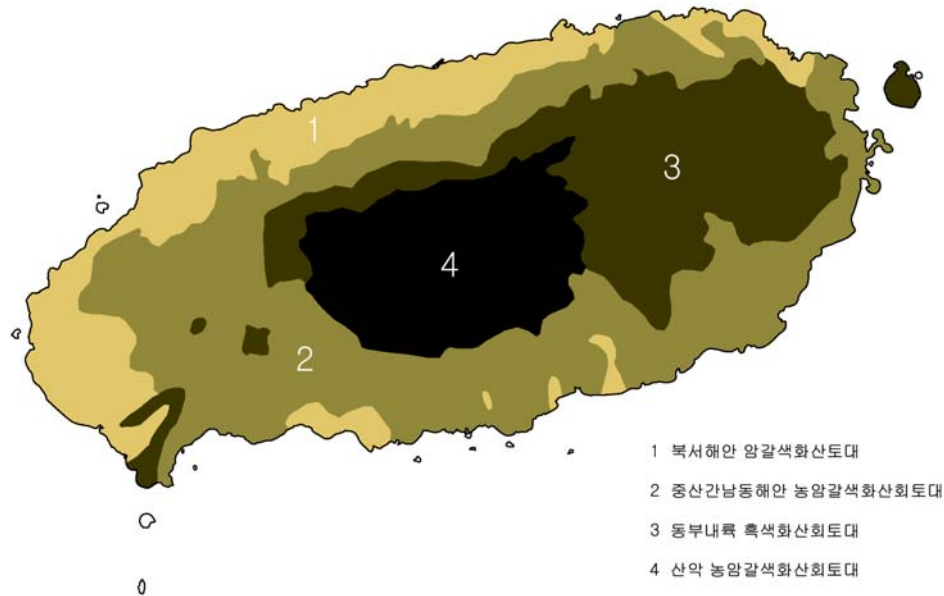


그림 4-5 제주도 토양구분과 대상마을의 관계
<송성대, 『제주인의 해민정신-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각, 2001.),
그림 28, p.259 참조>

8) 이청규, 앞의 책(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29.

화산회토는 형성시기에 따라 고화산토와 그에 비해 2~3배 이상 척박한 화산회토로 나누어진다. 이를 다시 세분류하면 ①북서해안 암갈색화산토대, ②중산간남동해안 농암갈색화산토대, ③동부내륙 흑색화산회토대, ④산악 농암갈색화산회토대로 나눌 수 있는데, 전통사회에서는 화산회토가 변질된 된땅이라 부르는 ①의 고화산토에서만 보리·조 농사가 가능했다. 섬의 남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 면적의 83%를 차지하는 ②, ③, ④의 화산회토지대는 산성예다 잡초마저 잘 자라 겨우 서숙(黍粟)밖에 재배할 수 없었다.⁹⁾

흑색, 갈색에서 농암갈색까지의 색을 보이는 식질양토계의 화산회토는 투수성과 관계된 공극률이 70%¹⁰⁾가 넘는 외에 빗방울의 충격이 있을 경우 곧 표면 공극이 메워 초기에 많은 수량이, 다량의 토양 성분, 가용성 염류, 토양 유기물 등과 함께 바다로 유실되어 버린다. 그러나 이 화산회토는 일단 물을 머금으면 일반 재와 같이 큰 공극률로 인하여 쉽게 투수되어 함수량이 낮아지게 된다. 강수량의 40%(12억m³)가 지하로 스며들어, 이 중의 약 20%는 다시 지질구조대를 따라 바다로 유출되고 나머지 80%(10억m³)가 지하에 포장되나, 높은 공극률로 모세관 현상을 일으키지 못하여 지표로의 수분 공급이 안 되는 것이다.¹¹⁾

제주도 중산간 지역인 ‘곶자왈’이 가지는 지질 조건은 이러한 원리로 인해 빗물을 지하수층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③, ④번 지역에서는 마을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가 더 힘들었던 것이다. 이는 이 지역 마을이 물통을 조성하여 봉천수를 관리하고자 해도 지질 조건 상 물통을 조성할 수 있는 땅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4.1.3. 지역별 용수(用水)의 차이

제주도에서 해안 마을은 근해어업, 중산간 마을은 목축업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주된 생산 활동은 농업에 집중되어 있다.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물은 결정적인 요소로써 작용하며, 취수는 과거의 농경생활에 깊이 연관되고 있다.¹²⁾ 건조지역은 아니지만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제주도는 투수성이 큰 지형조건으로 인해 지표면은 갈수상태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용천수나 봉천수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고 밀집화 되는 것이다.¹³⁾ 용천수가 해안지역의

9) 송성대, 앞의 책(각, 2001.), p.259.

10) 야하타 도시오 지음 / 김종흡 옮김, 『신비롭고 고마운 토양권』(전파과학사, 1992.), p.67.

11) 농수산부 제주도 농업진흥공사, 「제주도지하수개발보고서」(1984.)

12) 박문우, 「입지론적 배경에 의한 마을과 민가의 좌향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p.17.

음료수인데 대하여 봉천수 및 하천수는 중산간 지역의 음료수로 용천수에 비하여 질적으로 불량하며 비위생적인 오수이다.¹⁴⁾ 마수다 이치지의 조사에 따르면 해안지대에서 용천은 162개소에 달했으며 점차 내륙으로 나아감에 따라 용천은 감소하고 주민은 음료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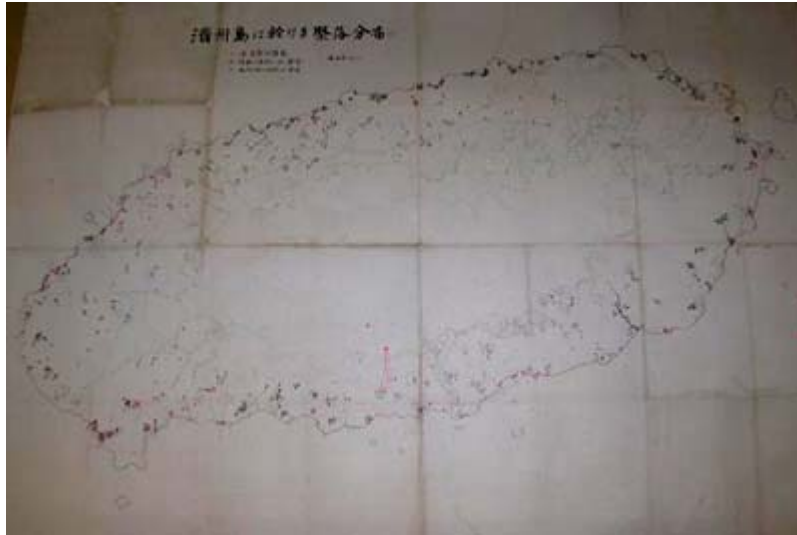


그림 4-6 제주도에 있어서의 취락 분포
 <마수다 이치지 저 / 홍성목 번역, 『제주도의 지리학적 연구』(제주시우당도서관, 2005.), 부록>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0)에서는 제주도의 용수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¹⁶⁾

- ① 화구호수(火口湖水)의 물은 산촌에서 방목하는 우마에게 먹이는 물이다.
- ② 하천(河川) 원류지대(源流地帶)에서 흐르는 물은 거주지보다 높이에 있어 목축하는 말에게 먹이고 해녀들이 미역 감는다.

13) 오흥석, 앞의 책(교학연구사, 1989.), p.288.

14) 오흥석, 「제주도의 취락입지에 관한 연구」(지리학 제4권 제1호, 1969.), p.51.

15) 마수다 이치지 저 / 홍성목 번역, 『제주도의 지리학적 연구』(제주시우당도서관, 2005.), p.196.

16)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제주도편, 1980.), p.258.

- ③ 하천중류(中流)에는 유수(溜水)와 용수(湧水)가 있다.
- ④ 하천하류(下流)에는 가옥이 밀집한 촌락에 있어 하천의 유수(流水)와 용수(湧水)를 많이 쓰고 있다.
- ⑤ 양촌 산촌지대에는 유수(溜水 새미)가 많은데 반석이 약한 곳을 뚫고 올라오는 물이 고이는 곳이 사방 1~5m이나 되게 우묵하게 파이는데 그 바닥은 현무암이 깔려 있다. 그 주위에 돌담을 쌓아 올려서 목용하기 좋게 만든다.
- ⑥ 양촌 산촌 샘물은 현무암층을 뚫어서 나오는 용수(湧水)를 이용한다. 근년에는 현대식 수도 시설을 하여 편하게 쓰고 있다.
- ⑦ 해안지대에서는 하천하류에서 일단 땅속으로 잠류하였다가 다시 해안지대에서 용출하는 샘물이 매우 풍부하다.
- ⑧ 해촌샘물은 깊이 15m를 파면 물이 2m나 고인다.
- ⑨ 해중용수(海中湧水)는 솟난물이라 한다. 만조시는 해수로 덮여 버리고 바닷물이 나가면 샘물이 고인다. 여자들이 허벅으로 물질을 하는 광경을 많이 본다.

여기서 ①, ③, ⑤, ⑥ 항목은 중산간 마을의 용수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특히 ⑤, ⑥ 항목은 중산간 마을의 음료수 확보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는 모두 용천수에 의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식생활의 관점에서 용수를 조사한 결과로 봐야할 것이다. 용수의 개념을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마소용 음료수까지 확대해서 본다면 각 지역별로 음료수 취수 방법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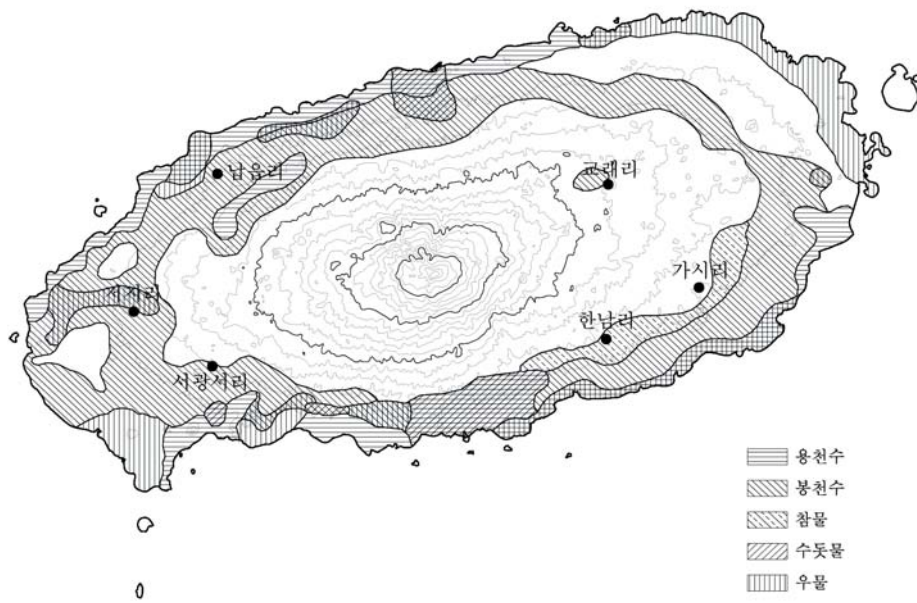


그림 4-7 음료수의 유형과 분포

<오홍철, 「제주도의 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그림 20, p.107. 참조>

위 조사 결과가 조선시대 음료수 유형과 분포도에 대한 조사는 아니므로 우물과 수도의 분포도를 제외하여 보아도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중산간 지역은 봉천수에 의지하고 있으며 성읍에서 가시·수망·신례까지는 참물을 사용하는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마수다 이치지의 조사에 의하면 참물은 제주도 동부지역과 서부 일부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차이점을 보인다. 참향을 이용한 취수방법은 현재 조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마을 조사 당시 면담¹⁷⁾ 내용을 보면 마을에 있어 하천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마을이 발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17)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안성수 이장, 남제주군 남원읍 한남리 고석필 전 이장 제보

4.2. 간접적 요인

4.2.1. 행정단위에 의한 구분

현재 제주도의 행정체계는 크게 북제주와 남제주로 나뉘어 있었다. 이러한 행정체계는 근대에 들어와서 재편된 것이고, 조선시대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제주도의 동서로 긴 지리적인 모양에 따라 행정구역이 나뉘어졌다. 이것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행정단위이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제주도가 삼읍체제로 바뀌면서 확고해진다.

『탐라지(耽羅志)』 건치 연혁조에 의하면, 고려 충렬왕 26년(1300)에 제주도를 동·서도로 나누고 현촌을 설치하였는데, 그 현촌은 귀일(貴日)·고내(高內)·애월(涯月)·곽지(郭支)·귀덕(歸德)·명월(明月)·신촌(新村)·함덕(咸德)·김녕(金寧)·호촌(狐村)·홍로(洪爐)·예래(猊來)·산방(山房)·차귀(遮歸)로 14개를 열거하고 있다.¹⁸⁾

1530년에 제작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제주는 산 북쪽에 있다. 산의 동쪽 서쪽이 모두 90리 거리이고 산의 남쪽은 또 더 멀어서 백성이 왕래하려면 반드시 이틀 밤을 자야하고 관청에서 공문을 보내면 며칠 후에야 이른다. 또 한 관리의 귀와 눈으로 향간의 폐단을 두루 살피기란 이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지난 날에 학성(鶴城) 오식(吳湜) 공이 와서 제주를 안무할 때에 사정을 갖추어 조정에 급히 알리매 정리하여 셋으로 만들어서 서쪽에는 대정(大靜)을 두고 동쪽에는 정의(旌義)를 세웠다.¹⁹⁾

조선 광해군 1년(1608)에 섬의 인구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하여 동, 서부 지역에 하위 행정단위인 방리를 설치하고 인구 관리의 책임자인 약정이라는 직책까지 두게 된다.²⁰⁾ 제주에서는 필요한 병력 절대수가 부족하므로 임진왜란 이전에는 육지에서 보충군(補充軍)을 지원 받았으나 임진왜란 이후는 육지 방위 병력이 부족하여 원병(援兵)할 수 없었으므로 제주 방위는 제주 자체에서 해결하라 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제주에서는 병력 충당을 위한 인구관리가

18) 북제주군, 앞의 책(상권, 2000.), p.439.

19) 『新增東國輿地勝覽』, 제38권, 전라도, 정의현.

20) 제주도, 『제주도지』(제1권, 1993.), p.460.

절실히 요구되었으므로 광해군 2년(1609) 김치(金緻) 판관이 동서로 방리(坊里)직제를 실시하였다.²¹⁾

제주도를 동부와 서부로 나누었던 것은 제주도가 남북길이에 비해 동서로 긴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동부와 서부는 토양의 차이에서 오는 농작물의 차이, 제주도로 내려온 유배자 수의 차이로 인한 양반문화의 성립 등으로 그 성격이 구분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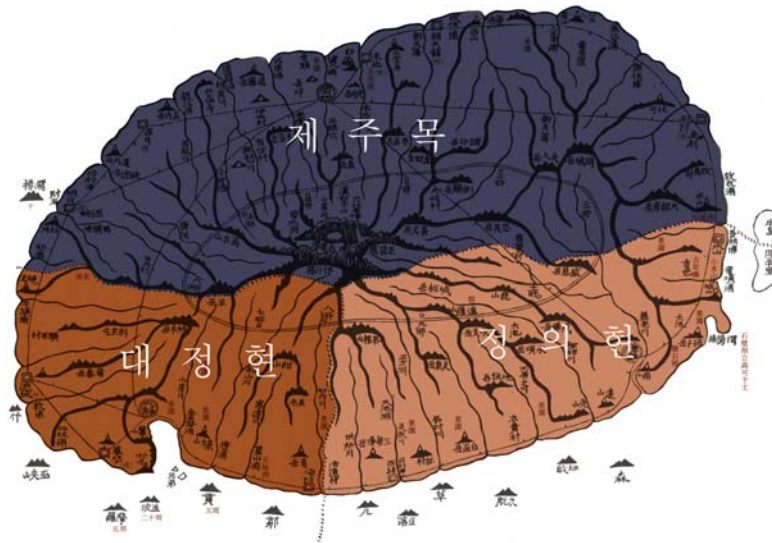


그림 4-8 『대동여지도』에 표기된 제주의 행정단위
<『대동여지도』, 목판본, 김정호(金正浩), 1861년 참조>

조선 시대 남제주 지역은 정의현과 대정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림 4-8>에서는 대정현과 정의현 경계선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 이 지경을 따라 다툼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정의현과 대정현은 각기 다른 행정단위 안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제주도 동부와 서부는 단순히 행정단위로만 나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생활 모습이나 서로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를 보였을 것이다.

21) 북제주군, 앞의 책(상권, 2000.), p.481.

4.2.2. 제주도의 동·서 길이에 따른 영향

제주도의 지형은 섬 가운데 한라산이 솟아있으며 ‘오름’이라 불리는 기생화산들이 제주도 곳곳에 위치하여 있다. 따라서 한반도 지리인식체계의 근간이 되는 산줄기가 제주도에서는 찾기 힘들기 때문에 마을 입지를 설명하는 데에도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산줄기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방사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한라산·어승생오름·성널오름 등 여러 오름들이 동서로 연결되어 생기는 산줄기는 분수령이 되어 하천들은 대부분 남류하거나 북류한다. 고려 시대 이전 마을은 주로 북쪽 해안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한반도와 관계와 더불어 어로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음료수로 이용될 용천이 풍부하다는 것과 관련되고 있다.²²⁾ 따라서 남제주 지역의 마을은 북제주 지역에 비하여 뒤늦게 발달되었다. 그것은 북제주 지역의 한반도와 맞닿은 위치에 있어 한반도 문화와 주거공간이 먼저 파급될 수 있었다.²³⁾ 이러한 사실은 제주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산줄기가 양 지역 간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산줄기를 넘어야하는 도로는 조선시대 제주목과 정의현·대정현을 잇는 관도가 생겨나면서 통하기 시작했다. 이 산줄기는 가옥과 마을의 입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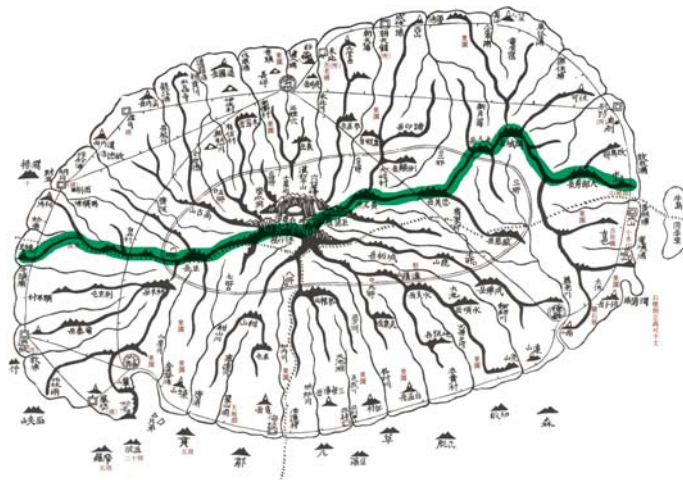


그림 4-9 제주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산줄기
<『대동여지도』, 목판본, 김정호(金正浩), 1861년>

22) 오흥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108.

23) 남제주군, 『남제주군지』(1986.), p.78.

제주도와 같이 중앙에 한라산이 솟아 있는 지형적 조건하에서는 가옥의 배치방향이 반드시 남향일 수만은 없었다. 남제주 지역은 이상적인 가옥 배치방향인 남향 가옥이 대부분이지만, 북제주 지역에서는 대부분 동향과 서향 가옥이 대부분이다.²⁴⁾ 하지만 한라산 사면의 산록이라 해도 경사 2~3도의 완경사로 거의 평지이기 때문에 가옥 배치와 마을 입지는 비교적 자유로웠다. 이것은 다른 지방의 취락의 입지가 5도 이상의 산록 완사면이 되는 것과 매우 다르다.²⁵⁾ 제주도에서도 북향은 흉방(凶方)이라 풍수 이론을 따랐으며, 겨울의 편북풍을 피하기 위해 꺼려하였다. 따라서 남향을 취하기 힘든 북제주 지역에서는 동향과 서향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는 한라산체와 빗겨있는 북제주 지역의 동부와 서부에서도 제주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산줄기로 인해 남향을 선택하기란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남제주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해안을 따라 이동해야 했으며 동서로 긴 제주도의 지형 때문에 이는 상당히 긴 거리였다. 제주도의 동서길이는 73km, 남북길이가 31km²⁶⁾ 한라산을 가로질러가는 경우보다 2배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야 남제주 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의현을 중심으로 한 남제주 지역이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도 거주지화가 성립되지 않았고 거주지 개척과 마을 발달이 미약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⁷⁾

동일한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서 마을의 공간배치가 이루어진 것은 한반도와 맞닿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한라산 남사면은 북사면의 임해지역보다 마을 발달이 지연되었고 그것은 또 개발의 낙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⁸⁾ 북제주 지역의 해안 마을이 많이 분포된 것에 반하여 중산간 마을은 남제주 지방에 현저하여 내륙취락의 비율은 평균 55.4%에 달하고 있다.²⁹⁾ 이는 조선 초기 왜구의 침입을 피해 중산간 지역에 마을이 들어서게 된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산줄기보다 중산간 지역을 가로지르는 도로의 부재가 남제주지방의 발달을 저해한 결과로 나타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동부 중산간 마을과 서부 중산간 마을이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서로 왕래가 힘들었던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해안지역은 오래 전부터 마을이 있어왔기 때문에 해안을 따라 마을과 마을을 잇는 환형 도로가 있었다. 하지만 중산간 지역은 관도를 따라 마을이 위치하였기 때문에

24) 제주도, 『제주도지』(상권, 1982.), pp.617~618.

25) 제주도, 앞의 책(제1권, 1993.), p.496.

26) 이청규, 앞의 책(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29.

27) 오흥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40.

28) 오흥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30.

29) 오흥석, 앞의 책(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101.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는 있었지만 동부와 서부를 잇는 환형도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교류도 적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4.2.3. 제주도 동·서 지역 간의 문화 차이에 의한 영향

1) 민가 형태의 차이

제주도는 계층간 부의 축적방법이 모두 소농경영에 의하며 그 격차도 현격하지 않으므로 계층간 공간구성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³⁰⁾ 하지만 제주도 동부에서는 정지거리가 별도로 독립하여 안거리와 밖거리 사이에 위치한 'ㄷ'자형으로 배열된 형이 동부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³¹⁾

송병언(1998)은 이러한 차이는 서부의 유배자 수의 차이로 인한 양반 문화의 형성, 비옥한 토양으로 인해 보리농사가 잘 되고 경제적 상황이 좋음, 면화재배로 인한 의생활의 차이로 정지거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부는 이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정지거리가 따로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다. 민가의 이러한 형태 차이는 제주도 동부와 서부의 주생활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건축에 반영되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2) 무속, 미신 면에서의 차이

서부 지역 사람들은 동부 지역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동촌 여성이 앉았던 자리에는 풀도 안 난다'는 속담을 인용하기도 하는 것이다.³²⁾ 이는 제주도 동부 지역은 서부보다 더 척박했기 때문에 그만큼 토착 분향신에 더 기대하여 근면하고 억척스럽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신당(神堂)의 분포를 보면 제주도 전체 168개 신당 중 67%인 106개가 산동부에 분포한다.³³⁾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는 서부 지역에 제주도로 유배온 양반들이 많았고 이들로 인해 서부 지역은 한반도의 유교문화에 더 가깝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부 지역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무속 신앙을 더 중요시 하는 동부 지역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로 보았던 것이다.

결혼 풍습에 있어 중매인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도 동부와 서부는 차이를

30) 제주도 교육청, 「향토교육자료 제주의 전통문화」(1996.), p.138.

31) 송병언, 「생활문화로 본 제주도 민가 고찰」(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8권 제2호, 1998.), p.614.

32) 김혜숙, 『제주도 가족과 권당』(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p.391.

33) 송성대, 앞의 책(각, 2001.), p.193.

보인다. 제주시를 기준으로 서부지역(제주시, 애월, 한림, 대정, 안덕 등)에서는 중매인은 남성이라야 한다. 설사 여성들끼리 혼담이 오가더라도 중매를 넣을 때만은 남성이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주시 동부와 남부지역(신촌, 조천, 함덕, 구좌, 성산, 표선, 남원, 서귀포 등)에서는 중매인으로 남녀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곳도 있다. 성산읍 성산리, 오조리 등에서 중매인에 남녀를 크게 문제삼지 않으나, 같은 성산읍의 삼달리, 수산리에서는 여성이 나서면 성사되지 않는다고 여긴다.³⁴⁾

4.3. 소결

앞 장에서 제주도 동부 중산간 마을은 주로 소를 이용하여 음료수를 확보하고 서부 중산간 마을은 물통을 이용하여 음료수를 확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마을 형태에도 반영되어 동부에서는 하천을 중심으로 마을이 선형으로 발달하였고 서부에서는 원형에 가깝게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마을 입지 조건을 결정짓는 직접적 요인으로 하천, 지질특성, 토양, 지역별 용수의 차이가 있다. 한라산은 동서사면에 비해 남북사면이 발달해 있으며 하천도 이곳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다. 제주도 대부분의 하천은 건천으로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고 평상시 물은 하천 밑을 복류하여 해안에 이르러 솟아오른다. 중산간 마을은 대부분 이러한 하천 중간 중간에 생기는 소를 중심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간혹 하천 주변에 솟는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제주도 동부 지역은 땅이 척박하여 중산간 지역에 마을이 들어서기 힘들었고 이에 반해 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토양이 비옥하고 물통을 위한 음료수 확보를 통해 마을이 들어섰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4단계의 화산 활동기를 통해 형성되었으며 각 지역별로 형성된 시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한라산체는 주로 제3, 4분출기에 형성되었으며 동부와 서부는 제1, 2분출기에 형성되었다. 그리고 제주도 토양은 크게 4개의 화산회토대로 구분할 수 있다. 제주도 중산간 마을은 대부분 농암갈색화산회토대에 속해 있으며 이러한 토양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특히 제주도 동부 화산회토대는 투수가 잘 되는 토양이기 때문에 물통을 조성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부 중산간 마을은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서부 중산간 마을은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하기도 하지만 물통을 조성할 수 있는 곳과 농사짓기 좋은 경

34) 김혜숙, 앞의 책(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pp.175~176.

작지가 확보된다면 마을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에 따르면 중산간 지역에서도 음료수는 대부분 용천수를 사용한다고 조사되었다. 하지만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마소용 음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봉천수 사용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중산간 마을이 입지를 정할 때 봉천수를 확보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제주도 중산간 마을이 동·서로 지역적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행정단위와 제주도 동서길이를 들 수 있다. 중산간 마을이 조선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이 시기에 제주도는 삼읍체제로 행정단위가 체계화되었다. 하지만 이전부터 제주도를 동·서도로 나누어 관리하였던 기록이 있으며 이러한 바탕에서 제주도를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으로 나누는 체제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단위는 제주도의 지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제주도는 여러 산줄기가 발달하지 않았지만 한라산의 남사면과 북사면을 나누는 하나의 산줄기가 동서로 가로질러 간다. 이를 기준으로 북제주와 남제주에 나뉘는데 중산간 지역에 관도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해안을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주목에서 지금의 서귀포지역으로 왕래가 힘들었고 지형적 거리상 동부와 서부도 원활히 교류가 일어나긴 힘들었다.

표 4-1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지역적 차이

	하천	지질	토양	음료수 확보	물통 조성	마을 입지
동부	많다	제3분출기 지질	흑색화산회토대	소(沼)	불가능	제한적
서부	적다	제1,2분출기 지질	농암갈색화산회토대	물통	가능	선택적

제주도 동부와 서부는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이며 두드러진 차이는 하천 분포와 토양이다. 이러한 차이는 중산간 마을에서 음료수 확보 방법에 차이를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마을 형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주도 동부 중산간 마을은 하천에 있는 ‘소’를 중심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마을 입지를 선택하는 면에서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자연발생적인 ‘소’가 주된 음료수 확보 방법이었고 마을은 이 소를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 동부에서 마을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는 일정한 수의 가구에 서 필요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소’ 주변인 것이다.

이에 반해 제주도 서부에서는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물통이 주된 음료수 확보 방법이기 때문에 마을 입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물통을 조성할 때도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르긴 했지만 제주도 동부에서 물통을 조성하기 힘들었던 것에 비하면 마을 입지 선정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 서부 중산간 마을에서도 수원인 물통을 중심으로 주거지가 결정되고 마을 경지와 목장지가 결정된다. 하지만 가장 중심에 놓이는 물통은 인공적으로 조성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선택적이었기 때문에 주거지와 마을 경지, 목장지의 위치와 더불어 마을 입지가 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제주도는 본래 용천수가 솟아나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마을이 들어섰으며 중산간 지역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고려 시대부터이다. 중산간 지역의 목장 형성, 왜구 침입으로 인한 해안 마을의 피해, 중산간 지역에 신설된 관도로 인해 해안가에 집중되어 있던 거주지가 중산간 지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해안 마을이 어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생활했던데 반해 중산간 마을은 목축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생활하였다. 중산간 마을의 입도조는 대부분 한반도에서 제주도로 내려온 몰락한 양반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근본은 양반이라는 반촌의식과 그들끼리 이루어진 통혼을 통해 해안 마을과 다른 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현재 중산간 지역을 어떠한 기준으로 보는가에 따라 중산간 지역과 중산간 마을을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중산간 마을은 절대적인 수치나 기준보다 중산간 마을과 해안마을의 상대적 위치를 근거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웃뜨르 마을(윗 마을)’과 ‘알뜨르 마을(아랫 마을)’로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을 구분하였다. 이처럼 해안 마을보다 해발고도가 높으면서 농업 이외에 목축업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을 중산간 마을이라 칭할 수 있으며 이들이 분포한 지역을 중산간 지역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산간 지역에 마을이 들어서게 되면서 가장 크게 작용한 입지 조건은 음료수 확보 문제였다. 제주도의 하천은 대부분 건천이며 토양도 투수성이 높아 지표면에서 물을 확보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물이 확보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을이 들어서게 되었다. 중산간 지역에서 물을 확보하는 방법은 소(沼), 물통, 찰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와 물통을 이용한 음료수 확보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데 반해 찰항을 이용하는 방법은 개인적인 성격을 보인다. 제주도에서는 켄당이라는 특수한 친족 개념으로 인해 한반도 마을과는 다른 마을 공동체 의식이 생겨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소나 물통의 엄격한 관리가 가능했던 것이다.

수원을 중심으로 주거지가 형성되어 방사형의 마을 형태를 가지는 것이 제주도 중산간 마을이 가지는 특징이다. 해안 마을은 마을 한 면이 바다와 면해 있지만 중산간 마을은 비교적 평탄한 대지 위에 마을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반도 마을이 배산임수라는 전통적 입지관을 바탕으로 산록완사면에 향을 중시하는 마을 공간이 형성된 것에 반해 제주도 중산간 마을은 수원(水源)을 중심으로 가옥이 배치되고, 이 주위에 경작지가 들어서게 되며, 그 외곽으로 목장이 위치하였다. 하지만 음료수를 확보하는 방법이 제주도 동·서

부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면서 마을 형태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조천읍 교래리, 표선면 가시리, 남원읍 한남리와 같은 동부 중산간 마을은 주로 소를 이용하여 음료수를 확보하는데 반해 애월읍 남읍리, 한경면 저지리, 안덕면 서광서리와 같은 서부 중산간 마을인 경우는 물통을 이용하여 음료수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마을 형태에 있어서도 동부는 마을이 선형으로 발전하는 것에 비해 서부는 원형으로 발전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동부 중산간 마을과 서부 중산간 마을의 마을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은 직접적 요인과 간접적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직접적 요인은 하천, 지질·토양 특성, 지역별 용수 차이이다. 제주도의 하천은 대부분 한라산 북사면과 남사면에 집중되어 있는데 동부 중산간 마을은 이를 중심으로 입지하게 된다. 이보다 더 동쪽으로 진출할 경우 토양이 너무 척박하여 물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마을이 입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부는 지질 조건이나 토양에서 비교적 투수성이 낮은 땅에 속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물통을 조성하고 봉천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동·서부의 차이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행정단위나 제주도의 동서길이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자연발생적인 소(沼)를 중심으로 마을이 입지하였던 제주도 동부 중산간 마을에서는 입지 선정 면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제주도 서부 중산간 지역에서는 인공적으로 물통을 파고 이를 수원으로 마을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을 입지가 선택적일 수 있었다.

-연구의 성과와 과제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형성과정과 특징을 밝히고 이러한 중산간 마을이 동부와 서부의 음료수 확보 방법에 따라 마을 형태와 입지 조건이 달라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 중산간 마을이 한반도 마을과 비교하여 형성 배경이나 입지 조건, 마을 공간 구성에 있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한국 문화 안에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독자성의 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중산간 마을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해당하는 지역을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4·3 사건이후 중산간 마을이 복구되면서 이 지역에 많은 도시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과거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고문헌

- 『삼국사기(三國史記)』
金淨,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1521.
金尙憲, 『남사록(南槎錄)』, 1601.
李健,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2. 단행본

-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88.
김동옥,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세림, 2000.
김영돈, 『제주도 제주 사람』, 민속원, 2000.
김홍식, 『한국의 민가』 1·2권, 한길사, 1992.
김혜숙, 『제주도 가족과 켄당』, 제주대학교출판부, 1999.
남제주군, 『남제주군지』, 1986.
마수다 이치지(榑田 一二) 저 / 홍성목 번역, 『제주도의 지리학적 연구』, 제주
시우당도서관, 2005.
북제주군, 『북제주군지』 상권, 2000.
서광국민학교, 『서광리지』 서광서리, 1986.
송성대, 『제주인의 해민정신-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각, 2001.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상』, 열화당, 1986.
오성찬, 『제주의 마을』, 반석, 2002.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오홍석, 『취락지리학』, 교학연구사, 1989.
야하타 도시오 지음 / 김종흡 옮김, 『신비롭고 고마운 토양권』, 전파과학사,
1992.
이도원, 『한국의 전통생태학』, 사이언스북스, 2004.
이도원, 『흙에서 흙으로』, 사이언스북스, 2004
유진 오덤 지음 / 이도원·박은진·김은숙·장현정 옮김, 『생태학』, 사이언스북
스, 2001.
장보웅, 『한국 민가의 지역적 전개』, 보진재, 1996.
저청국민학교, 『저청학구향토지』 저지리, 1987.

제주도, 『제주도지』 상권, 1982.
 제주도, 『제주도지』 1·2권, 1993.
 한국이동통신 제주지사 편, 『제주의 문화유산』, 한국이동통신 제주지사, 1994.
 홍경희, 『촌락지리학』, 법문사, 1999.
 뿌리깊은나무, 『(한국의 발견)제주도』, 뿌리깊은나무, 1990.

3. 학위논문

김석윤,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김지수, 「4·3과 중산간 마을의 거주공간 변모」,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나미영, 「제주 성읍민속마을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박문우, 「입지론적 배경에 의한 마을과 민가의 좌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송병언, 「생활문화로 본 제주민가 고찰: 동·서부에서의 정지거리 유·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오홍철, 『제주도의 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이청규, 「제주도 고고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임범훈, 「제주도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중산간지역 관광개발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오홍석, 「제주도의 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張宇煥, 「韓國 中山間地域의 區分과 特性에 관한 實證分析」,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진기옥, 「제주도 중산간지대 지하수의 수리특성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황윤철, 「중부산간마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4. 학회논문

吳洪哲, 「濟州道の 聚落立地에 關한 研究」, 지리학 제4권 1호, 1969.
 여중철, 「동족부락의 통혼권에 관한 연구」, 인류학논집 제1권 서울대 인류학회, 1975.

전경수, 「용수문화, 공용재, 그리고 지하수: 제주도 지하수개발의 반생태성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12권, 1995.

송병언, 「생활문화로 본 제주도 민가 고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 18권 제2호, 1998.

5. 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1974.

제주도, 「제주의 민속IV: 의생활·식생활·주생활」, 제주도, 1996.

제주도, 「제주 100년」, 1996.

제주도,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1997.

제주도, 「제주의 물, 용천수」, 1999.

제주도교육청, 「향토교육자료 제주의 전통문화」, 1996.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토석채취 예정지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서광서리), 2000.

제주도 건축사회, 「제주건축」 제2집, 1992.

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 「제주의 마을 공간 조사보고서」(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2002.

6. 법률

「제주도개발특별법」

ABSTRACT

A Study on Local Difference in Conditions of Location at *Jungsangan* Village in *Jeju* Island

Koh kwan bum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Master Course in Graduate School

Sung Kyun Kwan University

Advised by Prof. Lee, Sang Hae

Existing on low rank constituent within large concept of Korea culture, *Jeju* culture had kept individuality continuously. Characteristic of mountain range that occurred by the mountains that erosion lifts consecutively in Korea Peninsula paper mold that is gone over long term appears. On the other hand, *Jeju* island has long distance for east and west in cone style laying stress on *Mt. Halla* among island as a volcano island that consist through *Mt. Halla's* volcano activity. Therefore, Korea Peninsula and *Jeju* Island villages show difference from the beginning in conditions of location. In *Jeju* Island, there are the seaside villages that has springwater and the *jungsangan* villages that has reservoir. This study try to find about nature and person's relationship in this area through concept called '*Jungsangan*' that was not in Korea Peninsula. The villages in *jungsangan* area is an evidence that our ancestors tried to take a relationship with local nature.

The *jungsangan* villages of *Jeju* Island are sorted by relative position of the seaside village not in absolute numerical value or standard. *Jeju* Island people separate *jungsangan* villages and the seaside villages by '*Utturu* village (the upper village)' and '*Altturu* village (the lower village)'. In this way, *jungsangan* villages are higher than the seaside villages in the sea level altitude, cultivate and engage stock farming. The *jungsangan* area is a range of these *jungsangan* villages. The most important problem that conditions of location in village was how

to get the water in *jungsangan* area. The methods to get the water in *jungsangan* area are swamp, water pail and *chamhang*. Using swamp and water pail to get the water is a kind of public system, but using *chamhang* is a kind of individual thing.

In *Jeju jungsangan* village, there are a source of water supply in center of village and houses is arranged by it. The cultivated land is located outside of village and the stock farm is surrounding the cultivated land. However, method of getting the water shows difference between the east side of *Jeju* Island and the west side, it appears difference of village shape. The villages in the east side of *Jeju* Island had used the swamp, and the villages in the west side of *Jeju* Island had used the water pail. These difference make the villages in the east side grown like a line, and the villages in the west side grown like a circle.

There are direct factors and indirect factors that make the difference of the *jungsangan* village shape in the east side and the west side. The direct factors are rivers, geological • soil characters and difference of using waters. Though rivers of *Jeju* Island is concentrated on the north side and the south side of *Mt. Halla*, the *jungsangan* villages in east side located by the river. Because the soil is so poor in moving to the east side than this area, it is difficult to get the water and the village is hard to be built up. And people in the villages in the west side used water pail and acquired the water, because water permeability of the west side was lower in geological and soil condition. Administration unit and distance of *Jeju* Island within the east and the west have an influence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east side and the west side. *Jungsangan* villages in the east side of *Jeju* Island were built up by the swamp that formed naturally, it was limited to choose the village's location. On the other hand, *jungsangan* villages of *Jeju* Island in the west side make the water pail artificially and build up the village being depended on this water, so they chose the village's location optionally.